

미추홀, 살아지라-2
승기천을 기억하라

미추홀, 살아-지다-2
승기천을 기억하-다

발간사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우리는 역사를 과거에 묶어두면서 전통과 향토의 기록, 보전을 근현대 이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정작 근·현대에 대한 기록의 역사가 짧고 부족합니다.

근·현대 급격한 산업사회로의 성장과 그에 따른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은 지역의 문화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을 소홀히 했고, 인문학적 삶의 가치를 묻는 일도 뒷전으로 미뤄두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공동체적 삶의 연대를 이루던 터전들이 하나 둘 사라져 갔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집 밖
개울에서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으면서 놀았습니다. 그 곳은 아이
들의 놀이터였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와 추억들이 만들어지는 중요
한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미추홀구의 승기천도 그런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승기천’은 수봉산에서 발원하여, 미추홀구를 가로질러 남동구,
연수구를 지나 황해로 흘러가는 하천으로 인천 도심을 관통하는 유
일한 하천입니다. 그러나 60~80년도에 이르러, 도시가 팽창하는 과
정에서 미추홀구 일대의 상류 구간이 토지정리구획사업으로 복개
되어, 길과 도로의 아래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도 많은 근·현대의 기록이 그렇듯이 미추홀구의 승기천에 대한 기
록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추홀학산문화원은 올 해 열린집담회‘지금은 미추홀水다 川川
이... 승기천(川)으로~’를 열어, 주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승기

천의 이야기를 소환하여, ‘물’이 흐르는 도시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승기천’에 대한 기억을 모아 기록으로 남기고자, 마을지 「미추홀, 살아지다2’승기천을 기억하다」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승의동부터 문학동까지, 토박이부터 이주민까지, 삶의 터전 혹은 놀이터였던 승기천에서의 다양한 기억과 추억을 실은 13명의 인생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미추홀구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담아내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2019.12.

미추홀학산문화원장 이 회 만

목차

발간사

2

승기천을 생각하다

물이 흐르는 원도심, 생태하천 2.0을 생각하다

_현광일

14

승기천의 어제와 오늘

물길복원을 넘어 도시를 회복하는 하천이 되길

_최혜자

26

내가 기억하는 승기천

1) 원도심을 흐르던 물길

송의동 일대 “수봉산이 물이 많았던 곳이에요” _민후남	49
용현동 일대 “그물 가지고 미꾸라지도 잡고” _오인영	70
주안동 일대 “물은 계속 흘렀고 맑았어요” _이태승	90
문학동 일대 “신비마을 사람들이 석바위를 가려면 장다리를 건너야 했어” _이기영	103

2) 그 시절의 물길

“승기천이 원도심 안에 실제로 흐르고 있었어” _김윤식	121
“지금의 나를 만들어 온 것들” _박병상	139

3) 고향, home

- “밤이 되니까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번쩍번쩍하고
굉장했지” _김원균 155
- “고향이시. 옛날 기억에 자꾸 젖어들게 돼” _박성희 164
- “가재 잡고, 싱아 뜯어먹던” _박광현 182

4) 그 때의 우리

-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했던
독쟁이” _김갑성, 김연수 196
- “수초도 자라고 물이 흐르던” _이현준 225
- “동네 형들하고 붕어잡고 미꾸라지 잡고” _고병선 237

승기천을 꿈꾸다

생명이 다시 흐르는 도시 하천 _박병상 264

승기천의 복개현황, 자연환경 그리고 복원방안 _장정구 285

기록일지

314

일러두기

1. 구술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그대로 살리고자 했습니다.
2. 구술 내용 중 사실을 재확인하거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괄호나 각주를 활용해 부연했습니다.



수봉산

이왕기계곡

영일초

시가지

승학산

시민공원

인천교

승기거리

인천터미널





1967년 승기천 상류 위성사진 (출처 : 네이버)

미추홀, 살아지다2
승기천을 기억하다

승기천을 생각하다

물이 흐르는 원도심, 생태하천
2.0을 생각하다_현광일

물이 흐르는 원도심, 생태하천 2.0을 생각하다

현광일

〈공간, 문화, 정치의 생태학〉 저자

현대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아간다. 도시를 하나의 테두리로 파악하고 거기에 자기 중심을 두고 중심에서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면서 살아간다. 눈의 조작, 광학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생물적 존재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필요에 의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사람에게 필요한 공간을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넓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공간이 협소하거나 안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개념만은 아니다. 우리가 정보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도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생물학적 관심에서 비롯된다. 137광년 우주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왜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할까? 정보에서 중요한 것은 주변에 위험한 것은 없는지, 이와 함께 힘이 있는 게 있는지도 중요하다. 오늘날 공간에서 랜드마크 개념이 그것이다. 만약 정보가 너무 많다면 그 또한 자기 인생에 중심을 잃고 갈팡질팡하게 된다. 오늘날 정보의 홍수 속의 인간을 보라.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원하는 공간이다.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는 공간의식이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공간, 마음의 공간 또한 필요하다.

지난 학산문화원에서 진행한 승기천 집담회는 역사적으로 승기천이 미추홀구를 관통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이야기와 승기천과 관련한 인터뷰를 통해 기억을 되살리는 자리였다. 나는 승기천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를 인문학적,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싶었다. 여기에서 '의미'라는 것은 주관적 의미가 아니라, 새롭게 복원될 때 어떤 방식으로 복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야기들의 단서로 주어지는 지형적인 것들과 삶의 관계들을 구성하는 일, 다시 말해 인문학적인 의미부여를 통해 우리 삶의 가치를 생각해 보기를 원했다.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할 때 자연스럽게 인문학적 사유체계를 가지게 된다.

과연 인간은 자연을 어떻게 사고해 왔는가? 자연과 인간에 대한 형이상학적 물음을 던지게 된다. 근대 이후에는 자연은 개발의 대상이었다. 라틴어로 자연은 *physis*(피지스)라 했다. 피지스는 존재물, 피조물, 고유한 이름이 붙지 않은 보석이라는 뜻으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고대의 서사도 마찬가지다. 근대의 합리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형이상학적 물음을 통해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지고 있다. 온난화 현상 등을 통해 자연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후쿠시마원전도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생태학적 입장이라는 것은 역시 자연에 대한 근대 문명적 이해에 대해 성찰해보자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인식을 통해 승기천을 폭넓게 이해하자는 것이다.

나는 용현동에서 지냈다. 내 놀이터는 갯벌, 낙섬 같은 곳이다. 지금 용현동이 재개발 되고 있다. 내 어릴 적 기억의 장소들이 지워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자기가 살았던 길의 지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형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나이를 먹고, 기억이라는 것이 축적되고, 삶의 의미를 따지는 일이 중요한데 지형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보니 이 도시는 더 이상 내가 살아왔던 정든 공간이 아니다. 도시가 재개발되고, 기억의 장소들이 없어지면서 내가 타자화 되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삶에서 공간과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

장소, 거주, 고향. 삶에서 속도, 이동성으로 모든 것을 보았다면 거주와 정주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지를 이야기했지만 시간 중심의 속도사회에서 공간 중심의 거주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마을이라든지 커뮤니티를 생각할 때 깊은 삶의 정주성에 대한 문제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인간다움 자체의 근본을 살펴보는 일이다.

생태라는 용어가 가지는 의미가 자연친화적인 의미도 있지만,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나는 것이다. 김용택 시인은 <섬진강>이라는 시에서 말한다.

푸른 하늘

그아래 청산

강이 있어 바라보고

그강 언덕 산자락에

사람들이 모여

물 나고 빛 좋은 곳 터를 잡아

...

동네를 이루어 살았으니

그게 몸과 마음 둘 땅이었더라.

하늘 아래 산이 있고, 강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산다

생태친화적인 도시는 무엇일까 질문해야 한다. 생태친화적인 도

시가 되기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고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출발의 기초가 얇으니 생태친화도시는 더 이상 개발에 대한 반대 담론이 아니라 유리한 담론이 되고 있다. 감각적이고 편익주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삶의 풍족도 등 인간중심적 사고가 아닌, 인간중심적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것, 자연과 교감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화가 나면 우리는 왜 강가를 걸을까? 물가에 가면 편해지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물과 마음의 은유를 담은 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것은 물이다. <시>라는 영화를 보면 처음과 끝이 '강'이다. 이것은 중요한 메타포(metaphor)다. 아이가 어릴 때 비슷한 토래의 아이를 둔 세 가족이 동강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아버지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그 토래의 아이들이 남았는데 잔잔히 흐르는 강을 하염없이 지켜보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평화로웠다. 하루 종일 돌을 던지는 아이, 그저 바라보는 아이. 어느

아이도 부모를 찾지 않았다. 해가 지려고 하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닌 데 주변에 낙엽이며 나무를 모아와 불을 피운다. 자연에 텅굴던 아이들은 코 밑이 거뭇하고 피죤죄한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신기했다.

자연과 교감했던 기억은 물과 자연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이다

그것 자체로 인간의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갯고랑이라든지 개천은 아이들에게 주어진 놀이터였다. 포랑만 있어도 끊임 없이 뭔가를 했다. 나의 경우는 바다와의 친밀성이 있다. 그런 친밀성이 없이 승기천이 생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더 많은 의미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

경제개발계획과 같은 국가적 이념을 가지고 인간 삶이 재편되었다. 지금은 다시 생태하천을 떠나없이 이야기한다. 자연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질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승기천이 복원된다는 것은 물리적인 차원의 물길이 복원된다는 것보

다는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 자연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복원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는 더 드러나게 된다. 구성체가 얼마만큼 밀도가 있을까? 지금의 의미를 계속 자기 증식해야지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접근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 이미 인류역사 안에서 고민한 사례가 있으니 자기 경험에 갇혀있기보다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물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도심 속에 갇혀 살아왔고 근시안적으로 내 앞길 바라보기만도 바쁘다.

노르웨이 아르네 네스라는 철학자는 ‘깊은 생태주의’라는 말을 만들었다. 오슬로 대학교수로 있으면서 산 속에서 살았는데 환경 친화적으로 사는 게 환경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형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자연 속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 이것은 환경 친화적인 지혜를 기르는 일이다. 아르네 네스는

정 살기가 괴로우면 세상을 버리고 산으로 가는 것도 좋다고 이야기했다.

이 사람이 바위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바위를 잘 들여다보게 되었다. 가만히 보니까 바위도 유구한 것이면서 변화하는 것이란 걸 생각하게 되었다. ‘바위 역시 변화하는구나’ 제 모습을 제대로 갖고자 하면서도 변화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다는 것, 너무나 짧게 살다 가는데 영원한 시간을 알면서 사는 것이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간을 바라보며 인간의 정신적 삶을 생각하는 일은 나를 중심에 두면서도 동심원적 세계관 속 대자연의 구도 안에 나를 바라보는 일이다. 어렵지만 모든 사람이 환경지혜를 추구하고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한다. 여기 승기천을 기억하는 분들의 구술을 통해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물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나아가 과거와 미래를 담아내는 도시, 미추홀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새로운 것을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뜨는데 있다. 승기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
각자가 자신의 삶 자체를 돌아 볼 수 있어야 한다.

위 글은 2019년 10월 4일 진행된 대담을 바탕으로 재편집한 글입니다.



승기전 현재 물길과 과거 갯골 (자료 최혜자)

미추홀, 살아지다
승기천을 기억하다

승기천의 어제와 오늘

물길복원을 넘어 도시를 회복하는 하천이
되길 _ 최혜자

1908년 기준

물길복원을 넘어 도시를 회복하는 하천이 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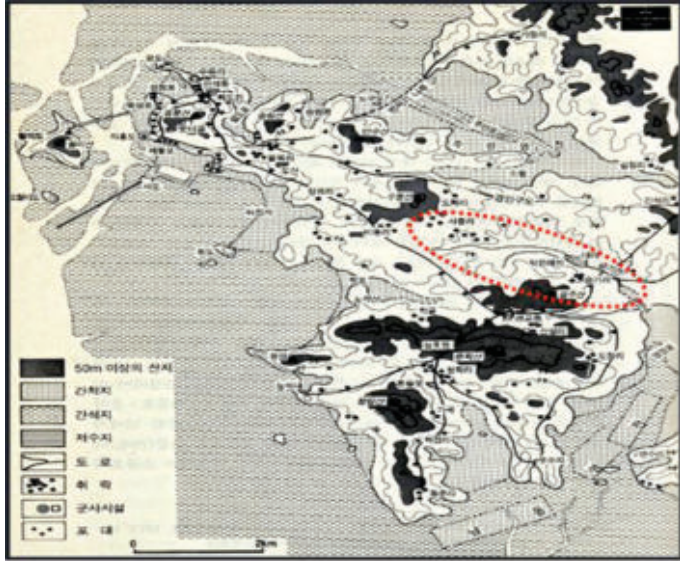
최혜자

인천 물과미래 대표

물길을 잃어버린 승기천 상류

승기천 상류 물길복원에 대한 관심들이 뜨겁다. 아쉬운 점은 승기천 상류에 대한 기록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승기천 상류는 폭이 넓었고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살았으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쳐났다는 승기천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과 추억 속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2019년 11월 8일자 기호일보와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이 공동기획한 <특집, 옛 물길을 살리자>에 의하면 승기천 상류는 산업화의 그늘 속에 사라졌다는 내용이 나온다.



인천지도에 나온 승기천. (자료 1997. 최영원, 국토와 민족생활사)

1965년 인천시는 미추홀구 주안동을 주안공업지구로 지정했다. 소금을 만들수록 빛만 나는 대한염업(주)의 주안염전(264만 m^2)을 메워 산업단지를 만들자는 상공인들의 요구가 있었던 터였다. 제2수출공단(67만7천690 m^2)과 기계공단 제1단지(32만7천470 m^2), 2단지(69만1천 m^2), 3단지(65만4천900 m^2), 비철금속공단(41만8천377 m^2) 등이 었다.

1970년 말 1m 높이로 흙을 돈아 공장들이 들어올 터를 닦아 냈고



1967년 승기천 상류 위성사진 (출처 : 네이버)

외상으로 염전을 사들여 산단을 마련했다. 주안산단은 인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1965년 30.7%였던 제조업은 1975년 59.1%, 1980년 62.3%로 치솟았다. 1965년~1970년 연평균 28.3%를 기록한 인천의 성장률은 전국 평균(28.1%)을 앞질렀다. 1970~1980년 역시 인천의 연평균 성장률은 30%로 전국 평균(29.5%)을 웃돌았다. 전국 평균 성장률보다 앞선 인천의 경제성장은 인구 유입을 불렀다. 1963년 28.4%에 불과했던 총인구 중 미추홀구가 차지했던 인구는 1969년 34.0%, 1972년 36.8%, 1977년 42.0%로 상승세를 탔다. 산업단지 생산활동이 절정을 이뤘던 1981년에는 46.2%까지 올라갔다.

1969년 미추홀구의 인구증가율은 10.7%였다. 그때 동구와 북구(부평구·서구·계양구)의 인구증가율은 0.78%, 4.49%였다. 인구가 급증했지만 송의동과 도화동, 주안동, 간석동 등지는 살 집이 부족했다. 1970년대 전 기간 인천의 주택보급률은 53~57%를 넘지 못했다. 임금이 낮은 노동자들은 판잣집과 쪽방, 별집, 비닐하우스 등 무허가 주택에서 살았다. 무허가 주택은 1967년 9천836동, 1969년 1만1천679동, 1979년 3만845동으로 계속 늘었다.

인천시는 집이 부족하자 주안 일대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벌였



주안2동에서 바라본 수봉산(미추홀구청 제공)

다. 제일시장 삼거리~옛 시민회관 일대 주안1지구(86만8천30m²·1965~1973년), 인천기계공고~인하대학교 일대 고속1지구(348만9천41m²·1968~1978년), 도화오거리~주안역 일대 고속2지구(372만7천531m²·1968~1980년), 옛 법원고가사거리~남인천전화국 일대 주안2지구(67만3천81m²·1970~1976년) 등 사업을 벌였다.

승기천 상류 일대에는 주안3지구(125만8천36m²·1974년~1976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벌어졌다. 1984년 6월 복개공사 착공 이전까지 논들을 가로지르는 개천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승기천 상류에는 ‘장다리’라는 다리도 있었다. 1960년대 내지 1970년대 초까지는 이 다리 근처 눈에 물을 대어 겨울철 스케이트장으로 쓰기도 했다. 지금의 서울여성병원 근처라고 한다.¹⁾

승기천 상류는 1960년대 후반부터 도시인구 증가로 인한 오염과 1980년대 도시인구 밀도와 토지이용 압력이 높아지면서 복개되기 시작하였다. 하천의 복개는 승기천 상류에 대한 사망신고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천관리에 소홀해지고 하수가 유입되어 수질은 악화

1) 기호일보·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공동기획, 특집 옛 물길을 살리자 3, 산업화 그늘에 묻힌 승기천 상류 <공장 세우고 집 짓느라 메운 터 바다까지 이어지는 물길 튼다>

되고 악취, 하천생태계가 파괴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사라지게 됐다.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 승기천 중하류

승기천의 중하류인 지방하천 승기천(구월 농산물도매시장~동막교, 6.2km) 구간은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현재의 물길로 바뀌었다. 남촌동은 지금의 남동공단과 연수택지로 변했지만 구한말까지 '염말'이라고 불렸다. 그 당시까지 현재 문학경기장 인근 경인고속도로 고가가 지나는 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었다고 한다.

1980년대 들어와서 당시 신군부의 국보위 상임위원회에서 갈 데 없는 수도권 공해공장 이전 촉진지역으로 서울 및 인천항과 경인고속도로 근거리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공단조성 대상지를 인천시 남동구 폐염전 부지로 공단 조성계획을 확정짓고, 수도권 문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후, 1984년 4월 경제장관 회의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현재 LH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결정해 1985년 2월 총 1천 700억 원을 투입 총면적 956만5천536㎡를 매립하여 남동국가산업단지 공단터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시로부터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승기천 현재 물길과 과거 갯골 (자료 최혜자)

받았다. 이로 인해 승기천 주변의 남촌동·도림동·논현동·고잔동·동춘동 등지의 남동염전 소금밭 85만 평이 공업용지로 바뀌게 됐다. 승기천은 남동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물길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승기천(농산물도매시장~동막교) 구간은 2009년 7월 농산물 도매시장~남동유수지 입구까지 승기천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 이후 물 흐름이 개선되면서 건천이었던 과거에 비해 수질이 점차 좋아지면서 악취문제도 어느 정도 개선됐다.

실제 2010년 인천시가 발간한 ‘자연형 하천 유지관리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승기천을 이용하는 시민 344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5%가 복원사업 이후 하천 수질과 물 흐름이 좋아졌다고 대답했다.

생물상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식물상 및 식생을 보면 총 36과 114종의 불안정한 식생의 전형적인 도시하천의 모습을 보였지만,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총 8목 12과 13종 719개체, 육상곤충 총 10목 51과 100종, 어류 총 4과 5종 169개체, 양서 파충류 2종, 조류 총 20과 36종으로 과거에 비하면 생물종도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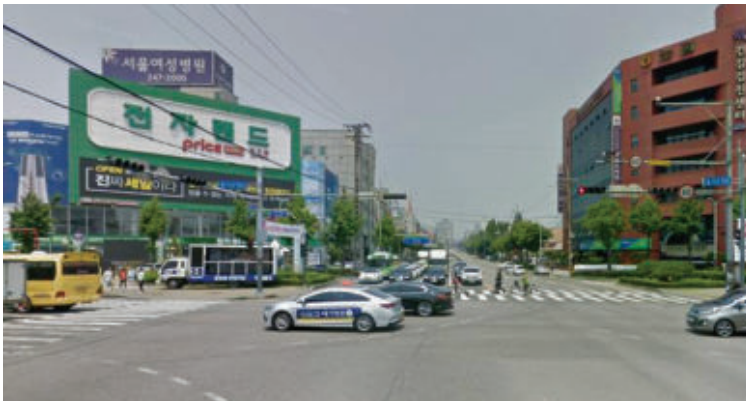
농산물 도매시장 부근 승기천의 복원 전(좌)과 복원 후 현재모습(우)(사진 최혜자)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1960년 39%에서 2013년 기준 91.6%로서 전 세계 도시화율 평균(51.0%)보다 월등히 높으며, 미국(80.8%), 영국(89.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인천도 역시 급속한 도시화과정

에서 도시용지 확보, 교통수요 충족 등의 목적으로 도시 내 하천을 복개하여 활용해왔다.

도시화로 투수 공간의 축소, 하천의 복개로 인한 하천기능 상실 등이 맞물려 홍수 등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도시구조로 변모하였다. 하천은 빗물과 그밖의 지표수가 모여 물길을 따라 흐르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산악지역에서 집수된 빗물이 흘러가는 통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최근들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복개하천에 대해 물길을 복원하자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승기천 상류에 대한 물



복개된 승기천 상류부 전경 (사진 미추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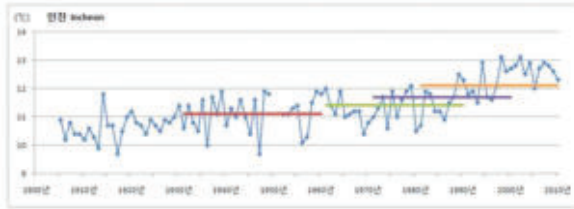
길 복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은 도시에 새로운 동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지역이 환경친화적으로 변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표면 대부분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면서 도시 온도는 1990년 24.9°C에서 2006년 27.2°C로 2.3°C 높아졌다. 인천시가 발간한 기후변화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인천·경기도 중에서 21세기 후반기 기온 상승이 가장 큰 지역은 해안에 위치한 인천광역시라고 한다. 인천시의 도시 구조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도시에서 물길은 사회 환경여건을 개선한다.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등 도시기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안전등급 D등급

승기천의 발원지는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수봉산 자락과 관교동에 위치한 승학산 자락에서 물이 흘러 승기천 본류와 합류되는 것으로 승기천 상류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복개가 시작되어 주간선 및 지선의 복개가 1993년 준공과 함께 지도상에서 사라졌다. 지난 11

월 7일 승기천 상류 2km 복개부 하수암거에 직접 들어가 관리현황을 살펴보았다. 2019년 현재 미추홀대로(8차선도로) 밑에는 합류식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다.



인천의 평균기온 변화도. (자료 기상청)

지난 2008년 10월 인천광역시 하수암거 안전진단 종합평가 결과에 의하면 승기천 물길복원사업 구간의 복개구조물은 D등급으로 판정되었다. 시설물별 안전등급은 점검진단일 기준의 등급으로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이 있으며 D(미흡) 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안전등급 A(우수)등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등급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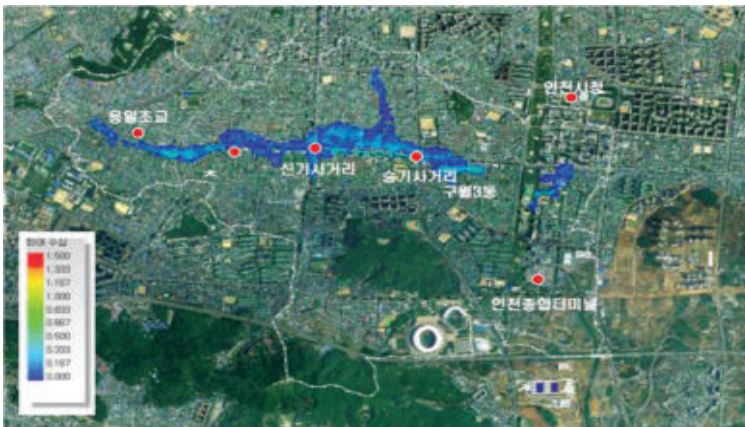


승기천 상류 복개부 (사진 인천광역시)

상습침수피해 구역인 승기천 상류부

대부분은 복개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승기천 상류부인 승기 배수구역은 저지대로 주거지 및 상가가 밀집해 있다. 호우 시 우수가 집중되는 지형으로 하수관 설계강우 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주 간선관로 배제 불량으로 인한 배수위 영향 및 하수관로의 통수능력 부족으로 침수가 발생하곤 한다.

과거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용일초등학교, 남부초등학교, 승기사거리, 동양장사거리 일원에 2010년 424세대 침수, 2011년 173세대 침수, 2017년 602세대 침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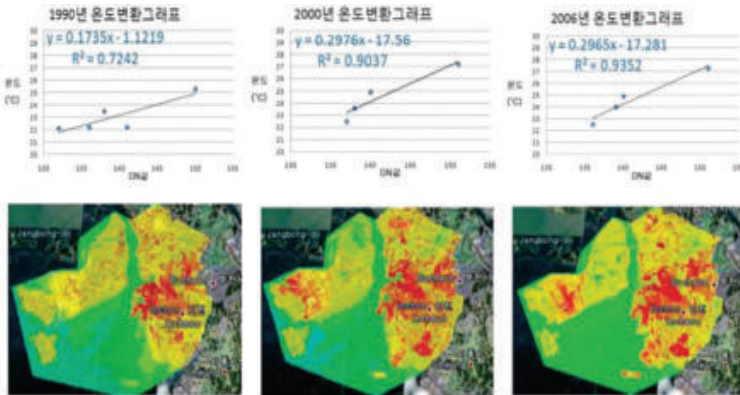
상습 침수구역인 승기천 상류 (자료 인천광역시)



(자료 인천광역시)

1. 기온상승과 불투수면 증가로 인천 도시환경의 위기

인천시는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면서 지표면 대부분이 불투수면으로 덮이고 물길은 사라져 도시가 건조해지고 여름철 열섬 현상이 매



인천광역시 지표면 온도의 변화 (자료 2011 국토지리학회지 제45권 3호)

우 심해지고 있다. 인천지역 기후는 최근 40년 동안 1970년대 11.4°C에서 2010년대 12.4°C로 연평균 기온 1.0°C 상승, 연평균 강수량은 16.5%가량 증가했으며 기온 상승으로 폭염 발생빈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2. 도시 물 환경 개선에 필요

물길은 시민에게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빗물 등 버려지는 수자원을 활용하여 동·식물 서식처 제공을 통한 물길의 자연성을 회복한다면 도시 열섬현상 및 도시경관 등 도시의 물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길 복원을 통한 기대효과

물길 복원을 통해 ▲ 인천 생태네트워크 연결 및 복원 ▲ 미추홀구의 상습침수피해지구인 승기사거리의 상습 침수피해 해소 또한 ▲ 미추홀구의 역사·문화, 환경·생태, 스마트 기술을 담은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수변공간 제공 ▲ 도심 온도조절 등 기후변화 대응 ▲ 원도심의 재생, ▲ 물문화의 복원 ▲ 지역 커뮤니티 공간이자



승기천 상류 물길복원 효과 (자료 인천광역시)

생태교육장으로 활용 ▲ 장기적으로는 생물종 다양성이 우수한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것이다.



승기천 상류복원 조감 예시도 (자료 인천광역시)

하천의 가치를 활용하여 도시를 회복하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인천에서는 이미 굴포천 상류에 복개부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고 승기천 상류와 함께 수문통에 대한 물길 복원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하천이 물길 복원 사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계획단계부터 마무리와 유지관리까지도 주민과 함께해야 한다.

물길 복원 사업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일반적인 하천 복원 사업은 규모에 비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이 가능하지만 복개된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은 시민안전과 대체부지 및 이주비 보상, 대체도로 확보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결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천 복원이 이루어진 후 비용분석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수질과 생태계 개선 등에 대한 효과를 평가한다면 복개로 인해 수질과 생태계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수질과 생태계 개선으로 인한 기대 효과와 시민들이 갖는 심리적인 안정감 등을 고려하면 매우 긍정적이고 기대효과도 좋다고 할 수 있다.

하천은 인류 문명의 발생뿐 아니라 각종생물들이 서식하는 자연



승기천에서 개최된 하천네트워크 발대식 (사진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생태계의 중심이며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전통을 창출하는 공간이다. 도시하천은 흐르는 물과 함께 도심과 외곽의 생태통로 역할을 담당한다.

도시하천은 건천화와 수질오염에 따른 하천용수 이용불가, 수질 악화에 따른 친수공간의 감소와 물순환 체계파괴,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피해의 증가와 도시개발에 따른 불투수율 및 하천변 복개 등 토지이용의 증가와 저지대지역의 도시화와 도시인구의 증가에 따른

내수범람과 지하공간 활용의 증대 등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승기천 상류 물길을 복원한다는 것은 위와 같은 도시하천의 문제와 개발논리 중심의 도시문화로 인해 사라졌던 ‘인간다움’, ‘사람 사는 맛’, ‘인천의 정체성’의 복원까지도 의미한다.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도시의 다양한 활동이나 구조를 자연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안전성, 순환성에 가깝도록 계획하고 설계해서 승기천 상류 물길을 열고, 물길은 시민의 마음을 열어 미추홀구의 미래를 만들고 인천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인천지도에 나온 승기천. (자료 1997. 최영원, 국토와 민족생활사)

미추홀, 살아지다
승기천을 기억하다

내가 기억하는 승기천

- 1) 윈도심을 흐르던 물길
- 2) 그 시절의 물길
- 3) 고향, home
- 4) 그 때의 우리

미추홀, 살아-지다-2 승기천을 기억하다

1) 원도심을 흐르던 물길

숭의동 일대 “수봉산이 물이 많았던 곳이에요” _민후남

용현동 일대 “그물 가지고 미꾸라지도 잡고” _오인영

주안동 일대 “물은 계속 흘렀고 맑았어요” _이태승

문학동 일대 “신비마을 사람들이 석바위를 가려면 장다리를 건너
야 했어” _이기영

수봉산이 물이 많았던 곳이에요

송의동 일대

구술자 : 민후남 (61세, 1970년대 송의동 거주)

- 채록일 : 2019년 10월 18일(금) 오후4시, 12월 14일(토) 오후 1시
- 채록자 : 문성예
- 채록 장소 : 송의평화시장 내 꽃차 마실

“거기가 수봉산이 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올라가보면 꼭대기에 이렇게 평평한 돌이. 거기가 물이 많아서 술 공장도 그 밑에 있었고요. 와룡소주 공장 그리고 그 밑에 미나리밭. 그 옆쪽으로 제물포 방향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물이 굉장히 많았던 산인데요. 사실 뭐 그렇게 펄펄 흐르거나 그랬던 곳은 아니고 올라가보면 늘 이렇게 골짜기에 물이 개울 흐르듯이 닿아 있었어요.”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우리 미추홀구 토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7%뿐이 안 된다고 해요. 그 7%에 속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여기 송의동에서 태어나서 송의교회 뒤에서 평생 살고, 학교도 다 여기 나오고, 대학만 서울 쪽으로 가고 다시 여기 와서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화시장에 입주²⁾한다고 할 때 송의동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제가 신청서를 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여기서 꽃차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저는 여기서 청소년 예절교육부터 시작해서 차 수업하고 여기가 이제 레지던시 작가들이 입주해 있는 공간이에요. 제가 레지던시 대표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일을 하시네요. 마을을 위해서도. 그러면은 옛날에 송기천이 어땠는지 기억하시는 바를 얘기해주세요.

2) 송의평화시장과 송의평화창작공간

1971년에 문을 연 도원동과 송의동 일대 농수산물 재래시장으로 100여 개의 점포가 성업을 이루기도 했다. 일대가 번두리로 밀리고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시장 본래의 기능을 잃고 있어 2015년 시와 미추홀구가 쇠퇴한 원도심을 예술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제가 기억하는 승기천은 어렸을 적에 수봉산을 올라가는 길이 사방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독쟁이 쪽, 주안 쪽, 도화동 쪽, 여기 제물포.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승의교회 쪽에 살았으니까 승의 초등학교 옆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는데 어렸을 적에 저는 거기 수봉산이 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올라가보면 꼭대기에 이렇게 평평한 돌이. 거기가 물이 많아 술 공장도 그 밑에 있었고요, 와룡소주 공장 그리고 그 밑에 미나리 밭. 중국 사람들 미나리 밭이 있었어요. 그 옆쪽으로 제물포 방향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물이 굉장히 많았던 산인데요.

사실 뭐 그렇게 평평 흐르거나 그랬던 곳은 아니고. 올라가보면 늘



이렇게 골짜기에 물이 개울 흐르듯이 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거나 하면 고인돌 같은 돌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누우면 습하니까, 수봉산이 좀 습해요. 그래서 돌봉숭아라고 있어요. 올라가서 조그만 돌을 집어서 물 좀 묻혀가지고 손톱에 문지르면 손톱에 봉숭아물이 들어요. 누워서 구름보고 막 그러고 잠도 들고, 그러다 껌껌해져서 막 뛰어 내려오고 그랬던 적도 있고요. 그만큼 그곳이 물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승기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승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승기천도 있고 학익천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승기천을 이야기



하라고 하면 승기천이 그 독쟁이(독정어)에서 내려와 가지고 인하대, 저쪽에 자유시장 있잖아요.

용일시장?

용일자유시장. 그쪽으로 흘러가지고 신기촌으로 가서 저 원인재 그쪽으로 가는 것이 승기천이고요. 그러면 그계 물이 그렇게 많았던 것은 아니고 동네 개울, 웅덩이가 깊었던 곳은 물이 많이 고여 있고 아닌 곳은 요만 뿐(무릎 아래)이 안 하게 흘러가면서 그렇게 이어졌어요. 그러다 나중에 그쪽(신기사거리)에서 모여졌는데 그곳에서 많이 고였던 데는 빨래들도 하고, 고기도 잡고, 그런 거였죠.

제 기억으로는 학익천이 더 많이 기억이 나죠. 저희 집 앞이 바로 지금 KT전화국 있는 그 아래쪽에다가 복개공사한 곳이거든요. 저희가 승의교회 뒤쪽에서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았는데 복개공사. 그냥 이렇게 넓은, 여기가 훨씬 넓었죠, 학익천이. 복개공사를 할 정도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여기도 복개공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승기천은 요만씩 했죠. 이렇게 가다가 넓어지고, 웅덩이가

깊은 곳에는 물이 고이고 그랬던 거고 학익천은 거기서 흘러가지고 어디로 갔었나면은 저기 토지금고 앞에 전화국 있죠. 거기는 지금도 개울이, 복개공사를 아직 안한 개울이 크게 흐르는 것이 있어요.

이제 승기천이 이렇게 미추홀구 중심을 지나가는 지역이고 거기 (학익천)는 외곽이여서, 승기천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승기천 쪽은 비 많이 올 때 고기를 잡았던 기억, 그리고 수봉공원에 올라가서 누워서 돌봉숭아 하던 기억. 물이 늘 있었어요, 물이. 물이 많이 펴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젖어있는 정도 있잖아요. 그게 여러 갈래가 있으니까 모여서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밑에는(인주대로).

수봉산이 물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 수봉산이 이렇게 있다면 일(이리)로 이렇게 승기천이 내려가고, 이리로는 학익천이 내려가면. 이쪽으로 제물포 앞 역으로는 미나리 밭이 쪽, 미나리 밭이 원래 물에서 자라잖아요. 그리고 와룡소주 공장, 술 공장. 그런 게 있어 다 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주위가.

미추홀구에 물이 진짜 많았네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것이 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올해 환갑이에요.

**그때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때는 몇 년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선
생님 몇 살 때?**

그때는 제가 산에 올라갈 때가 초등학교 올라갈 때 3~4학년? 그때
올라갔죠. 그 전에는 못 올라갔죠. 혼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었죠.

초등학교 3~4학년이 산에 올라가는 것도 좀 빠른듯하네요.

아니에요. 그때는 산이, 수봉산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
고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이 거기 하나였어요.

그리고 바로 저희 집 뒤에 조그마한 아산이 있긴 했지만 그때는 조
금 멀어도 다 걸어 다니고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지금 같으면 차 타
고 갈 거리에요, 거기가. 그런데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면 수봉산 근처에도 물이 있으면 미나리 밭도 있었고, 와룡소
주도 있었고, 또 무엇이 있었나요?**

수봉공원 쪽에 다 여기가 논이에요, 논 밭. 조금만 넘어가도 거기에

서 조금만 내려가도 다 바다였죠. 그래서 그 낙섬. 낙섬에 배가 들어 오고 낙섬이래 봤자 어디냐면요, 토지금고 들어가기 전에 소금창고, 요새 신문에 난 건 들으셨죠. 토지금고 들어가기 전에 육교 있죠. 옛날의 터미널. 바로 거기 들어가기 전 틀기 전에 그 인천문화재단 건물 같은 소금창고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가 낙섬 낚시터. 낚시 도구 팔고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아주 깊어요. 거기서부터 다 바다였고요. 저희는 아버지가 군인인 관계로 월미도를 가서 그 당시에는 월미도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군인이니까 우리 가족들은 거기 가서 수영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 용현초등학교에는 교가가 있었는데. 학교 교가, 거기에 그 ‘앞에는 낙섬로 바다 보이고 뒤에는 월미도가 우뚝 솟았네’ 그게 가사예요.

그러면은 승기천에 대해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비가 많이 오면요 물고기가 거기에 떠있거나 하지는 않았는데요. 비가 이제 많이 오면 어른들이, 동네 오빠들이 미꾸라지 잡으러 가자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논이에요 주위가 다. 집이

별로 없죠.

이쪽이 집이라고 달랑 있었던 것은 당시에 양옥집 같은 집이 있었던 것이 제가 살던 송의동. 그곳만 20채 정도 이층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었고 나머지는 다 밭이에요. 그래서 주안 쪽도 소 키우고 뭐 키우고 다 밭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다 잠기죠. 굳이 승기천이라고 밭이고가 구분이 없는 거예요. 다 잠겨요.

그리고 특히 이 쪽 미추홀구가 잠기는 것으로 유명하죠. 염전도 있긴 하지만 그때는 비 온다 그러면은 엄마들이 집에 가서 집에 들어오는 하수도 구멍을 막는 것이 있어요. 갈레 뭉치로 해놨다가 확 막아요. 그걸 막지 않았다가는 마당으로 물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기 미추홀구가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굳이 승기천 물하고 논 물하고 밭물하고 합쳐진 데에서 미꾸라지 잡는 거죠. 그랬었어요.

그때는 승기천이라고 안 불렀죠?

그때는 천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이거(인터뷰) 하면서 ‘아, 여기가 승기천이고 이게 학익천이었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 집 바로 앞에 북개공사를 엄청나게끔, 자전거를 타고 연습하다가

거기 안 빠지고 자전거 배운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엄청 넓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메꿨어요.

그러니까 승기천을 복개한 이유는 처음에는 맑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만 내려왔어요. 그런데 집들이 점점 생기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하수가 같이 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수가. 그러니까 여기가 오염이 돼서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개를 시작한 거예요. 그 하수를 따로 해야 되는데. 요새는 상하수도가 따로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 무슨, 그쪽에는 콩나물 공장이 있었어요. 승기천 내려가는 용일자유시장 중간에 콩나물 시장이 있었고 크지도 않았어요. 누가 공장이라고 말을 했대도 그 당시에는 공장이란 게 있지를 않아요. 왜냐면 움막 같은, 옛날에 김치를 담궈서 이렇게 지푸라기로 지붕 씌워놨던, 잘 모르시죠?

저희는 잘 모르죠.

김장하면 마당에, 저런 길(지푸라기)로 이렇게 씌워놨던 그 정도의 콩나물을 그렇게 키우던 거예요. 공장이 아니라. 콩나물 집이었어요.

우리들 말로 말하면 옛날에는 두부 만들면 두부 집, 콩나물 팔면 콩나물 집 그랬잖아요. 그런 집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하나하나 생기고 점점 동네가 형성되면서 무슨 공장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모든 폐기물도 다 거기다 버리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 냄새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복개공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하수물이 내려가고 그래도 깨끗했었죠. 그 물에서 빨래들을, 뭐 저희야 수도가 됐고 했었는데 이쪽은 다 없었어요, 주안 쪽은.

그리고 독쟁이(독정이) 쪽으로 가도 다 지게, 이렇게 양쪽으로 물 받아서 차가 급수차 밑에 내려오는 수도 하나에 받아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힘든 빨래를 그 물(급수받은 물)로 하질 못하잖아요. 먹는 물로 해야지. 그래서 빨래들을 그리로 갖고 내려와서 비벼가지고 가고 그런 것들을 보고 그랬어요.

저는 용현초등학교 거기서 이렇게 걸어서 어디로 오냐면요. 지금 그 용현2동 동사무소, 그쪽으로 나와요. 그러면 거기가 다 논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파 가지고 똥통도 만들어놓고 막 그래요. 똥장군이라고 있어요. 똥통도 있고 똥을 모아놓잖아요, 또.

제물포에서 우리가 제물포역에서 내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수봉 산이잖아요, 여기가. 내가 아까 말한 게 여기예요. 독쟁이(독정이)에서 수협 지나서 우물이 많았던 길, 도화동(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올라가는 길, 주안(제일시장, 경인의원 옆길)에서 올라가면 제물포역에서 들어가는 길이 여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제물포역 앞에 푸레주르 빵집 있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은 도로여서 그렇지, 원래는 산이에요 산. 다. 여기가.

그러면 아주 산꼭대기예요 옛날에는 여기 사는 사람들 집들이 어떤 집이나면은 피난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루핑이라고 있어요. 루핑집. 루핑이 뭐냐면 비닐도 아니고 함석도 아니고, 번쩍번쩍한 옛날 우리 왜 길 할 때 타마구³라고 했던 것 있죠.

네네, 아스팔트 깔 때 사용하는?

네, 아스팔트 깔 때. 그게 그런 비닐에 그런 것들을 덮어가지고 말려서 지붕으로 그런 걸로 했던, 그러니까 다 물을 길어 올라가. 용정

3)석탄을 건류(乾溜)할 때 생기는, 기름 상태의 끈끈한 검은 액체

초등학교가 배밭이 있고, 똥통이 엄청 큰 것이 있었고, 여기(용정) 학교가 나중에 지었어요. 송의초도 나중에 생긴 거고, 용현초등학교가 있다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용일초등학교로 분가했어요. 분가해가지고 또 분가한 게 용정초등학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긴 학교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왜 이렇게 빨빨대면서 다녔는지 너무 구석구석을 잘 알아.

대단하세요. 선생님이 59년생이세요? 그러면은 한 3~4학년 때 정도면 한 70년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저희가 80년대 말 정도에 복개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예요. 복개는 그 전에 됐어요.

그래요? 80년대 말이 아니라요?

아, 맞아요. 내가 한 중학교 그때쯤에 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배우다가 빠지고 그랬죠. 어렸을 적엔 자전거를 안 배우고 그랬으니까. 그때 쯤에 복개가 됐어요.

만약에 승기천이 복개사업이 안됐고, 계속 남아 있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으세요?

아, 그게 그냥 남아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만수동에 가면 그 밑에 왜 흐르는 거 보셨죠. 걸어가는 길. 대공원 아래쪽으로 운현동 지나가면서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길이 길게 있잖아요. 저는 엄청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요. 거기를 걸어 다니면 너무 좋은데 거기는 너무 인위적이잖아요. 그리고 좀 외곽으로 빠졌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 우리 길, 베네치아 같은 동네가 우리 미추홀구가 관광지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 사시던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승의동 302번지 3통 1반. 여기 현대유비스 옆에 승의교회 바로 뒤에요. 여기가 승의동 302번지예요. 나란히 2층집들이 주르륵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잘 사는 건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여기를 사서, 그렇지 적십자 병원이 옛날에 여기 있었어요. 유비스가 적십자 병원이었어요. 적십자 병원 원장님 뭐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만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 독쟁이(독정이), 독정도서관 용일시장 바로 주민센터 바로 길 건너 여기, 여기 군 부대가 지금은 보훈회관이 있죠. 처음에 가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장군이셨는데 이 부대를 창립하셔 가지고 여기 계셨었어요. 그래서 여기 독쟁이(독정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도움을 안 준 분이 없다고들 얘기 했어요. 집도 날라가고 그러면 나무 실어다가 주고 그랬다고 했어요.

저는 그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감성적이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짜 감성적으로 보이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꽃차를 하시지는는 몰랐어요. 그냥 학산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강사님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자연이나 이 고장의 영향을 받으신 분 같아요. 워낙 여기서 토박이로 사셨던 것도 그렇고.

저는 여기는 제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여기를 벗어나 봐야겠다고 생각해보질 않아서 내가 갈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그리고 저는 그냥 이렇게 여기서 산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어디가 어디고. 저는 이 골목골목. 저는 약간 또 이런 게 있

어요. 다니는 것도 좋아하지만. 목표의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를 간다, 여기를 돈다, 그러면 그냥 어디 중요한 것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골목골목을 목적을 두고 도장 찍는 것처럼 다녀요. 그래서 구석구석 다 알죠.

다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성향인 거예요. 우리 엄마도 어렸을 적에 제가 골목을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럼 남의 대문은 되게 잘 넘어보는 거예요. 대문을 옛날엔 담들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갔는데 미처 못보고 가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보고 간대요, 내가. 궁금한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누가 이제 내가 걸어갈 때 보면은 뭐 저렇게 옆에를 쳐다보고 들여다보고 걸어 다니나 그런대요. 나는 그냥 궁금하니까 저기 예쁜 꽃이 있네, 저건 뭘까 그러고 가서 만져도 보고 그러고 지나다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은 원도심이라고도 표현하고 되게 낙후된 곳이라고도 얘기하고, 잠깐 있다가 떠날 곳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선생

남한테는 그런 공간이 아니네요. 낡은 집이 있고 그럴지언정 그런 골목이 궁금하신 거고.

애착이 있죠. 그래서 여기 용현2동이 지금 재개발되었잖아요. 여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여기 개발되기 전에 개발한다고 다 묶어놓고 집들 다 허물기 전에 저 여기 들어가서 영화 찍었어요.

아까 그 하품학교 말씀하시는 거세요? 무슨 영화 찍으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마을 사람들과 다 같이 찍었어요. 여기에서 다 찍었어요. 이 마을 주민들과 한 50명 정도 같이 찍고.

동네 이야기였던 거예요?

네. 이 동네 이야기. 이 동네가 이제 개발돼서 없어졌잖아요. 아 여기 공원 이름인데 생각이 안나. 그래서 여기서 찍고 이제 마지막 날 밴딩이를 두 박스를 사가지고 구워 먹었어요. 가을이었나? 가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길에서 철길에서 구워 먹었어요.

현재에서는 지금 없는 것들을 부시고, 새로 짓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우리 이제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그때는 새로 짓는 것을 좋아했잖아요? 새 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도시고 저 도시고 가보면 부수지 않고 보존했던 데는 다 관광단지잖아요.

여기 평화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허름하게 있지만 여기가 엄청나게 날리던 곳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네 개가 있었어요. 큰 길을 중심으로, 저쪽에 (승의) 깡시장이 하나, 사거리를 중심으로 하나, 홈플러스 자리 거기 하나, 이렇게 네 개가 있었어요. 전철이 생기면서 두 개가 개발이 됐고요. 여기는 그냥 있고, 온 인천시가 여기서 옛날에 체육대회를 했죠. 그래서 여기 평화시장 하나가 남았는데 여기가 신포동처럼 옛날에 배 들어오는 곳이라 유통을 여기서 다 한 거예요. 수출하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들도 되게 부자들이예요. 부모들이 돈 엄청 벌어서 날리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현대적인 건물을, 이 평화시장 건물이 사십 년이 넘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오피스텔같이 지었잖아요. 1층은 상가, 2~3층은 살림집이에요. 그리고 옥상은 통으로 연결 시켜놓고, 그렇게 건물을 지은 게

최초에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획기적인 마을이에요.

물이 얼마나 많았냐면. 독쟁이(독정) 길에 수봉공원 자락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올라가는 여기에 우물이, 쌍 우물 하나 있는 우물. 지금도 우물이 하나 있을 걸요? 독쟁이(독정) 뒷역에 우물이 있어요. 은행 농협인가, 그 사이에 우물인가 덮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몇 년 전에도 있는 걸 봤어요. 바로 독쟁이(독정) 용일시장 안쪽으로 가서 뒤쪽으로 나가면 바로 그런 형태가 있어요. 여기가 물이 얼마나 많은 곳이나면 우물이 쪽 쌍둥이 우물, 무슨 우물이 있었고 우리가 살던 여기 송의동, 송의 교회 쪽도 여기는 학익천 나가는 길이잖아요. 지금도 거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길에,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많아서 우물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굳이 물을 그렇게 누가 좀 턴어갔고 그렇게 만들려고 했으면 물은 엄청 많았던 곳이죠. 그리고 여기가 바다가 근접한 곳이고, 그리고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여기 토지값고 쪽은 비가 오면 지금도 아파트 1층까지 물이 찬다고 해요. 물이 되게 많은 도시예요. 여기 미추홀구가.

미추홀구에 물길이 다시 생긴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쪽으로 물길은 너무 도회지 쪽이잖아요, 송기천 쪽은. 아무래도 저는 토지금고 쪽에 학익천 그쪽은 약간 외각이잖아요. 외각이고 갖춰져 있잖아요. 거기서 그 송도 돌산 있는 거기까지 물이 연결이 되게 되어있고, 송도 바다 매립한 곳하고도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공사를 그렇게 크게 많이 하지 않아도, 혼자 개인적으로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가면 참 좋겠다. 왜 송도 연수동 그쪽으로 가면 바다 막아놓은 데 있죠. 거기가 가는 길이 거기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에게 미추홀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추홀구는 제 몸이죠.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벗어나는 것을 상상을 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추홀구는 뭐 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살고 있죠.

요즘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죠. 일자리 때문에 떠나 살기 마련인데 미추홀구를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을 잘 운영하시는 걸 보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해주시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승기천을 우리의 승기천인데 연수구가 사실 우리보다, 우리 (남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 곳이잖아요. 거기서는 승기천 자락을 붙들고 잘 해 놨잖아요. 우리는 뒤늦게라도 시작하니까 다행이긴 한 데 개발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추홀구는 개발 안하고 보존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새로 조성하는 신도시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역사가 있는 것을 보존하는 게 그 사람들하고 대결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말로 마무리 해주셨어요.

그물 가지고 미꾸라지도 잡고

용현동 일대

구술자 : 오인영 (75세, 1960년대부터 용현동 거주)

- 채록일 : 2019년 10월 16일(수) 오후6시
- 채록자 : 문성예
- 채록 장소 :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

“그게 어디냐면 지금 용일초등학교 뒤에 보면 새한아파트 있죠? 새한아파트 그쪽애가 조금 컸어요. 독쟁이(독정이) 고개부터 흘러내려 왔던 거고. 독쟁이(독정이) 고개에서 시장 있는 대로 해서 굴다리 있죠? 인하대학교 가는데 굴다리로 해서 조금 지나가면은 이렇게 빠져 나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물줄기는 어디냐면 인천기계공고, 뒤쪽 수봉산에서 내려와서 물길이 같이 만나는 거야.”

자기소개좀 부탁드립니다.

미추홀구 사진인연합회장. 그리고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위원장.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일흔다섯

미추홀구에서 거주한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964년도에 인천에 왔어요. 미추홀구에.



그 당시에 인천에는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그때? 학교 들어오려고 왔죠.

그럼 그때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4년이면..

20대, 64학번이니까.

그때는 어디 사셨었어요?

독쟁이(독정이) 고개. 독쟁이(독정이)가 고개가 막혔어요. 도로가 끊어졌어.

제가 지금 용일자유시장에 있거든요. 거기가 원래 그 마을버스로
인하대까지 갔었다고.

안 갔어. 그거 잘못 안 것이야. 마을버스는 주안역에서 제물포로
온 거밖에 없어, 마을버스는. 이 인하대학교를 가려면 제물포에서
내려서 송의초등학교 철로길 옆으로 해가지고 용일시장 있는 데로
해서 거기 돌아가는 데 있어요. 올라가는 데. 그 농협 앞에서 올라가
는 조그마한 길이 있어. 거기서 넘어갔단 말이야. 거기 산이 푹

리질 않았어.

**그때는 풀리지 않았었구나. 그럼 혹시 승기천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이 있으세요?**

승기천? 승기천을 기억나는 게 뭐 별로 없긴 한데 조그마한 개천
이었지. 조그마한.

개천이요? 어디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 용일초등학교 뒤에 보면 새한아파트 있죠? 새
한아파트 그쪽에가 조금 컸어요. 독쟁이(독정이)고개부터 흘러내려
왔던 거고, 독쟁이(독정이) 고개에서 시장 있는 대로 해서 굴다리 있
죠? 인하대학교 가는데 굴다리로 해서 조금 지나가면은 이렇게 빠
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물줄기는 어디냐면 인천기계공고
뒤쪽 수봉산에서 내려와서 물길이 같이 만나는 거야, 용일사거리 밑
에서. 그러니까 용일사거리 쪽에도 흘렀고, 용일사거리, 용일초등학
교 앞으로도 흘러들어갔고. 다른 또 하나는 승학산에서 신기사거리
있죠. 그리로 흘렀던 거야. 진흥아파트가 원래는 화장터 자리예요.

그래서 현재 정수장 있는 곳, 그 위에 문학동 넘어가는 데 바로 거기에 흘러서 내려오고 그렇게 합쳐지는 게 동양장사거리까지 가서 이제 커지는 거지.

그래서 거기가 제일 컸던 거네요? 다 사방에서 모여가지고?

그렇지. 컸지. 보건소 자리가 주안 쪽으로 가고, 주안4동과 2동 사이 그쪽에도 흘렀고. 그래서 거기가 좀 컸어요. 동양장사거리 있는데 그게 좀 큰 개울이었지.

제가 한 번도 여기에 물길을 상상해본 적이 없어서. 그 개울, 계곡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폭이 좁은 이렇게 물이 졸졸졸 흐르는 건가요?

그렇죠. 졸졸졸 흘러서 내려간 게 지금 저쪽에 보면 터미널 지나서 보면 넓잖아요. 그게 천이라고 하잖아? 천이라고. 원체가 개울이지, 이쪽에 내려가는 거는 개울이지.

그러면은 물웅덩이처럼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냥 흘렸지. 조금씩 흘러가지고 빗물이 많이 올 때는 미꾸라지도 잡고 그랬어. 여기 용일초등학교 있는 데도.

미꾸라지가 잡혔어요?

그럼. 용일초등학교 뒤에 새한아파트 있는데 거기가 당면공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 미꾸라지들 잡고 그랬더니까. 그 때 당시에는. 물이 깨끗했을 수밖에 없지.

물이 계속 흐르고 고여 있지 않으니까 가능했겠네요?

그렇게 많이 흐르지도 않았어. 지금같이 생활하수가 정화돼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때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좀 많이들 흘러갔고 평소에는 조금씩 내려갔지. 많진 않았지.

흙도 되게 좋았다고 그러던데요?

땅이 좋았다는 거보다도 그때 당시에는 깨끗했을 적엔 옛날엔 우리가 논물도 그냥 받아서 먹었잖아요. 지금은 못 먹지만. 그런 시절이야 그 때 당시에는. 60년대에는 그러니까 독쟁이(독정어)가 이게

여기서 남구청(미추홀구청)에서 가서 이쪽으로 용현3동 가는 데는 배 밭이었어. 그러니까 거기로 가지도 못해. 막혀서 돌아왔어. 여기가 그 조그만한 미니버스가 다닌 거야, 동인천까지. 그런 시절이야. 봉고차 큰 게 그런 게 왔었지. 그리고 넘어가지를 못해. 그러다 뚫린 게 70년대. 70년대 말 정도, 도로가. 그러니까 용일초등학교가 생기고 용정초등학교가 생겼지. 그러니까 수봉산 물이 독쟁이(독정이) 쪽으로 많이 빠져갔지.

그럼 수봉산 물이라고도 불렀겠어요?

수봉산 물이라고 부르진 않았어. 그냥 개울이라고 했지, 개울이니까. 지금 우리가 천이라고 그러지, 도로를 확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용현천이라든가 그렇게 커진 거지. 크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때는 그냥 이렇게 흙 같은 것 있고 수풀 있고.

그냥 흙 하고 수풀하고 그렇게 흘러갔던 거지. 그러니까 도시 개발을 하면서 자꾸 둑을 쌓고 그러다보니까 용현천도 여기서 깊어진 거 아니에요. 학익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학익천이란 게 천이 아니야, 개울이야. 천이란 건 큰 거를

얘기해요. 그 다음엔 강 아냐. 천 다음엔 강인데 우리가 개념이 무조건 천이라고 부르니까 그렇지. 공천천, 굴포천. 이 정도는 되야 천이지 승기천이나 학익천, 용현천은 천이 아니지. 도랑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남구청(미추홀구청)에서 가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가 집이었어요. 여기 주택이 일곱 채가 있었어요. 농협 있고 여기가 국민주택이었어요, 그 때 당시에. 60년대에는.

60년대에 국민주택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조그만 집, 똑같이 지은 거지. 주택으로 똑같이 단층으로 일곱 채가 있었어요. (용현)시장 들어가는 데야 농협, 주차장 들어가잖아요? 거기 블록이 바로 일곱 채가 있었던 곳이야. 집이. 그래서 한쪽에는 배 밭이었고 그랬던 것이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된거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집이 한 채씩 생기고 이런 거를 다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독쟁이(독정이)라는 데가 이 판잣집들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사는 거야. 밀려가지고. 지금 용현1.4동 주민센터가 언덕 위에 있다가 지금은 도로 쪽으로 내려왔잖아요? 저 위에 있는 데가 70년대 말에 거기 집들을 다시 지었어. 국민들끼리 거기에.

몇 평씩 이렇게 받아서 했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안테나가 많았지. 그때는 안테나가 이제 대나무로다가 대나무로 하다 보니 잘 안들려. 그러면 올라가서 조이고, 바람 불면 붙잡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때 당시가 20대잖아요, 20대 때 송기천에서 에피소드 같은 것 있으세요?

미꾸라지 잡고 그런 것 밖에 없었지. 그물 가지고 어렸을 적에 애들 데리고 가서.

집에 가지고 가서 해 드신 거예요?

아니 해먹고 그러진 않고 그냥 장난삼아서.

학교도 여기 용일초등학교 주안초등학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걸어 다닐 데도 없는 거야, 별로. 도랑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뭐 사람들이 느끼고 자시고를 못했지. 비가 나서 물이 가득 차고 지금이야 비가 오면 지금 막아놨으니까 이제 뭐 역류를 해서 물난리가 나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물난리가 뭐가 있어.

그때 당시에는 그냥 범람하면 물이 불었다가 쪽 빠져버리고.

왜 그 저기 동양장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물에 많이 잠겼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거는 복개하고 나서 그런 거지.

오히려 복개해서 그런 거네요. 그러면 예전에는 논밭으로 땅에서 스며들었던 것이 더 이상 스며들 공간이 없어지고 모두들 하수도에 집중해서 돌아가니까 그래서 범람한 건가 보네요?

그때는 개울이 좁았지만은 넓기도 했지요. 물이 흘러가는 거는 좁았지만 넓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쪽 쓸어 내려갔을 수밖에 없었지, 그런 개념이지.

그래서 비가 오면 허리띠까지 찻다는 소리를 하는 거고. 그 때 당시에 비가 많이 오면은 찰 데가 있겠지. 그때 당시에는. 내가 60년대에 와서 72년도에 결혼해가지고 내가 아까 그 새한아파트 거기가국민주택이야. 그 도로 옆이. 그러니까 개천을 쌓았다가 파다보니까 그러니까 깊었던 거지. 원체가 도랑이라니까.

그러면 그 때 당시에 복개사업 했던 것도 어떻게 공사하는지 보셨겠어요?

복개하는 건 뻔하지 뭐. 그냥 녹관 갔다가 묻은 거지.

사람들은, 주변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주변 분위기야.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사진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가 남겨지거나 그랬으면 어떻게 했다, 그런 생각 드시거나 그런 거는 없으세요?

사진하는 사람들이요 7~80년대, 80년대 까지만 해도 사진을 찍으

면 가서 사진하는 사람들이 찍어주잖아요? 이렇게 가족을 데려와서 얼굴만 찍었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고, 이런 환경을 안 찍었지 그때는. 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말부터는 조금씩 변해가지고 거리의 풍경을 찍고 그랬지. 그 전에는 안 찍었어요. 거리 사진 같은 거는. 그래서 그 참 승기천 가지고 그러면 답답한 거야. 개울을 갖다가 자꾸 얘기하니.

여기서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자식들에게 계속 물려줘야 될 공간에 물길을 상상한다면 어떤 물길이 어울릴까요?

승기천을 개방을 한다고 오픈을 한다고 해놓으려는 거 아냐, 사람들이. 사람들이 지금 승기천을 청계천마냥 개방을 한다. 그러면 물을 끌고 와야 돼, 또 그렇잖아. 물을 끌고 와서 여기 와서 수봉공원에서 내려 보내야지. 그렇게 되는 과정인데 그게 쉽냐고.

조금씩 흐른 거야. 그것밖에 없었지. 비가 오고, 그걸 갖다가 자꾸 지금 범람한다는 것은 옛날같이 팍 터놓았으면 그냥 쪽 빠져 내려갈 텐데 지금은 메워가지고 맨홀로 해서 이렇게 뚫어서 했으니까 역순환이 된 거고, 넘치고 그러는 거지.

진짜 그 정도의 개천이었으면 그냥 큰 강이 흘렀으면 그것을 피해서 집을 이렇게 짓거나 그랬을 텐데 그런 개념도 아니었으니까. 진짜 당연히 이렇게 묻고 길을 만들거나 집을 지을 생각을 나라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수봉산도 그냥 거기도 묘지 있고, 판자촌 있고.

판자촌이 저 끝에 있는 거야. 저 끝까지 있었어. 그러니까 별로 나무가 없어요. 문학산 같이 좀 나무가 있으면 되는데 그 문학산은 그래도 문학동으로 해서 터미널 앞으로 빠져나가니깐 그쪽에는 나무가 좀 있고 하니까 거기가 물이 좀 많지. 이쪽에는 없잖아. 벌거숭이산에서 뭐가 있어.

수봉산도 산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야 싶은 그냥 허허벌판이야. 허허벌판 같은데서 그냥 뛰어 놀거나 했지.

인하대학교를 가려면 장화신고 저기 아니면 못 다녔어요. 장화 아니면 못 다녔다니깐. 용현시장 앞으로 해서 그 사잇길로 올라가서 운석교회 거기로 넘어간 거예요. 거기 아니면 길이 없었어. 많이 흙탕물에 빠지고 다녔지. 그러니까 용현성당 있는 데가 묘자리였어.

그쪽 아파트 자리가 공동묘지였어.

진짜요? 그럼 공동묘지 위에 아파트가 올라간 거네요?

요즘 같았으면 난리가 났겠지.

그때는, 거기 지금 산다는데 거기 시장(용일시장)은 옛날엔 용현
시장보다 나았었어.

예, 알고 있어요. 용일자유시장이 제일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일시장에 한일극장도 있었고 그런 바람에.

미추홀구는 밀려난 사람들이 온 거네요?

아니요. 밀려난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터를 잡은 거지.
왜 그러냐면 제물포역 때문에. 제물포역, 남부역 있었어요. 여기 남
부역이 요 앞으로. 남부역이 뭐냐면 거기가 여주 이천에서 모래를
파 가지고 여기다 여주 이천에서 거기로 온 거야. 그런데 뭘 좀 하나
찾아서 보여주려고 해도 없네. 사진을 보여주려니까.

옛날에 승기천 찍힌 사진 같은 것은 없으시겠지요?

그건 안 찍었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가족사진 찍으려면 나무 위에 올라가고, 얼굴만 찍고 그랬지. 전신을 안 찍었다니까. 그랬던 것 같아 나도 사진은 배경이 좋아가지고 배경을 두고 이렇게 찍은 게 아니니까 더 그런 것 같아.

그 미꾸라지 잡았다 그러면 내가 얘기한 거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슨 미꾸라지가 거기 있었냐고 그래 사람들은. 그게 몇 사람이 안 될 거야. 비가 왔을 적에 미꾸라지가 올라왔지, 비가 안 왔을 적엔 미꾸라지가 없지. 비 그치면은 물이 흐르잖아. 항상 고기는 물을 타고 올라오잖아. 항상 미꾸라지고 뭐고 다 올라온다니까.

그러면 혼자 간 게 아니라 아이들이랑 같이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아이들. 우리 아들들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한 번 잡아봐 그러고 그랬지. 내가 64년도에 인천에 왔지만 72년도에는 이제 거기 살았으니까. 나는 용현동 여기 토박이예요.

그럼 맨손으로 막 잡았던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죠. 가서 잡고 뭐 놓치고 뭐 그런 재미야. 그때는 놀 것도 없었
잖아.

그때는 놀 것도 없었으니까 확실히 그런 주변의 것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 흙 파고 놀고.

그니까. 땅 따먹기 하고 사방치기 하고 그런 거여, 그때는.
그런 시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동 떨어
져요 지금은.

지금은 많이 바뀐 거겠죠?



바뀐 거지. 천지개벽을 한 거지. 이렇게 바뀐 거는. 지금 봐요 지금 주안2동에 지금 옛날 모습 봐. 나는 지금 후회 해. 얼마 전에 힐끗잖아, 이렇게 다. 지금 힐끗아. 힐어버린단 말이야, 지금. 개발하느라고. 그사진 못 찍은 게 나도 후회 돼. 왜냐면 옛날에 한번 찍었어요. 올라가서 저기 올라가서 다 찍어버렸어. 그런데 이쪽 편에서 다시 한번 찍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안 찍었을까 후회가 돼. 사진이라는 게 한 다한다 하면서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사진이에요. 기록이라는 게.

그렇구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추홀구에서 토박이로 사신 거잖아요?

그렇지. 토박이라고 봐야겠지. 한 55년을 살았다고 봐야겠지. 내가 20대에 올라왔으니까, 지금 70이 넘었고.

선생님께 미추홀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집?

의미 별로 없어요. 미추홀구로 바뀌 놔가지고. 주민등록이 다 되어 있고 사업자가 다 되어있어서 그렇지. 여기 새한아파트 팔면 떠난다고 봐야지.

그러면 만약에 미추홀구가 굉장히 개벽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잖
아요. 어찌됐던 자손들한테 다 물려줘야 될 공간이잖아요. 만약에
또 바뀐다면 미추홀구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안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그냥 집 있는 거 수선해서 살고 썼으면 좋겠어. 개발
하지 않고 있는 집을 다시 보완해서 썼으면 좋겠다니깐. 지금 이쪽
에 송의1, 3동 전도관 밑에 거기도 그걸 가져다가 보수를 해가지고
하면. 일반인이 못 하면은 구에서 해가지고 다시 살면 좋겠는데 구
가 돈이 있나?

그렇게 해놓는 게 좋다, 이거지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부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집을 보수하고 잘 채워졌
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게 난 바람인거지 뭐 다른 건 없잖아. 그런 얘기가. 때려
부숴야 아파트 짓는 것 밖에 더 있어요, 아파트. 그렇다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래서 거기에 주민이 돈 받아가지고 거기를 못 들어가요. 다 떠나는 거야. 하나의 추억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야. 사람들은 다 떠나버려. 여기 못 살아.

내가 71년 전에 평양에 갔다 왔지만 평양도 별거숭이 나무야, 산이 나무가 없어. 그런데 물이 흐를 리가 없어. 산사태만 나지. 그래서 나는 여기 미추홀구가 옛날 거를 그대로 보관하고 다시 지속하는 게 좋은데 그런 게 없이 부숩버리는 것 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 항상. 그래서 애처로워서 항상. 다른데, 다른 도시에 가보면 옛날 집 보수하고 그렇게. 중국 같은데 보면 1300년 전 역사의 그런 게 흘러 내려오잖아. 그런 게 없어. 우리는 무조건 때려 부수고, 아파트 문화가 되어버려서. 참 그것도 극복하기가 힘들어.

아무래도 불편하고 그렇죠.

민간주택에서 사는 게 참 힘들어. 아파트보다는. 아파트가 편하고 그러니까 다 들어가면 뭐 자기의 공간만 딱 있으니까.

60년대로 돌아가 보자고. 60년대로 돌아가봐. 지금이랑 똑같은 이야기야. 그 때 당시에는 먹고 살기 바빠. 아이들 공부하기에도 바빠.

그 때 당시에 3천 원이면 엄청 큰 돈이야. 물가도 싸지만은 그거 가지고 살았다니깐. 그거 가지고 아이들 공부 가리키고 해봐 얼마나 힘든가?

힘들을 사실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때 힘든 것도 진짜 힘든 거고, 지금 청년들이 힘든 것도 진짜 힘든 거고. 가짜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80년대 말 지나 이제 조금씩 그 골목을 배경을 놓고 찍고 그랬지. 그 전에는 없더니까.

찍어봤자 옛날에는 대문 앞에서 가족사진 찍는 거? 내가 70년도 초에 인하대학교 후문 있잖아요, 거기가 비포장이었어요. 그 때 당시에 우리 아들 손잡고 가는 걸 내가 이렇게 찍어놓은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물은 계속 흘렀고 맑았어요

주안동 일대

구술자 : 이태승 (58세, 1960년대부터 주안동 거주)

- 채록일 : 2019년 11월 17일(일) 오후6시, 12월 13일(금) 오후 6시30분
- 채록자 : 남희현
- 채록 장소 : 주안역 인근 카페

“시민회관에서 신기사거리까지 길이 났었는데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논 한가운데를 더 연장해서 지금의 신기사거리까지 길을 냈지요. 이쪽이 메인 도로가 된 거지요. 옛날에는 아스팔트 포장도 아니고 길 이 쭉욱. 승기촌 좌우로가 논. 어린 나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넓은, 끝 이 안 보이는 느낌이었지요.”

선생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태승이고요. 그냥 나이로는 58세, 올 해 넘어가면 59세 되는 거구.

뭐 일단은 주안3동이 사미골, 옛날 저희 고향이죠. 저희 조상대로 살던. 저희가 10대 살았으니까 한 400년. 원래 우리 부평 이씨(富平李氏)가 계양산 밑에가 저희 고려 초기 호적세력이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저희 조상분이 고향으로 낙향을 안 하고 선학동 쪽으로 내려오셔 가지고 문학동, 관교동, 학익동, 주안동, 용현동 쪽쪽 말하자면 형제들, 사촌들이 남구에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겠지만 임진왜란 이후로 사회가 크게 변하면서 부평 이씨가 지금 미추



홀구, 옛날 남구지역에 집거를 하게 되지요. 지금 동네 이름 자체가 집성촌을 형성해서 1980년대까지 이어지게 되지요.

16,17세기 성리학이 자리를 잡으면서 향토세력들이 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각 가문들이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저희 중시 조들이 각 동네마다 시조가 되는 거지요. 용현동 쪽에 이윤생 강씨 정려(열녀문), 학익동은 제운사거리의 이세주 제운선생이 있는 거고, 학산서원은 이정빈 문학동 저기고, 주안 이쪽은 사미라는 것이 지명이 넘어가는 거구요. 사미는 선비 사(士), 아름다울 미(美)자인데 원래는 미자가 다른 글자인데 구한말에 이현경이라고. 이조판서도 하고 관직도 하던 분이신데 청백리가 있어서, 깨끗한 선비가 나온 동네라고 문자화 되었죠. 사미골로 갔다가 일제시대 넘어오면서 이쪽이 충훈리거든요. 저쪽이 사미고 그게 합쳐져서 사충리가 됐다가 다시 주안정으로 됐다가 주안동으로 됐다가 다 분동이 돼서 주안이 8동까지 나뉘진 거고, 주안이 제일 넓지요.

선생님께서 기억하는 승기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승기천이 수봉산에서 발원했잖아요. 현충탑 오른쪽에 발원지가

있어가지고 주욱 타고 내려와서 독정이 고개(용일시장)로 해서 용현사거리, 용남시장 뒤쪽으로 나가서 다시 석락아파트 쪽으로 나가서 인고 쪽으로 나가는 방향이에요.

계속 이곳에서 사신 거예요?

저도 어릴 적 기억이고. 출생은 서울에서 했고, 여동생이 생기면서 본가(사미골)에서 5살까지 살다가 주안사거리 쪽으로 가서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다시 문머리(주안국민학교 있는 주안2동) 쪽으로 이사 왔다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본가(사미골) 쪽 옆으로 와서 이쪽에서 몇 번 이사하면서 지금 현재 빌라를 짓고 88년부터 계속 살고 있어요.

선생님이 승기천을 많이 기억하실 수밖에 없겠어요.

계속 주안에서 놀았으니까. 기억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왔다갔다 했고. 말하자면 본가는 저희 큰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면 심부름이던 놀 거리 없으면 그때 걸음으로 15~20분 걷는 거리였었고. 주안사거리 쪽에 있을 때는 어려서 부모님과 함께 왔던지 문머

리에 있으면서는 시각이 트이니까 학교 끝나면 점심 먹고서 밭에서 시금치 나서 싸주면 챙겨가고, 논만 건너면 되니까. 그런데 몬머리에서 사미굴까지는 길이 없었어요. 다 논길이에요. 그 중간에 승기천이 지나가는데 그나마 다져진 거구. 푹방처럼 다져져 있지요. 논길 쪽쪽 따라왔다가 여기까지는 다리가 없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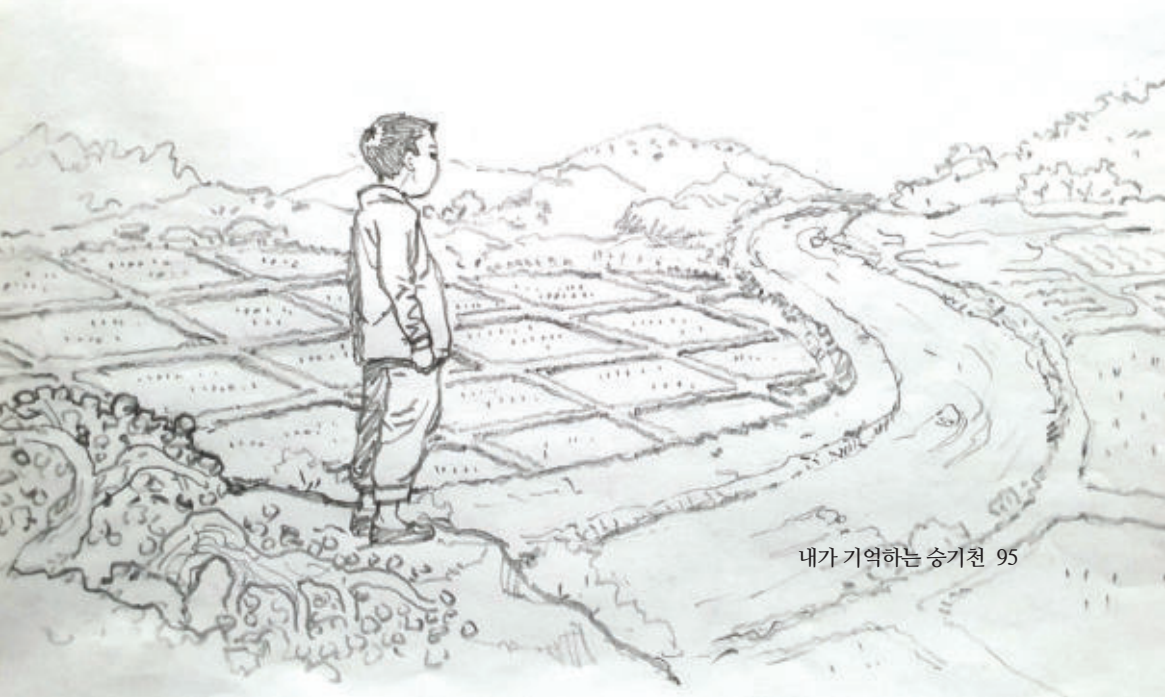
여기까지라는 거는?

승기천이 말하자면(몬머리와 사미굴의) 경계가 되는 거지요. 이리 넘어가야 하는데 다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갔을까요? 돌이 있었어요. 징검다리식으로 완전한 징검다리는 아니더라도 빠질 때도 있고 그걸로 되기도 하고, 소가 끄는 구루마라고 할까요? 우마차, 틀만 있는 것이 다리였어요. 승기천을 횡단할 수 있는 유일한 다리였지요. 그걸 조심조심 넘어서 논을 통해서 길을 올라가는데 소나무가 많은 산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언덕, 산길을 올라와서 중턱을 넘어가면서 마을이 있는 거예요. 성덕교회가 산 정상부에 있었던 거예요.

새미마을에 친구를 찾아갔던 기억을 하신 분이 계세요? 새미는
사미골을 의미하는 거지요?

사미를 ‘새미’라고 부르기도 했지요. 듣는 말에는 왜곡이 생기잖
아요. 저도 어려서는 새미, 새미 했어요. 큰집 가라든지 하는 말은
새미, 사미골 가라는 말이지요. 향토사를 배우면서 보니까 지형도
에는 ‘사미’라 되어 있는 거고 역사적으로 글귀가 남아 있는 거지요.

용현동 어린이 공원, 용남시장 뒤편으로 해서 용일사거리 지나서
나갔어요. 성덕교회가 정상에 있었지요. 신기촌이 형성되면서 인구
가 많아지니까 차가 다니잖아요. 주안사거리 있는데 결국은 논밭길



인데 불도저로 밀어서 길을 만들었어요. 주안7동, 건강보험공단 앞 쪽으로 나가서 아파트 지나가서 신기촌 쪽으로 나갔어요. 시장 입구로 5번 버스가 넘어왔지요.

시민회관에서 신기사거리까지 길이 났었는데 저 국민학교 3학년 때 논 한가운데를 더 연장해서 지금의 신기사거리까지 길을 냈지요. 이쪽이 메인 도로가 된 거지요. 옛날에는 아스팔트 포장도 아니고 길이 주욱. 승기촌 좌우로가 논. 어린 나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넓은, 끝이 안 보이는 느낌이었지요.

지금 도로만 생각해도 주욱 이어진 길, 물길이었겠어요.

옆으로 집들 지어져 있는 것이 논이었고, 그 자체로 인천에는 평지가 없었어요. 원래는 문학경기장 앞쪽에만 평지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승기천이 내려오면서 늪밭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사람이 유입되고, 일제시대 때 논밭으로 모양새를 만들었을 거구. 저희 사는 동네도 산이 있고, 성덕교회 이쪽 용현동 쪽으로 깎아서 밭으로 되어 있고, 그 밑쪽으론 논인 거구. 산 중턱에도 집들이 있는 데는 가까운

데 논하고 있는 거구. 승기천에서 오는 원류가 몇 개가 있어요. 또 지류가 많아요. 왜냐면 논 사이로 물이 흘렀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이 정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건 아니고. 옛날 집들은 하수도 개념이 없으니까 같이 겹해서 나간 부분도 있고. 60년대 중반 되면서 주안2동 문머리쪽도 그렇고, 신기촌 쪽도 그렇고 사람이 들어오면서 하천개념이 되었지요.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돌로 이렇게 하는 독 방식이 아니었어요. 흙으로 다져져 농부들이 소 몰고 다니는 길 정도. 논길 사이사이, 작은 구릉지대로 문머리도 산이고, 여기도 산이었지요.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기억이 잊혀지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억을 제일 남기고 싶으세요?

우리 본가도 80년대까지도 350년 된 기와집이니까. 그런데 사진으로 남아 있는 게 없고. 기억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디테일하게 남아 있는 게 없으니까. 돌아다니기 바쁘니까 작년의 기억과 올해의 기억이 흐릿흐릿해지니까.

그래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거 같아요. 시기는 70년대 초반의 기억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60년 중반에서 80년대 초까지. 왜냐면 그때는 승기천이 복개가 되었으니까.

복개되는 걸 보셨나요? 80년대 후반이 아닌가요?

80년대 초예요. 눈에 버를 안 심었어요. 파서 시멘트 블록화하면서 안에서 쪽쪽 넣으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승기천만 복개가 되는 거예요. 눈 한가운데 승기천 독방 있는 자체를 일직선으로 시멘트 블록하게 되면서 길로 있다가 1년 있다가 주변이 메꿔지는 거지요.

아, 그게 인주대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서 평지화하면서 인주대로 만들고, 아스팔트 길이 되면서 지번지가 1400번지, 1300번지가 형성되어 나갔어요. 주안3동은 7~800번지가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인주대로 끼면서 1200번지, 1400번지까지 생기지요. 지금의 도로명하고 좀 다른데,

도로명이 두 번 정도 바뀌어서.

그러면 복개공사를 보신 때는?

고등학교 때. 동네니까 봤지요. 저희 본가는 798번지예요. 이게 1418번지로 되었어요.

승기천하면 뭐가 제일 먼저 기억나세요?

논. 논하고 비오면 흙탕물. 그때는 돌계단도 안되는 거구. 독이 흙이잖아요. 시멘트가 아니잖아요. 장화 아니면 다니지 못하는 동네였지요. 미꾸라지, 붕어 잡고, 몬머리쪽 친구들하고 잡고 먹기도 하고. 개구리도 해서 먹어보기도 했어요.

지천이 논에, 개구리에, 다 놀 거리였겠어요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몬머리쪽에 있었고, 몬머리쪽이 7,80년대 도시화되는 거였고. 본가는 옛날 기와집이었고. 그쪽(몬머리)도 기와집 있었지만 빨간색 기와집, 신식 기와집이고. 주안사거리, 시민회관 쪽으로는 2층, 4층 신식 빌딩들이 생기고 그 뒤에는

논밭, 기와집, 초가집 있었지요.

구멍가게도 기억하고 있고. 만화가게, 솜틀집, 이발소, 그리고 제 일시장이 70년대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면 국민학교 동창들이 거기 있었으니까. 주안사거리에는 방앗간 아들 친구도 있었고. 그 계 길 나면서 없어지고.

몬머리쪽에는 구멍가게도 있었고, 금성연마라는 공장도 있었고, 목재공장도 있었고, 양조장도 있었어요. 상어를 보관하던 창고도 있었어요. 밭 한가운데. 그래서 밤에는 좀 무서웠어요. 시멘트로 해서 창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무문으로 안은 잘 안보이는데. 그런데 친구네 가려면 밭 한가운데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산등성이 개간한 거니까. 그래도 주안2동, 몬머리쪽은 개발되는 상황이라 지금은 다 부서졌지만 빨간색 신식 기와집 생겼던 것, 벽돌집, 인조라고 하나, 벽에다 돌을 붙인 집들이 나오고 그랬지요. 시민회관 사거리 쪽으로 나가다 보면 하천 같은 게 있었어요. 제 입장에선 개천 같은 건데 결국 집들 생기면서 중학교 때는 복개되어 가지고.

우리 사는 동네도 동산. 다른 사람들이 부르기엔 까치산. 기계공

고에 밴드부가 있었는데 맨날 와가지고 부르고 가기도 하고.

만약 승기천이 남아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만약이라는 전제가 되는 건데 답은 없지요. 있는 것도 없애는 판에 그게 제대로 되었겠어요.

미추홀구는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느낌도 좋구요.

제 입장은 학생이었으니까 승기천 있던 자체에서는 그렇게. 단지 별을 보지 못한다는 것. 하늘 쳐다보면 별이 쏟아졌는데 이제는 영종도, 덕적도, 백령도 가야 별을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면서 산업화, 공단 생기고 공기도 안 좋아지고.

지금 수봉산에 물이 안 흘러요. 현충탑 옆으로 물이 내려왔던 부분이 시멘트로 해서 물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멘트 구조물만 남아있어요. 몇 번 변형되어서 그렇기는 한데 주안 쪽으로 가는, 독정이쪽으로 가는 물길이 있고. 어차피 물길이라는 게 가면서 늘어나는 건데 워낙 짧다보니까.

독정이 뒷길 보면 폭이 좁다고 이게 무슨 승기천이야 느낌 들지

요. 그런데 내려온 길로 따지면 그것도 꽤 넓을 수 있는 거지요. 물은 계속 흘렀고 맑았어요. 비가 오면 흙물이 되어 발목 정도였던 것이 허리까지 오기도 했고.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끝도 없이 이어졌던 물길을 기억하시는 거구, 그 당시 미추홀구를 기억하실 때 비가 오면 장화가 없으면 안 되지만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던 곳이네요.

신비마을 사람들이 석바위를 가려면 장다리를 건너야 했어

문학동 일대

구술자 : 이기영 (72세, 1950년대부터 관교동(신비마을) 거주)

- 채록일 : 2019년 12월 1일(일) 오전10시, 15일(일) 오전 8시 30분
- 채록자 : 남희현
- 채록 장소 : 주안8동 천주교회

“내가 월남가기 전까지만 해도 농사를 지었으니까. 논농사를 허다 보니까 장다리를 너무 잘 알지. 승기천 흘러가는 게 신비마을 사람들이 석바위를 가려면 장다리를 거쳐야 가는 거야. 넓지는 않은데 시멘트 자리니까 장다리라고 그랬어. 그 당시에는 어리니까 기니까 장다리라고 하는지 알았는데 긴 다리가 아니야. 지금 생각해 보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48년생 문학초등학교 나오고, 동인천 중학교 나오고, 동인천 고등학교 4회 졸업생이에요. 이기영입니다.

수봉공원에서 기억하시는 분들, 용현동 지나서, 주안동까지 논밭으로 물길이 있었다고 기억해 주셨어요.

여기 성당 자리도 논이었어요. 여기 위에 삼영아파트라고 있는데 고기까지만 밟이고 여기가 다 논이었어요. 개발되어서 그렇지. 이 위 쪽이 목장이 있었다고. 한신희아파트는 공동묘지였어. 시립공동묘지. 그 자리 허물고 아파트 지은 거야. 여기 위에 한신희라고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계속 사셨던 거예요?

신비마을. 순복음교회 있지요? 그 뒤가 내가 살았던 데야. 순복음교회 앉은 자리가 동그란산이라구. 그걸 허물고 순복음교회가 사서 거기에 지은거야. 거기가 발전할 걸 예견하고 거기에 지은 거지. 관교동주민센터 바로 옆에 순복음교회가 있어.

문학동에서 살면서 선생님께서 말한 곳에 논이 있어서 다녔던 기억을 이야기하신 분이 계세요. 롯데백화점(예전 신세계백화점) 근처에 마을 이름도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 석말이라고. 신비마을하고 석말하고 마주보고 있었어. 눈을 가운데 두고.

여기 전체가 신비마을인 건가요?

승학산 있지요? 문학산 말고. 승학산 뒤쪽, 관교중학교 있는 데가 신비마을이야. 큰신비, 작은신비가 있었어요. 난 작은신비마을에 있었고, 큰신비는 한국아파트 밑쪽으로 있었어. 순복음교회는 한참 저 구석가에 있잖아. 시골마을이니까. 요 앞은 작은신비, 큰신비가 관

교동이 되었지.

요기 바로병원 있지요? 지금은 바로병원 뒤가 집이야. 3년 전에 이사 왔지. 구월1동, 3동, 주안8동, 관교동. 요 앞에서만 살았어. 요기 서만 돈 거야.

누구보다 승기천을 기억하고 계시겠어요?

그렇지. 기억은 하지. 왜냐면 내가 월남가기 전까지만 해도 농사를 지었으니까. 논농사를 허다 보니까 장다리를 너무 잘 알지. 승기천 흘러가는 게 신비마을 사람들이 석바위를 가려면 장다리를 거쳐야 가는 거야. 넓지는 않은데 시멘트 자리니까 장다리라고 그랬어. 그 당시에는 어리니까 기니까 장다리라고 하는지 알았는데 긴 다리가 아니야. 지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작은신비마을에서 살다가 결혼하면서 분가했지. 여기(주안8동성당) 맞은편 구월동에서 10년 살고,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그럼 승기천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여름에 장마지면 흘러넘쳐서 논농사도 망치고. 최근 비가 오면,

80년대 초에 이 성당(주안8동)을 지었는데 장마만 졌다하면 지하까지 침수가 되었어. 복개 공사한 다음에는 약간 덜한데 최근에 5,6년 전까지만 해도 침수가 됐는데 지금은 잡았어.

**그래요? 논 있고 해서 물이 빠진다고, 복개 공사한 다음부터 물이
왔다고 이야기하시던 분도 계셨는데...**

근데, 안 그랬어.

**승기천 폭이 얼마나 됐나요? 주안동에서 온 물이 여기까지 온 거
잖아요?**

용현동에서 계속 흘러내리는 거지. 기계공고에서 취합해서 온 물이 흘러가지고 남동구로 해서 바다로 빠졌지. 승기천이라는 기.

굉장히 폭이 넓었나 봐요.

그럼요. 폭이 넓은 데는 7~8미터, 8~9미터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개울 양 옆이 푹이고, 양 옆은 논이고.

우마차나 사람들이 지나는 길이 양 옆에 있었고 나머지는 다 논밭
이었던군요.

그렇죠. 다리만큼은 자동차, 우마차가 다닐 수 있는 넓이었지. 그
래서 장다리라고 했지.

그걸 통해서 석바위로 넘어갔군요?

석바위 넘어가면 그쪽이 개발이 안되서 땅이 질었어요. 빨간 흙이
야. 장화 없으면 못 다니는 마을이었지.

그때 당시만 해도 논농사하니까 비가 오면 굉장히 질었나 봐요.

석말은 밭농사가 많았고, 신비마을은 논농사가 많았지.

수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수지도 있었다고.

저수지가 순복음교회 옆에 있었어. 논농사하려면, 순복음교회는
동그란산이라는 것을 밀어서 지은 거구. 산이 동그란 게 있었다구.
그걸 허물어서 교회를 지은 거구 그 동산 옆에 저수지가 있었어. 신
비저수지라고, 논농사 지으려고.

크기가 컸나요?

내가 봤을 때는 거기서 수영도 하고 그랬으니까. 민물장어가 있었고, 참게(민물게)가 잡히고. 그게 아마 도시가 발달되고 그러니까 점점 없어지더니... 거기서 빠져 죽은 애도 있었어. 내 친구 중에. 익사였어. 꽤 깊었어. 그 저수지하고 승기천하고는 관계가 없어. 수문을 열면 논으로 빠지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논에 물을 대는 저수지였군요.

그게 신비저수지.

그럼 수로 이야기를 하면.

독으로 된 수로야. 평상시에는 쭉쭉쭉 흐르는 물이었는데 비만 왔다하면 범람하니까 피해가 많았지. 농사짓는 사람이 큰 비 오면 걱정이 많았어.

폭이 8~9미터면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그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물 많이 있을 때는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해요. 찰랑찰랑 넘을 거 아니야. 깊으면 2m가 넘었을 거라구. 그
게 넘치면 농토로 흘러갔어요. 비 안 올 때는 애기들도 미꾸라지 잡
으러 들어가고.

비가 안 내릴 당시에도 물은 항상 흘렀군요.

그럼요. 물은 흘렀지. 말하자면 그게 생활용수 그런 게 합쳐서 흐
른 거야.

선생님 48년생이시고, 지금 기억하시는 때는 몇 년도일까요?

내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걸어서 학교를 다녔거든. 그 기
억은 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32~3살. 30년 이상 기억을 갖고
있는 거지. 승기천에 대한 기억.

그럼 거기가 항상 흙바닥이었나요? 복개되기 직전에도.

그 당시에 수용되어가지고 82년도인가 수용됐어. 그때부터 도시
가 된 거지.

그럼 복개공사도 기억하세요?

언제 했는지 기억은 안 나고 장다리가 없어지면서 여기 도로가 생겼어. 이게 인주대로거든. 우리집 주소가 인주대로로 되어 있거든.

선생님. 지금 저희 책 만드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고 계세요. 여기 토착주민들은 이사를 가시거나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게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시니까요.

많지요. 많이 갔지. 그럼요.

현재 신비 향우회가 있어요. 내가 향우회 회장이야. 내가 72세인데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 그 밑에 애들이 50대, 60대 이렇게 해가지고 스물다섯 명이 모여. 여기 근처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 결혼해서 다 나가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너무 많이 만나도 소용없다. 두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지. 12월에 송년회 겸 만나야지.

제가 공무원을 34년을 했어요. 내가 2008년도에 61세에 퇴직을 했어. 계속 봉사하는 거야. 그 전에는 봉사는 했지만 직장이 있었으니까 이름만 걸고 토요일, 일요일에만 했는데 딱히 하는 일이 없으니까 발 움직이고. 건강비결은 그거여. 하루에 만보 정도는 걸어.

어딜 그렇게 다니세요?

봉사활동 다니고, 근래에 독서에 취미가 있어서 집에서 교보문고 가서 책 한 권 읽고, 제가 속독법을 배웠어요. 한 권 읽고 걸어오면 만 보 정도 걷는 것 같아요. 밥 잘 먹고.

정말 대단하세요. 승기천 하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시간이 지난 후에 기억나는 것도 좋구요.

어려서 거기서 수영했던 기억이 있어요. 비 많이 와가지고 하루이틀 지나면 물이 맑아지거든. 여름 같은 때는 거기 들어가서 뺨스 입고 수영하고, 고기도 잡고, 그런데 그거는 얼마, 몇 번 안 되고, 그다음부터는 돈 번다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공부해야 되고 하니까 어릴 적 기억이 많으세요.

그렇지. 초등학교 때. 우리가 승학산을 넘어 다니지 않으면 비석거리라고 있었어. 거기 승학산 쪽 돌아가면서 비석거리가 있었는데 거기 사형장이었어. 문학에서 이름 좀 세운 사람들은 거기 비석을

세웠어. 그래서 비석거리라고 했는데 거기 없어졌어. 그리고 문학향교가 맨 위에 조그만게 하나 있었거든. 그래서 송학산 넘어서 문학초등학교를 가야 해. 그때 향교는 지금 향교에 비하면 아주 초라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대단하게 지었잖아. 전수관도 있고.

향교는 당시의 작은 학교니까 그랬겠네요.

그때 당시에는 2,3학년이 거기 관청이 하나 있었는데 뱀도 나오고 그랬어요. 기와에서 뱀도 잡고.

뱀 잡아서 뭐 하셨어요?

죽였지 뭐. 어린 나이에. 어른들이 욕했지. 거기 지키는 산신령 뱀인데 왜 잡아 죽였냐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무섭지 않으셨어요? 꿈을 꾸거나.

아이. 꿈꾼 기억은 없고. 내가 직접 죽인 건 아니고.

월남참전은 그림 언제 가신 거예요?

22살 때. 20개월 있었어. 내가 시체처리병이야. 퀴논(베트남)에 있는 백육(106)후송병원이라고 거기 근무했기 때문에 착출 돼서 가게 되었어. 병과가 편하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착출 돼서 갔지.

내가 사연이 깊어요. 우리 어머니가 시집와서 6년 만에 나를 낳았어. 내가 원래 47년생인데 나를 낳았는데 쪼그매서 죽을 것 같아. 문열이야. 아이가 작은 걸 문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년 동안 출생신고를 앓고 있다가 내가 잘 있고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48년생으로 올렸지. 난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구. 너 귀한 아들이라고. 귀한 아들이 월남을 간다니까 청량리에서 출발을 했거든. 그 양반이 청량리까지 와가지고는 면회를 왔더라구. 너 가면 어떻게 하냐고. 남동생이 둘이 있었고, 여동생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귀하게 본 아들이고, 동생들 보게 했다고들 하시잖아요.

걱정하셨는데 잘 갔다 오고. 안심은 하고 갔지. 난 싸우러 가는 게 아니니까. 군생활은 편하게 했어.

물길이 옛날에는 많았던 거잖아요?

동네에서 내려오는 개울이 있고, 그 개울이 모여서, 집합해서 남동구 쪽으로 흘러갔지. 중요한 거는 거기에는 어렸을 때는 망둥어도 올라왔어. 바다로 가는 승기천이니까 망둥어도 올라온 적이 있어. 망둥어 잡은 기억이 있어. 승기천에서.

물고기 잡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집에 가지고 가서 먹었지. 그때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따라가서 게를 잡는 법을 알아가지고 몇 마리 잡고 그랬어.

민물게는 어떻게 잡나요?

별 뜨기 전에 나가서 게가 지나가는 구멍이 있거든. 거기 지키고 있으면 나와요.

아버님이 아들 데리고 어스름녘에 게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새벽에.

그렇지. 내가 쫓아가서 잡았던 기억이 있어. 그게 굉장히 비싸대.

지금도. 참게가 안잡히니까. 농약 쓰고 그러니까. 염천 쪽에나 가야 볼 수 있다고. 여기 없지. 우리 아버지는 눈에 물꼬를 본다고 그래. 물이 잘 빠지나 안 빠지나. 그거 보려고 갔다가 잡힌 거야. 물꼬 보러 가는 길을 내가 뒤쫓아 갔지. 내가 볼 때는 늦게 본 아들이 귀여워서 데리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물이나 뜰채가 있어야 잡는데 그게 없으면 힘들었어. 재미로.

그리고 내가 조금 소극적이었어. 말을 표현을 잘 못했어.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 말더듬이가 아닌가. 근데 군대 가서, 내가 대학을 가려고 삼수를 했어. 학원을 다니니까 그때부터 말이 좀 나아지더라구. 지금은 말로 많은 일을 하지. 연령회 교육도 하고, 원고 써가지고 가서 2시간 강의하려면 아주 힘들어. 연습을 많이 해가야 하는데 내가 써간 원고만 말하면 수강생들이 재미가 없잖아. 주로 내가 봉사한 이야기지만.

이름 없는 직책을 많이 맡아가지고 집사람은 욕해. 그게 다 돈 아니냐. 회비도 내야하고. 조금 있으면 그것도 못하니까.

물길 이야기하시는데 얼굴이 활짝 빛나는 걸 얼핏 보았어요. 그 당시를 회고하시면 드는 생각이나 느낌 있으세요?

그때가 좋았던 거 같아요. 장다리가 있었던 때. 시대가 전부 개인주의 시대고 해서 나만 알고, 나는 천주교회 다니니까 기본이 이웃 사랑이거든. 다른 거 없어. 그게 최고여.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날 사랑할 거 아니야. 지금은 각박하지만 그때는 집도 많지 않았고, 그럴 때가 다시 오려나. 안 오겠지.

아들이 서울에 상명고등학교 영어선생인데 36살에 쓰러졌어. 뇌졸중으로. 2년간 휴직했다가 17년에 복직을 했는데 쓰러진 데가 운동 쪽으로 마비가 온 거야. 왼쪽이 어눌해. 생각하는 거나 말은 괜찮은데. 손주가 말하는데 한 명, 9살인데 아주 똑똑하고 지아빠 닮아서 영어학원 다니니까 그 애가 한 번은 와서 이렇게 말하는데 기뻐어.

“할아버지 나하고 영어로 회화로 해볼래? 내가 듣기론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 고모, 고모부 통역을 했다며?” 할아버지 쩌금해. “어떻게 그렇게 잘해?” 허길래 20개월 월남 가서 하는데 할아버지 근무한 병원 옆이 미군부대라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영어가 늘어요. 손주하고 재미나게 이야기한 기억이 있는데 개한테는 그런 기억이

없을 텐데 그 아이가 여기 오면 월미도 이런 데 데리고 나가려고 한
다고.

도시는 그때 기억을 담고 있지 못하네요.

여기만 와도 이 근처에 우리 논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
20m 정도 가면 우리 논이 있었는데. 한 뼘이가 1,600평이야. 열 마지
기가 넘었다고.

너무 신기해요. 옛날 이야기를 물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
요. 이게 삶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과거가 그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야기까지 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좋게 봐줘서 고맙지. 장다리 이야기하니까 응했지. 또 뭐 하는 단
체인지도 몰랐고.

장다리하면 여러 가게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장다리에 가게가 즐
비하게 있었나요?

양쪽에 논이 있고, 그 밑으로는 승기천이 흘렀고.

그건 장다리를 넘어가면 석바위, 이쪽으로 가면 신비. 석바위 시장이 있으니까. 장다리를 넘어야 거길 갈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장화 없이는 다니기 힘들었다는 거. 하여튼 내가 늦으면 석바위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거든. 운동화에 빨간 흙이 묻어서. 그때 차장이 있었거든. 차장이 학생 이 흙이 뭐냐고 막 뭐라구. 60년대 중반, 검은색 교복에 모자 쓰고 다녔지.



미추홀, 살아-지다-2
승기천을 기억하라

2) 그 시절의 물길

“승기천이 원도심 안에 실제로 흐르고 있었어” _김윤식

“지금의 나를 만들어 온 것들” _박병상

승기천이 원도심 안에 실제로 흐르고 있었어

구술자 : 김윤식 (73세, 1950~60년대 송의동 거주)

- 채록일 : 2019년 10월 16일(수) 오후 2시, 12월 18일(수) 오후 6시 30분
- 채록자 : 남희현
- 채록 장소 : 인천개항장연구소

“고령지방에 고령토만치는 아니어도 황토흙이 좋았기 때문에 도자기회사. 그리고 조그만 항아리 만드는 가마가 많았던 거야. 흙도 이기고 반죽하고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틀림없이 물이 있었을 거야. 그 물이 오늘날처럼 급수시설이 있으면 어디라도 했겠지 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 천연적으로 깨끗한 물이 와야겠지. 개천 물같이 불순물이 있는 걸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맑은 물이 흘렀고, 흙이 좋았던 것을 추측하면 수봉산에서 물이 흘렀다는 증거는 되지.”

미추홀구에서 지내신 때가 언제셨나요?

본격적으로 산 건 55년, 태어나긴 내동에서 태어났는데 돌아가신 내 아버지께서 자동차 사업을 하신다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자랑스러울 것도 없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왜정 때부터 운전을 하셨다고. 상당히 개화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기 있었지. 그래서 세상에선 안 알아줘도 우리 선친이 수줍어하시던 성격이랄까.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나대는 분이 못되셔서 크게 이름이 없네. 그치만 인천운수업계에, 내 아버지를 추켜세우는 것 같지만 선구자 같은 분이셔요.

광복 후에 미군이 오잖아. 미국이 다시 철수했다가 6.25 때 다시



오지만 물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 6.25 후에는 미군이 남한을 지켜야겠다 주둔하잖아. 송의동 로타리부터 올림포스 앞 중부경찰서까지 미국 하역부대인가 그래. 선박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하역부대가 주옥 철망 쳐놓고 접근금지 써놓고 총 들고 지키고 서있다고. 앞에 창고가 몇 개 남기도 했지만 쪽 있었어. 미곡창고고 주로 일제 때 지어진 건데 미국 들어오면서 미국 물자 창고가 되었지. 우선 인천항에서 들어온 걸 여기 뒀다가 부평 에스컴으로 갔다가 거기서 용산이고 평택이고, 파주로 의정부로 중부권으로 나눠 주는 게 인천항이었다고. 남쪽은 부산항구였고. 하여튼 운수업이 굉장했다고. 어려서 우리 차가, 트럭이 석 대가 있었는데 한국인 도와준다고 들어오는 보리, 강냉이(옥수수), 밀. 이게 인천대한제분공장이 저기 있긴 하지만 요거 하나로 안 되니 통밀을 서울로 실어간다고. 그러면 자동차 적재함에 저녁이면 빗자루로 쓸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 할머니가, 송의동에는 집도 없을 때야. 우리집 300평 땅을 가지고 차고지로 쓰고 밑에는 논밭이 있었는데 밀, 보리가 있으니 그걸로 닭을 기르는 거야. 닭을 백여 수를 길러서 달걀 나오면 그걸로 찜도 해먹고 팔기도 하고.

내 생활 근거가 승의동 308번지. 수봉산까지는 그래도 거리가 있지만, 서쪽. 인천 시내 쪽이지. 북동쪽이면 신기촌 자리고, 그쪽보다는 북서쪽인 제물포 쪽이 내 생활 근거란 말이야.

승의초등학교 있고, 남중이 여기 있지. 내가 전학을 와서 여기서 졸업을 했다고. 원래는 축현을 다녔지. 308번지는 장안예식장 있는데. 축구 경기장, 광성, 도원역 있으니까 내가 있었던 곳이 이즈음(승의동308번지) 되겠어.

아무래도 와룡양조장이나 저수지, 그 일대 인천시 분노처리장 이런 것들이 있었던. 성애원인가 고아원이 있었고, 변전소가 있었고, 가죽공장이 있었고. 수봉공원에 나환자가 산다는 굴이 있었고. 내 리교회 신자들 무덤이 그제 이제 김포가는 데로 이사 갔어. 그리고 이제 6.25 이후에 수봉산 판잣집이 남녘에 수십 채가 들어섰어. 전도관 109번지도 비슷했어. 반은 무덤이고 반은 판잣집이었다고.

지금은 거기가 평지가 되서 그런데 중국인 묘지가 있던 도화동 산 언덕, 묘지 밑에 '대지기'라는 마을이 있었고. 여기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우리집이 폭삭 망해가지고 외딴 흥가집에서 외할머니하고 살았던 곳인데 이쪽은 수봉공원에서 흘러내리는, 와룡양조장이 있

었어. 승의초등학교 옆쪽에 와룡양조장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수영을 하고 스케이트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광복 후에 생긴 게 아니고 왜정 때 있었던 소주공장이라구. 그때만 해도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어서 철조망을 엄청 높이 쳤어. 그래서 그걸 뚫고 들어가서 수영을 하거나 스케이트를 하지는 못했을 거라구. 와룡공장에 소주도 만들고, 양조업이니까 아마 양조간장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공장에서 아주 뜨거운 물이 나와요. 금방 공정이 끝나고 나오는 물이니까. 겨울에도 안 얼었다고. 그리고 시커맸어. 그래서 우리들은 어렸을 때, 어른들은 소주공장이라고 했고, 우리들은 간장공장이라고 했어. 까만 물이 나오니까. 내가 대학 들어간 60년대 중후반까지도, 70년대까지 있었나 잘 모르겠다면은 양조장 폐쇄된 때를 알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 내가 66년에 대학에 들어가서 68년까지 이 길을 다녔어. 그때까지도 꺼먼 물이 흘렀고. 그리고 이내 69년 군대를 갔으니까. 갔다 오고 나서는 생활근거가 거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먹고 살기 힘든데 와룡양조장에 물이 흘렀네 어쨌네 그런데에 관심 돌리가 없잖아. 떠나서 구월동에서도 살고, 연수구에서 살고, 떠돌이 생

활을 하고, 서울에서도 잠시 살았으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분명한 것은 68년까지 양조장이 있었어. 그런데 그 저수지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어.

이쪽 수봉산이 내가 어려서 송의학교로 다닐 때에는 와룡양조장이 있는 곳에서 바라보는 수봉산이라면, 송의학교가 있고 논밭이 있었어. 수봉산 밑에 길(송의초등학교와 그 옆 정화조를 끼고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 맞은편 쪽으로)변전소가 있고, 가죽공장이 있었다면, 이 즈음(좀 더 위쪽으로)에 고아원이 있었고.

송의초등학교와 그 옆 정화조를 끼고 도는 것이 물길인가요? 길인가요?

길이면서 물이 있었지. 물가에 길이 나있다고 생각하면 되요. 이 발원지는 어디인지 몰라. 그런데 물가 위쪽으로는 무덤이고, 그 옆으로 피난민들의 판잣집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모두 무덤이야. 그러니까 무덤 위쪽이 인천예총이야. 이게 바로 내리교회 묘지야. 이게 교회묘지였어. 개천, 냇물이 그 근처까지 있었어. 장마가 지고 오면 이걸 잘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장마가 지면 무덤이 무너지고

그러잖아. 그러면 해골바가지, 뼈다귀가 드러나기도 했다구. 내가 본 해골바가지들이 핑장이 죽어. 두개골이. 그걸 보니까 어린애 같아. 내가 국민학생인데도 나보다도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물론 우리 머리는 가죽이 있고, 살이 붙어 있고 커 보이지만. 두개골 정수리에 앞부분, 뒷부분이 노란 아교, 톱니처럼 맞물려 있더라구. 경계선이 아교 녹인 것처럼 이음매가 보이더라구. 하여튼 이 물이 이 수봉산에서 발원한 거야.

해발 몇 미터이려나? 이 변전소 앞쪽에 주인선이 났다구. 승의학교 옆문에서 나와서 산9번지로 가는 길이야. 드문드문 집들이 있었고, 변전소 뒤쪽으로는 나무가 있었고. 그 꼭대기에는 굴이 두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환자들이 살았다고 해요.

무서워서 근처에 못 갔겠어요?

거기는 못 올라가지. 여름방학에는 곤충채집, 식물채집 하라고 그러지. 그럼 수봉산 숲에 가서. 그런데 숲이 아름답드리나무가 우거진 게 아니라 몇 년생 안 되는 고런 정도야. 뒤는 빨간 산이야. 이 산을 넘어가면 인천기계공고가 있었어. 논밭에 변전소 탑이 중간중

간에 서있는데 여기가 한때는 매립을 해가지고 시 종말처리장을 만들었어. 50년대 이때 푸세식 화장실 아니야? 우차, 소가 끄는 나무 탱크를 싣고. 그게 퐁퐁이야. 이런 게 수십, 수백 대가 저녁이면 여기로 와요. 와룡양조장에 소주 만드는 데가 있고, 인천시의 모든 분뇨를 처리하는 곳도 여기 있었어. 큰 탱크가 두 개가 있었는데 축구장 만하다고 해야 할까 엄청 컸다고. 여기에 퍼부으면 문을 열고 분뇨가 쏟아지고, 이게 딱 차면 살짝 뒹겨. 썩히는 거야. 그럼 퇴비가 되는 거지. 얼마 지나면 발효가 되잖아? 세균도 죽고. 그러면 비료 하는 거야. 58년인가 인천일보를 보면 경기도 경찰국에서 ‘대로로 똥차 다니지 말아라. 대로 인근 몇 미터까지는 이제 화장실 푸세식, 이것도 새벽에 해라. 선진도시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

그런데 이 물이 제법 흘렀어. 미꾸라지, 버들붕어 이런 걸 잡았다고. 우리가. 수봉산에 오염이 덜 되고, 이제 경인선이 가게 되는데 제물포역이 있고, 와룡양조장에서 폐수를 이리로 흘러버리면 제물포역 앞쪽으로 흘러서 축골쪽 개천에 합류가 돼. 그럼 축골 앞으로 흐르는 그것이 승의동으로 해서 낙섬쪽으로, 승의동 로타리. 지금

평양옥 옆으로 쪽 해서 옐로하우스로 빠져나간다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내가 기억은 잘하는데 그림을 못 그리니까 정확하게 그려서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게 내가 어렸을 때, 어스름녘에 자주색 똥물을 쏟아내고 하는. 황혼 옆에 소를 끌고 와서 문을 열면 지하 땡크로 분노로 물이 많아. 그게 자주색으로 보이더라구.

그게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을까요?

몰라. 10대, 20대 왕성하게 에너지가 넘쳐서 살 때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사는 거, 술 마시고 노는 거에 관심이 가고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다가 내 육신이 쇠락해지고, 열기가 없어지고 나니까 침착해지고, 내 삶에 대해 침잠해서 살게 되잖아. 내가 자다가 이게 꿈이었나 싶다가도 이게 몇 학년 때의 기억인데. 평상시에 생각이 안 나가도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내가 그걸 보는데 어떤 선생이 “너희들 거기서 뭐하냐?” 물으니까 “똥물 봐요” 그럴 수도 없고.

내가 반장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청소 감독을 안 하고 반장보

고 하라고 해서 내가 매일 늦게 갔어. 누군지 생각은 안 나는데 개가 커튼을 닫으려고 하다가 그 장면이 떠올라. 냄새는 안 나. 바닷가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와룡양조장 쪽에선 났겠지만 내 쪽에선 안 났지. 그리고 시내에 살던 애들 만나면, “숭의학교 너희들 똥통이래. 똥통 옆에 있으니까.” 냄새난다고 해가지고 자존심 상했던 기억도 있고. 하여튼 수봉공원 뒤쪽이 그랬어요.

뒤쪽으로 물이 있었어. 신기촌 쪽으로는 개천 같은, 선명한 개천이 수봉산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하는 개천은 기억이 나지 않아. 수원지가 어딘지 딱 잡을 수는 없지만 비오면 스며들었다가, 나무뿌리에 밑에 있다가 흘러나오는 물이지. 그런데 신기촌 쪽은 전부 판잣집이니까 개천과 여기(판잣집)서 나오는 물이 뒤섞여 있었다고 생각해.

원류가 그래도 한 폭은 되었어. 충분히 들어가서 미꾸라지 잡고, 버들붕어 잡고. 애들 놀기 좋았지. 밑에 모래고 맑았다구. 신기촌 쪽으로는 오지향아리 굽는 가마가 많았어. 내 친구놈이, 국민학교 동창인데 깨네집도 향아리를 구웠어. 향아리 굽는 그 친구 집에 겨울에 놀러 가면 그 가마, 향아리를 굽고 나면 천 몇 도가 넘는데 며칠

동안 안 식어. 흙으로 된 가마가. 거기 들어가면 엄동설한에도 후끈 후끈. 그런데 그 앞으로 물이 개천같이 흘렀다고. 그 물이 수봉산에서 흘러나온다고 생각은 못했어. 그런데 지금 추측하면 거기 흙이 좋았고, 한국유업 도자기공장이 신기촌에 있었잖아. 울목공원에 왜놈 묘지 있고, 승의동 축구장 옆에 인천소방소가 있었고, 그 옆이 화장터고. 승의동에 장티푸스 전염병 치료하는 덕생원이라는 병원이 있었어. 그 지리가 중앙여상이 된 거야. 이 묘지가 신기촌으로 갔고. 거기가 흙이 좋았던 거야. 고령지방에 고령토만치는 아니어도 황토흙이 좋았기 때문에 도자기회사. 그리고 조그만 향아리 만드는 가마가 많았던 거야. 흙도 이기고 반죽하고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틀림없이 물이 있었을 거야. 그 물이 오늘날처럼 급수시설이 있으면 어디라도 했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 천연적으로 깨끗한 물이 와야겠지. 개천 물같이 불순물이 있는 걸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맑은 물이 흘렀고, 흙이 좋았던 것을 추측하면 수봉산에서 물이 흘렀다는 증거는 되지. 그렇지만 그 위치는 드문드문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 굉장히 그쪽이 분지지역임에도 논밭이 많았다는 것은 수자원이 풍부했다는 증

거지.

겨울에 고등학교 때 럭키아파트 있는, 능허대 앞이 말밭급 해안이 돌산 밑까지 있었다고. 해송이 몇 그루 늘어져 있고, 모래도 있고 잔잔하고 참 좋았어. 고등학생 때에는 주말마다 캠핑을 갔다고. 능허대 앞 모래사장에. 물 들어오고 길 건너 옥련 성당이 있었고. 청량산 줄기에 마지막이야. 능허대가 볼록 솟고 그 앞에 섬이 있고. 남동구, 연수가가 다 남구였지.

지금 송도고등학교 자리, 거기 터널이 되었는데 산이야. 인천 초창기에 젓소를 기르던 마을이 거기 있었다구. 인천우유라고 있었어. 인천기계공고 맞은편에 인천우유공장도 있었어. 그때만 해도 서울우유도 썰 때가 아니야. 우유도 잘 못 먹고, 가난한 때라. 인천우유공장에 우유를 대던 목장이었을 거야. 그걸 넘어가면 성황당이 있었고, 그걸 넘으면 능허대 백사장이 나오는거야. 성황당에 돌 던지고, 그 옆에 당집이 있어요. 12월 25일에 거기서 놀다가 장작이 떨어져서 추우니까 그 집에 있다가 나오니까 먼지가. 혼자서 못 가겠더라구.

얼마 전까지 주인선 철길 옆에 굉장히 오래된 중국집이 유명한 집

이 있었어. 60년대 초에 송도에 소풍 가고 오다가다 보고, 고등학교 때는 크리스마스 시내에서 놀다가 걸릴까봐 거기에 가기도 하고, 교통방송 맞은편에 흔적이 남기는 했는데.

신기촌도 가다보면 독정이 쪽에서 시청 쪽으로 간다면 오른쪽이 좀 고지였다고. 구릉지역인데 다 깎아서 도시를 만들었지만 주안 쪽도 상당히 구릉지였다고. 시민회관에서 주안역을 가려면 논밭으로 난 오솔길로 가야하는데 적어도 10m 이상 고바위였다고. 평지보다는 그걸 넘어서 가려면 비 오는 날이면 장화 없으면 찢끄덕 거리고. 거기가 시골이었어. 주안역 그 뒤로 나가면 염전이잖아. 보통 가좌동 염전이라고 하는 데가 다 거기서부터 재능대 뒤쪽으로, 동구 무슨 부속가게 있던 곳이 염전이었거든. 염전이 엄청 컸어.

승기천이 원도심 안에 실제로 흐르고 있었어.

수봉산 신기촌 쪽에는 사람도 얼마 안 살고, 전부 논밭이었어. 6.25 이후에 판잣집이 다 들어서고, 경인고속도로 뚫리고, 신기촌 길 넓게 하면서 정리가 되었지. 삶이 얼마 안 사니 기억이 거기서 그칠 수 있는데 길 가다가 누군가 글을 하나 남기면 기특한 거지.

초등학교 기억도 잘 만나는데 선생님처럼 한 장면의 그림으로 표현하시는 걸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래요.

지형에 눈이 있고 하니까 눈 옆으로 수로가 있잖아요. 이런 수로를 인위적으로 내니까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 물웅덩이가 있을 수도 있고 드문드문 있었으니까. 우리가 중학교 겨울에 스케이트를 거기서 배웠다고. 물이 풍부하니까 눈에 겨울에도 건조하게 두지 않고 물을 넣어놓은 눈이 있어. 벼 벤 뿌리들이 완전히 갠하면 좋은데 툭툭 나오면 스케이트를 못하지.

미추홀구는 선생님께 어떤 곳인가요?

내가 내동 8번지에서 태어났어. 태어나서 거기서 4,5살까지 살았는데. 그 기억을 이야기하면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 47년생인데 50년이면 만 3살에 6.25가 일어났어. 피난 가던 것도 상당 기억난다고. 배 타는데 널판 위로 올라가잖아. 내가 등에 업혀서 가는데 무섭다고 안 간다고 했던 기억도 나고. 날 업은 보모아줌마가 잘 가는데도 거기가 천 길 낭떠러지 같았다고. 배 타고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구토를 하시는데 우리 형이 나보다 4살 위인데 이름이 정식이야. 어머

니가 “증식아~”그러지. “증식아, 증식아~ 깡통”하는데 깡통을 갖고 가는데 이놈의 깡통을 쓰러뜨려서 이놈의 토사물이.

하여튼 이런 기억이. 충청도 서산으로 피난을 가서 모래사장에서 콩나물 줄거리 같은 걸, 그게 마라고 하더라구. 그걸 형하고 캐먹던 기억. 비행기 하나, 괴뢰군 한 명 못 봤어. 그리고 휴전 직전에 하늘로 불덩이들이 날아가고, 싹싹이 날아가면 할머니가 아구구구 책상 밑으로 숨던 거는 생각나.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바람에 남구로 이사를 갔어. 남구 구민이 되었지. 송의동하고 동인천이 아이 때는 멀었던 거야. 거의 안 오고 송의공설운동장이 있었는데 가난한 시절에 운동시합이 참 많았어. 휴전 후에 운동장에서 ‘시민위안의 밤’ 같은 게 엄청 많았더라고. 그 당시 인천출신 영화배우, 연극배우, 가수들이 박재란, 현미, 한명숙, 도미, 이런 사람들이 와서 노래 부르고. 그런 행사가 많아서 동인천 사는 사람이 오히려 송의동으로 놀러오는 거야. 새해 기념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정부에서 시키는 관제대회 볼거리가 많았어. 전국 씨름대회, 미녀가 죽느냐 멧돼지가 죽느냐 그래가지고 공수도 5단짜리가 멧돼지하고 싸운다고 해서 구멍을 뚫고 들어

가서 훑쳐보는데 작은 돼지 새끼 하나를 뉘어놓고는 여자가 수도로 창자를 뚫는데 하다하다 돼지 새끼가 도망가는데.(웃음) 고등학교 때는 야구선수 장훈 선수도 보고 그랬다구. 미식축구하는 것도 보고.

이사 가서 초등학교 졸업했지. 인천중학교를 붙었는데 서류를 내야 한대. 호적등본인지 예전엔 기류계⁴⁾라고 했어. 요즘으로 치면 주민등록, 어디 기류하느냐는 거지. 집에 가지고 갔더니 지금 남구청(미추홀구청)에서 서쪽으로 ‘장사래 도서관’ 그 부근쯤이 남부 출장소 자리야. 거길 들어가니 안경 끼고, 토시 낀 주사양반이 어떻게 왔냐고 물어. 승의동 308번지인데 호적등본 띠러 왔다고 하니까 그때는 두꺼워. 100번지 단위로 했을 거야. 그 종이에 먹지를 깔고 용지양식에다가 써 주는 거야. 이 양반이 이리 냉기(넘기)고, 저리 보고하다가 “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하는 거야. “넌 호적에 없다. 네 형이 정식이 맞냐? 김정식은 있는데 넌 없다.” 그래서 집으로 와서 “할머니 나는 호적이 없대.” 막 우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서 “애가 호적에 없단다.” 하니까 아버지가 금방 오셨

4) ‘기류 신고(寄留申告)’의 전 용어. 기류하는 것을 관청에 보고하던 일. 또는 그런 서류

어. 손에 기름을 닦더니 트럭 한 대를 몰고 “내일까지 내가 해오마.” 하셨어. 나는 완전히 뭔가 잘못이 된 것 같아서 난 슬프더라구. 그날 밤 아빠가 안 돌아오시더니 새벽에 오셨어. 그래 가지고 호적을 만들어 오셨어. 전쟁 끝나고 엉망진창인데 47년에 태어나서 1960년 4월에 출생신고가 됐어. 그래서 본적지가 송의동 308번지야.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보니 밖에서 넝쿨째 굴러 나오듯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같아요.

난 그런 것들이 다 생각나는 건 아니지. 그 중에 특이하게 내 기억에 남은 거겠지. 어쭙잖게 내가 문학을 했다고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머릿속에 울림이 있었던 게 아니겠어. 이야기하지 못할 괴상한 것들도 많은데 하나도 특이할 것이 없는데도.

날짜가 생각은 안나지만 중학교 2학년 때 7월이면 방학을 하는데 장마가 졌어. 그런데 우산이 없었어. 그때는 일본식 종이우산만 가져도 부자였어. 박쥐우산 같은 거는 한 반에 한두 명 있을까. 우산이 있어도 그런 우산은 아버지나 쓸 수 있는 거야. 잘 사는 집은 기름

먹인 종이로 된 대나무살 우산을 쓰는 거야. 고등학교 되니까 파란색 비닐우산이 있었는데. 비를 맞고 학교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우산이 없으니까 속옷까지 다 젖었지 뭐야. 그런데 그 불편함보다 승의 깡시장 어떤 노인네가 “인중학생 비를 철철 맞고 가는 구나.” 하는 소리가 어찌나 창피하던지. 나로서는 예민하고 썬서티브한 것들이 남은 거겠지. 물고기 잡았던 거는 내가 즐거웠고 수봉산의 무덤은 무서웠고. 몰라요, 난 이런 게 많이 가슴에 남네.



지금의 나를 만들어 온 것들

구술자 : 박병상 (63세, 1960년대 주안동 거주)

- 채록일 : 2019년 10월 18일(금) 오후6시

- 채록자 : 남희현

- 채록 장소 :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동네에서 그런 기억이 나요. 정월대보름에 어느 집이었는데 울타리가 나무 판자였어요. 그걸 잘라서 쥐불놀이를 했지요. 아주머니가 화가 나서 막 나오는데 다 도망가잖아요. 난 안 도망갔어요. 그럼 쥐불놀이한 애들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럼 나는 다른 방향 알려주고. 나는 장난기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거기가 밭이었고, 그게 주안사거리 쪽이지요. 논과 밭이 섞여 있었고, 개울이 있었고 물이 늘 흘렀어요. 폭이 50cm 되려나. 깊이는 1m도 안되는데, 개구리도 많았어요. 그 물길이 아래로 내려갔지요. 비가 오면 늘 물이 고이고 그랬으니까.”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병상입니다. 나이는 우리 나이로 63세입니다. 대학에서 환경관련 강의도 하고 글을 씁니다. 미추홀구에서 자랐어요, 제 첫 기억이 있는 곳이니깐요. 주안사거리. 농협 있는 쪽 그 언저리에 살았어요. 주안감리교회가 있는 데니까. 지금의 국제성서박물관이 주안감리교회 자리예요. 여기 집이 있었고, 아버지가 길 건너에서 약국을 했어요. 나중에 약국을 옮기기는 했는데 내 첫 기억이 거기에 있어요. 그때의 주안사거리, 예전에 수도국이 있고 그 언저리에서 살았지요.

여기가 전부 길 건너 쪽은 밭이었고, 교회 옆에는 논이 좀 있었어



요. 그때의 교회는 동네마다 작은, 요즘 작은 교회는 건물 위에 있던데, 예전 그 교회에 1백 명 정도 들어가려나? 조그만 시골교회였어요. 60년대 초였어요. 돌아다니며 놀 때였으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의 그 시절이죠. 이 일대에서 많이 놀았지요. 꼬맹이들에게 석바위 쪽도 멀다고 생각했고, 가끔 가던 신기촌 쪽은 논이었고요. 승기천에서 나온, 논마다 물웅덩이가 있어서 빗물을 모아놓았던 거겠지만 이 길이 복개한 거잖아요.

겨울에 스케이트 타고 놀았어요. 겨울에 숨씨좋은 사람들이 논에 얼음을 깨면 물이 늘 있었고, 그걸 퍼다가 죽 뿌려서 큰 링크를 만들었고 건장한 사람들이 스피드 스케이트를 타면 우리 같은 아이들은



뒤뚱거리며 가운데서 놀았지요. 스케이트 날 가는 사람들, ‘야끼만 두’라는 얇은 만두를 파는 사람도 있고, 당시 논 어느 곳이든 얼음을 깨서 물을 퍼서 뿌리면 다시 얼지요. 빙질이 요즘 같지는 않겠지만 꽤 컸어요.

시민회관 쪽 물웅덩이 말고, 작은 하천이라고 해야 하나? 조그마한 개울, 우리가 봉 뛰어서 건너기는 어려웠지만 개구리도 많았고, 논밭 사이로 작은 물길 같은 게 있었어요. 까마중도 많았어요. 작은 분꽃씨 같은 크기의 포도 색깔 나는, 별로 맛도 없는데 다 먹고. 그걸로 개구리 잡는다고 그랬어요. 낚싯대에 끼서 개구리 앞에서 까 부리는 거지. 개구리가 까마중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앞에서 뭐가 알짱거리니까 물은 거지. 개구리가 많았고 개구리 잡는 건 일도 아니었지. 나는 암전해서 같이 어울리긴 했어도 그거 잡는 거 보기만 하고, 친구들은 그걸 잡아서 패대기쳐서 닭 주거나 뒷다리 넓적다리 부분을 구워먹기도 하고.

이 동네에서 그런 기억이 나요. 정월대보름에 어느 집이었는데 울타리가 나무 판자였어요. 그걸 잘라서 쥐불놀이를 했지요. 아주머니가 화가 나서 막 나오는데 다 도망가잖아요. 난 안 도망갔어요. 지

나가는 사람처럼. 그럼 쥐불놀이한 애들 어디로 갔느냐고 물어봐요. 그럼 나는 다른 방향 알려주고 판청을 하죠. 그러자 의심 없이 그쪽으로 달려가더군요. 나는 장난기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랬나 봐요. 암튼 그런 적이 있어요. 거기가 밭이었고, 그게 주안사거리 쪽이지요. 논과 밭이 섞여 있었고, 개울이 있었고 물이 늘 흘렀어요. 폭이 50cm 되려나. 깊이는 1m도 안되는데, 개구리도 많았어요. 그 물길이 아래로 내려갔지요. 비가 오면 늘 물이 고이고 그랬으니까.

어렸을 때 본 일인데, 할머니 한 분이 비 오는데 우산 쓰고 우리들 다가오지 못하게 하더군요. 빗물이 맨홀 뚜껑을 밀어내고 땅 밑에서도 올라오니까 우리 꼬마들 빠지지 말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 물은 승기천 물은 아닐지 모르지만 농협에서 주안으로 가는 쪽은 언덕으로 좀 높으니까 흐르는 물이 있었어요. 길에 보도블록 같은 게 없으니까 비 오면 장화신고 다녀야 하고, 길 가장자리마다 소들이 끌고 다니는 퐁마차라 해야 하나, 그런 게 흔했죠. 당시 밭 가장자리에 웅덩이를 파서 퐁을 모아놓았지요. 가을 되면 삭으니까 김장배추 심기 전에 뿌리고, 겨울 되면 또 거기에 눈도 쌓이고, 동네 개구쟁이들은 눈을 쓸어내 거기에 길을 내요. 길 가던 사람이 빠지

기도 하고. 난 한 적은 없고, 친구들이 우리 삼으로 그걸 했는데 거기 빠진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삼을 가지고 가버렸지요. 난 삼만 빌려 준건데. 장난꾸러기들이 거기 함정을 파기도 하고 장난치고 그러고 놀았지요. 지금처럼 학원가지 않았으니까 다들 그러고 놀았어요. 그때 물이 흘렀던 거. 어디에나 모래가 있었고. 초등학교는 교대부속초등학교(교대부곡) 나왔어요. 걸어서 40분 걸렸으려나. 버스도 다녔어요. 3원 내고 다녔지요.

외삼촌이 살던 외갓집이 제물포 선인재단 쪽에 있었어요. 가던 길에 물길이 있었어요. 물가에 텐트 같은 건 아니고, 밭 같은 걸 쳐 놓고, 물가에 앉아 할머니들이랑 아주머니랑 이야기하던 기억이 있어요. 세 살이나 되었을까? 아주 어릴 적 어머니 따라서 외할아버지 댁에 갔던 기억이겠지요. 띄엄띄엄 기억이 나는데 나를 어머니가 데리고 가면 무릎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던 기억이지요. 외삼촌댁에 가던 그 길이, 배성수(인천도시역사박물관)씨가 이야기하길 제물포에서 내려서 서울까지 괴나리봇짐 지고 가던 그 길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 길에 물길이 있었어요. 그 언저리는 밭이 있었고. 개울이라 봐야 2~3m폭이었고, 아이들이 종아리에 물을 담글 정도의

깊이는 되는 그런 물갈이 있었어요. 시원하니까 자리 깔고 앉아있었던 거지요.

양장점 있으면 밤에 불을 켜놓잖아요. 그럼 땅강아지들을 다섯 살 아이 손으로 잡으면 네다섯 마리 잡고 그랬어요. 특별히 징그럽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영화공간주안 있는 시민회관 자리에 물웅덩이에서 물잠자리를 잡고, 노래 불렀던 기억이 나요. 작대기에 명주실을 매고. 목찌빠 놀이를 양지바른 곳에서 하고 있으면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데 어떤 형이 학교 안가고 왕잠자리 두 마리 잡아서 싸움을 시키고 있거든요. 우리도 잡고 싶으니 부러웠죠. 왕잠자리는 빨라서 우린 못 잡았거든요. 불량끼가 있어 보이는데 용기를 내서 잡아달라고 했죠. 그러자 지금 생각하면 테니스라켓 같다고 해야겠는데, 굵은 철사로 두꺼운 테두리를 가진 채를 만들어서 대나무에 매달아 오라고 그래요. 얇은 철사를 사다가 퐁퐁 묶어서 테니스라켓 가장자리처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온 동네 거미줄을 다 문혀요. 집집마다 있는 거미줄을 문혀서. 다가오는 왕잠자리를 휘둘러 잡는 게 아니에요. 야구선수가 가볍게 번트하듯이 가져다 대는 거죠. 그럼 잠자리가 탁 붙어요. 그 형은 명주실 묶은 다른 작대기를

준비해 실을 잠자리 다리에 묶는 거죠. 그러더니 잡힌 왕잠자리 옆 구리에 호박잎 암술을 옆구리에 비벼요. 그럼 옆구리가 분홍색으로 변하겠죠? 수컷은 하늘색 옆구리를 가졌는데 분홍색으로 변했으니 암컷처럼 보이는 거죠. 분홍으로 변한 왕잠자리가 묶인 작대기를 돌리면 다른 수컷이 딱 붙어요. 그 형이 잡아떼려고 해도 여간해선 안 떨어져요. 그걸 떼어내면 두 마리의 왕잠자리를 잡는 거죠. 이제 왕잠자리 묶은 작대기가 두 개로 늘고, 두 개를 우리에게 나눠주죠, 우리가 분양받은 작대기를 휘두르면 또 딱 붙거든요. 그럼 네 마리가 되지요. 또 여덟 마리 되고, 그러면 우리 다 하나씩 가지는 거지요. 그럼 논두렁 돌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야모 이모’하면서 놀았어요. 경기도 일대에서도 그러고 놀았다더군요. 밀잠자리는 흔했고, 고추잠자리는 귀찮았고. 정신이 빠진다고 잠자리 앞에서 손가락 돌리기도 하고. 물웅덩이에 각시붕어, 벼들붕어, 묵납자루 같은 것들, 그때는 이름을 몰랐지만 많았어요. 미꾸라지 잡고, 논둑에 족대를 몰고 오면 찌그러진 주전자에 바글바글하게 잡기도 하고 그랬지요. 그거 가져가면 집에선 안 좋아했지요.

그때 생각하면 어떠세요?

그때 다 그러고 놀았으니까. 아련한데 내가 지금까지 생태적인 글을 쓰게 된 거, 개발, 발전, 매립 뭐 이런 거 별로 좋지 않게 본 건 그때 기억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 친구는 송림동에서 살았는데 중심지 사람들에 비해 살림살이가 처지는 사람들이 살았고 열등감, 분노, 아쉬움이 저변에 깔려 있는 부모들이 살았죠. 일제가 항만도 만들고 공장도 가동하고 일꾼으로 살았던 사람이 많았으니까 성공하려면 공부해야 하고 이런 게 많았겠지만 난 그런 게 별로 많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억지로 공부시키고 그랬지만.

아버지는 강화 분이었는데 집에 땅이 많았다고 해요. 큰 아버지는 교토대 경제학부 나왔는데 그 어마어마한 땅을 다 팔고 다 쓰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할머니가 우리집에 계시다 나 스무 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94세, 나 대학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오신 친척들이 너네 집에 그렇게 돈이 많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린 몰랐는데 그 돈이 다 없어졌을까? 그때 좌파 지식인으로 돈을 가마니로 싸서 북으로 보냈다는 설이 있었대요. 아버지는 경성약전, 서울대학교가 된 거죠. 아버지가 약사 번호가 100번 대니까. 내 동생이

공부를 좀 했죠. 난 숙제 생각하면 아무렇게나 1,2,3번 적어서 내고, 그러면 반 친구들이 아침에 그걸 또 베껴 적고. 베끼다 시간이 부족해 못 베끼는 놈.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 놀기 바빴지요.

이런 이야기하면 밤새가며 하는 거지요. 그때 기억들, 흠에서 놀던 기억들이 그런 게 내 글에 녹아있지요.

나는 보는 걸 좋아했지 잡지는 읽었는데 주안역 넘어서 염전에서 망둥어 잡는데. 물웅덩이 있으니까 가장자리에서 수영도 하고. 인천사람들이 수영을 잘 못 하는 게 물에 동동 뜨니까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지. 갯벌에서 낚시하고. 여기서 개구리 잡으면 닭들한테 주고. 나는 하는 거 봤고. 개구리 뒷다리를 누가 입에 넣어주길래 맛있더라구. 개구리 뒷다리라고 하길래 뺏어버렸지. 여기서 소 몰고, 농사짓는 거 보고. 나중에 원고 쓸 거 생각하고 본 게 아닐 텐데, 그냥 바라봤어요. 이렇게. 주변 지나면서 천천히 봤지요.

여기 떠난 게 사거리 쪽에 집을 지어서 그때 흙벽, 초가집인데 상권이 좋은 데였어요. 낡은 집인데 막걸리도 팔고 그런 집인데 그걸 아버지가 사가지고 약국을 하셨어요. 비가 오니까 천장이 내려앉더라고. 그래서 부셔서 건물을 다시 지었지요. 여기는 주택들이 빼곡

히 들어섰어요. 공단에 사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집이었지요. 염전은 초등학교 끝날 즈음에 메워졌고, 성냥갑 같은 십 평도 안 되는 게 딱지같은 집들을 지어서 노동자들을 수용하는 거였지요. 겨울에 놀던 곳인데 트럭 뒤로 흙을 내려서 다 메워 버렸어요.

나는 고등학교 때도 공부보다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아버지는 나를 미덥게 생각하기는 했는데 동생처럼 공부를 잘하길 바랐지요. 나는 조용하긴 했지만 많이 돌아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단체 영화를 그렇게 보러 다녔어요. 중학교 들어가면서는 동네에서 안 노는 거예요. 동네 이야기는 할 게 없어요. 다 매립되고 다다다닥 집 짓고, 주안역 갈 일도 없고.

아버지가 60세 되셔서 약국을 그만두고 그 다음부터는 아파트를 전전해서 다녔지요. 마음은 늘 주안에 있어요. 지금 가도 아련하고, 혹시나 아는 사람을 만나려나 두리번거리게 되고, 지금 주안일대가 재개발계획이 있잖아요. 거기 내가 도시개발위원회에 있는데 거기에서 들었어요. 지금 주안에 어마하게 빼곡하게 다세대주택이 있는데 초고층 아파트로 바꾸려 합니다. 그런 정책도 참 웃기지만 이걸 열 몇 개의 재개발 구역으로 나뉘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부정부패

도 어마어마하고, 어린이 공원이나 놀이터가 필요하니까 제일 후미진데 놀이터를 만들어요. 너나없이 만들어서 전혀 계통도 없고 정말 엉망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열여덟 개의 놀이터의 띠를 만들어서 특색 있게, 흐름이 있게 해야 한다고 반려시킨 적이 있어요.

거기에 3,40층 아파트로 꽂아 놓을 거예요. 그럼 더 삭막한 거예요. 지금 주택들 끔찍하게 있지만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하고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어놓으면 아무도 모르는 데가 되는 거지요. 여기도 분명히 논이 있었고, 역사나 이런 걸 보면 물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은 아파트를 만들 때 정화조를 안 만들 거예요. 종말처리장으로 빠니까. 그러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빗물을 채워 두면 돼요. 그 물을 저장할 뿐 아니라 바깥에서 내놓는다면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죠. 재해를 완충도 해줄 수 있어요. 일부는 계속 정화하면서 흘려주고, 갈수기에 모아둔 빗물을 강물로 흘려줄 수 있겠죠. 제가 사는 데가 송도비치호텔 건너편, 송도에 버스 차고지로 썼던 곳 전에 소암마을이라 하던 곳 근처인데 그 아파트 한가운데 넓게 물을 채워놨어요. 빗물을 완충하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멋

도 필요하겠지만 재해에 대해 완충할 수 있어요. 상가의 일부를 운하처럼 만드는 곳도 있어요. 싱가포르에 가면 그렇게 물을 모아 건물 안에 넓게 담아 놓고 배도 다녀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빗물을 담아 재해를 완충할 수 있고, 사용할 수도 있지요. 다 만들고는 빗물을 배제해야지만 처음부터 설계한다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려면 전체를 개념도를 그리면서 체계적인 연구와 설계가 필요하겠죠. 공원도 배치하고, 바람골도 생각하고, 빗물로 승기천도 흐르게 하면 돼요. 주안 재개발 지역은 난장판입니다. 업자들이 이쪽 구역은 왜 허가를 빨리 안 해주냐고 난리를 치고, 이쪽은 소송 걸려 있고 그러니까 잘 안되지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그리고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한다면 주안 일대는 버림받을 거예요.

여기저기 쓴 글로 책을 내기도 하는데 요즘엔 사람들이 책을 안 보니까. 안타깝지요. 눈앞에 A4용지로 내용을 요약해서 대령해도 제목만 보죠. 책은 안 보지요. 어디에서 들었는지 인천시에서 바람골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겨야 할까요? 인천발전연구원에 생태연구하는 사람이 한 명이예요. 바다 연구자는 아예 없고. 내가 바람골 이야기 인천에서 먼저 말했는데 인천시는 나한

테는 안 물어봐요. 이런 이야기 나오면 갑자기 전문가들이 나타나지요. 연구비 준다면 다 나오는 거겠지요. 제대로만 하면 괜찮지만, 그럴 거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경인고속도로도 녹지로 만들자고 했는데, 좀 충분히 의논해서 계획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닥닥 해버렸잖아요. 두고두고 아쉬울 거란 말이에요. 가끔가다 생태 연결로를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이랑 같이 다니게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랑 같이 가려고 너구리가 기다리다 사람 손잡고 건너겠어요? 사람을 배제하고 냄새나 빛이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사람이 근처도 안 온다는 확신이 들어야 동물이 지나다닐 텐데. 엉터리입니다. 어떤 동물이 지나다니는지도 조사해야 할 것이고, 그런 거 하나 없으니. 인천시장이 이야기해서 그런지, 바람골이니 먼지를 제거하는 습지 이야기가 특집으로 나왔던데 외지에서 연구진 데려와서 또 하겠지요. 외국에 근사한 거 흉내 내겠죠. 어쩌면 싱가포르의 건물 안의 물길 같은 거 해 놓겠지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이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그러면 기대하게 하고, 완성을 기다리고, 도시에 물길이 생기면 여기 살고 싶고, 이사 가고 싶지 않고. 이 걸 만들려면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요.

내 삶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동네를 만들 수 있어야 할 텐데. 아파트 세워놓으면 어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까? 어찌 되었던 누군가는 살 텐데 이 지역에 관심이 있을까? 저는 GTX도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걸 만들면 만들수록 지역 정서는 제 자리에 남지 않아요. 일어나자마자 출근해서,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고, 자고 또 내일 아침에 나가야 하는데 빨리 갔다 빨리 오는 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말죠. 그런 시민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하품 나고 졸립겠지.

다만 살아있을 때까지 행복하고,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살 뿐. 우리의 삶이 기억에 정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역 사람의 이야기(text)를 듣고, 그런 게 있구나 알게 되니까.

그때 주안에서 같이 놀던 친구 부모 중에 의사도 있었고, 장롱 같은 거 위탁 받아서 문지르고 광내는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가난했다는 기억입니다. 그때 배고프면 누구네 집에라도 들어갔죠. 밥 먹으라며 귀불 들려 친구 딸려 들어가서 밥 얻어먹었지요. 누구네는 계란 하나 얹어 주고, 저쪽 집에서는 짬지 하나 주고, 밥을 이만큼. 우리는 누구네 집이 가난하고 부자고 알았지만 같이 노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급속하게 바뀔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미추홀, 살아-지다-2
승기천을 기억하다

3) 고향, home

“밤이 되니까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번쩍번쩍하고 굉장했지” _김원균

“고향이시. 옛날 기억에 자꾸 젖어들게 돼” _박성희

“가재 잡고, 싱아 뜯어먹던” _박광현

밤이 되니까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번쩍번쩍하고 굉장했지

구술자 : 김원균 (60세, 1970년대 송의동 거주)

- 채록일 : 2019년 10월 29일(화) 오후3시

- 채록자 : 남희현

- 채록 장소 : 엄지식당

“그때 당시에 미추홀구청도 인천교육대학자리였어. 그 옆에 부속 초등학교 있어서 앞길이 다 학교로 되어 있어서 살기 조용한 동네였어. 자식 공부시키기엔 좋은 동네였지. 작은 집이 있으니까 우리 고모들도 이곳 주변에 자리를 잡았고, 제물포 뒷역은 있지도 않았어. 지금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옛날 시골길 역처럼 기와로 이은 역이었어. 내려서 뒷역 가려면 철도길 지나서 뒷역으로 넘어갔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청도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거기에서 졸업하고, 72년에 상인천중학교(간석동)로 전학와서 지금까지 이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태어난 해는 60년생입니다. 고모(55년생)와 함께 유학을 왔지요. 고모는 인화여고 다녔고, 둘째 작은 아버지가 송의초등학교 후문 있는데서 살았고 그래서 이 동네에서 살게 되었어요. 작은 아버지 집에서 15m 떨어진 곳에서 고모와 함께 살았지요.

미추홀구는 그때 어땠나요?

남구청(미추홀구청)은 지금 보건소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는 이 동네가 인천 시내에서는 송의초등학교도 있고, 인천남중학교도 있



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 괜찮은 동네였어요. 그때 남중학교 앞에 집이 있는데 그 당시에 도 2층 집이었다고. 그 집들이 인천에서 알아줬다구. 개인주택이 2층 집이 거의 없었으니까. 짝 붙어서 남중학교 담으로 해서 똑같은 디자인으로 주욱 있었으니까. 새마을주택이라고 해서 수봉산에 지은 집들도 도면 하나로 지었는데 그것도 단층집이었지. 우리 시골집도 똑같은 도면으로 지었어. 중학교 나오고 여기서 살다가 86년에 결혼해서 지금 이 집으로 이사 왔어.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오고, 방학되면 잠깐 들어가고 해서 대청도에 있었지만 집사람을 알지는 못했어. 한 동네하고 너머 동네니까 잘 몰랐어. 여동생이랑 자석식 전화기⁵⁾ 교환수로 일하는 친구를 소개받았어.

당시, 72년도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겠어요.

그때 당시에 미추홀구청도 인천교육대학자리였어. 그 옆에 부속 초등학교 있어서 앞길이 다 학교로 되어 있어서 살기 조용한 동네였어. 자식 공부시키기엔 좋은 동네였지. 작은 집이 있으니까 우리 고모들도 이곳 주변에 자리를 잡았고, 제물포 뒷역은 있지도 않았

5) 음성을 전기신호로 바꾸어 먼 곳에 전송하고, 이 신호를 다시 음성으로 재생하여 상호간의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 전화기의 핸들을 돌리면 발전기가 회전하여 신호가 송출(送出)된다. 자석식 교환대를 사이에 두고 전화교환이 가능하다.

어. 지금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옛날 시골길 역처럼 기와로 이은 역이
있어. 내려서 뒷역 가려면 철도길 지나서 뒷역으로 넘어갔지.

나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나왔으니까 이 동네에 친구도 없고,
학교 갔다가 집으로 오고. 섬이 지금은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 본 게 없었으니까 물정이나 아무 것도 몰랐지. 학교 다녀오면
집에 오고, 집에서도 텔레비도 흔치 않으니까 작은집에서 눈치 보
며 텔레비 보다가 시간되면 집에 와서 자고 하니까 텔레비 갖고 있
는 게 선망의 대상이었지. 어디 다니고 그러지 못했어.

혹시, 사는 부근이나 물길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까치사거리에 개천이 있었지. 폭이 5m 되고, 내가 쓰레빠 신고 뛰
어가다가 쓰레빠 빠트려서 잃어버렸지. 조그만 장천사거리 왼쪽에
있는 ‘까치 식당’이라고 했어. 기사식당을 하나까 까치사거리라고
하면 거기로 왔어.



그 길이라면 수봉산에서 내려온 물줄기 일 수도 있겠어요.

다녔으면 알았을텐데 그건 잘 모르겠어. 까치사거리에서 전화국 쪽으로 물길이 있었어. 깊이는 하수도처럼 평상시에는 바닥이 보였고, 지저분했어요. 양 옆에 도로가 있었으니까 집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 흙길이었어. 내가 중학교 때 그쪽으로 다니면서 친구들과 공부하기 싫으니까 왔다 갔다 했던 기억밖에 없어. 승의초등학교로 직진으로 내려오는 길이었지. 지금도 승의초등학교 쪽이 좀 높았고 여기가 낮으니까 흘렀던 거 같어. 76년, 고2 정도 되었지. 시골에서 할머니가 나왔고, 할머니가 밥해주고 우리 형제들이랑 사촌들이 초등학교 마치고 이리 와서 살았지. 맏이로 여동생 둘이 있고, 막내, 셋째 작은집애 둘도 여기서 학교 다녔고, 막내 작은집 큰아들도 여기서 다녔지.

**맏이로 인천 미추홀구에 자리를 잡고 아이들을 건사하신 거네요.
여기가 말 마굿간이었다구요?**

여기 주차장이 마굿간이었고, 우리 집이 지금은 도로가 났는데 그때는 부광유치원 내려오는 길에 작은 골목이 있다고. 그리로 다녔지. 우리 집은 말죽 찌는 집인데 그걸 개조해서 살았지. 말 마굿간이

주인집 할머니 집이랑 우리 집이 한 폭 정도의 차이거든. 여기 말마
곳간을 막아서 방으로 꾸며서 월세, 전세로 고쳐서 사람을 들였어.
우리 집도 전기선을 보려고 천장을 뜯어보는데 서까래로 큰 소나무
가 들어 있더라구. 기와집 살았지. 주차장 벽으로 보이는 곳은 사택
이었는데요. 관사 같은. 왜정시대니까 왜놈들이 살았겠지.

그럼 말뚝도 개울로 흐르고 그랬겠네요.

우리 있을 때 화장실이 차고 있는데 있었던 말이야. 그때는 밑에
큰 통이 있었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

**인분 모으는 장소가 승의초등학교 옆쪽으로 있었다고 하는 분도
만난 적이 있어요. 수도는 어땠어요?**

우리 집엔 수도 있었어요. 70년대니까 온돌도 구공탄, 십공탄으
로 했고 밥도 거기다 앉혀서 했지. 나중엔 곤로도 놓고 그랬지.

**혼자 외지로 나와서 살면서 미추홀구하면 드는 느낌, 인상이 있
으실 것 같아요.**

우리 시골에는 전기가 안들어 왔어요. 초등학교 되면 호야등⁶⁾을 썼는데 어른들은 손이 크니까 뛰어노는데 불려서 닭으라고 시켰어요. 하계 되면 물로 쭈세미로 깨끗하게 닦아야 하는데 놀 욕심에 신문지 같은 거로 대충 닦고 그랬지. 그런데 여기 나오니까 110V 있니까 초등학교 기억으로는 밤이 되니까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번쩍 번쩍하고 굉장히 깜짝 놀랐지. 그때 당시만 해도 인천시내 중심가가 동인천이었으니까 주안역 있었지만 뒤쪽은 다 염전이었고, 지금 시청있는 곳도 밭이니까. 중학교 가려면 버스 타고 석바위 쪽으로 구월동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오면, 비포장도로에 나무가 엄청 많았고 그쪽은 아주 낙후되어 있었던 곳이었어. 그때 당시는 거기는 촌이었어. 그때는 여기가 학교도 있고, 조용하고 참 좋았어요. 선인재단에 운봉이 있었고, 선인중,고등학교 있었고, 효열 있었고. 거기 학교 있지 여기 교대 있지 굉장히 좋은 학군이었어요.

우리 시골사람들은 독정이 고개에서 많이 살았어요. 거기가 썼거든요. 수봉산도 앞뒤로 판잣집이었어요. 76년도인가 독정이고개 친구네 집에 갔는데 하꼬방집⁷⁾이라고 창틀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방이 두 개인데 골방 같은 조그만 집이었어.

6) 석유를 넣은 그릇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유리로 만든 등피를 끼운 등

7) '판잣집'의 비표준어

그때 당시에 가족과 떨어져서 살기가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방학만 기다렸지. 고등학교 되니까 가기 싫더라구. 시골집에서는 할아버지도 있고 부모님도 있으니까 내려오라고 하는데 딴 데로 놀러 가고 싶었지. 기차 타고 가거나 버스도 있었으니까. 구터미널 엑슬루트타워 있는데 고속버스 있으니까. 동인천도 멀지 않고 했으니까 꽤 발전한 곳이었지. 그 전에는 여기도 밭이었다는데. 미나리밭이었는데. 여기가 산은 아니고 언덕처럼 되어 있으니까 나무도 많지 않고, 판자촌이었어.

물길이 있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내 기억으로는 까치사거리에서 전화국, 고은산부인과 있는 오거리까지 직진해서 가는 길이 생겼으니까. 그 전에는 승의로타리가 는 길밖에 없었으니까. 물길은 잘 상상이 안돼.

**미추홀구가 새로운 터전으로, 동생들하고 자리를 잡은 곳인데 선
생님께는 어떤 곳인가요?**

청소년 시절부터 여기서 살았으니까 시골보다도 여기가 더 고향 같지.

어떻게 다른 곳으로 이사도 안가지고 여기서 사셨어요?

돈이 없어서 그랬지. 그때만 해도 돈 벌려고 했으면 이 집을 팔고, 넘기고 넘기고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 나 같은 경우에는 증식하는게 없었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맘대로 못했지. 내년부터 이주 이야기가 있어. 두산에서 아파트 만든다고 하는데 고은산부인과 자리부터 장천사거리까지, 남중학교 골목까지, 승의초등학교 후문에서 삼각형모양까지 수용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개발된다고. 오래되었어요. 처음에는 동네가 좀 시끄러웠지. 우리는 여기가 집이고, 앞에 주차공간도 있고 안 가면 좋겠어.

시골에서 나와서 이 동네에 살면서 도로까지 가면 아스팔트가 있는데 울퉁불퉁 했거든. 그때는 거기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아주 좁아. 그 당시엔 뛰어다니고 했는데 어떻게 다녔나 몰라. 그런 추억이 남아있는 곳이지. 어디든 가면 먹고는 살겠지 만 50년이 되게 살았는데 새로 또 시작해야 하니까 여기가 좋기는 좋지. 그때 당시 살기 힘들었지만 인간적이었고 아쉽지. 세상이 전부 변하는데 말이야.

고향이시.

옛날 기억에 자꾸 젖어들게 돼

구술자 : 박성희 (63세, 1960년대부터 주안동 거주)

- 채록일 : 2019년 10월 25일(금) 오후1시

- 채록자 : 남희현

- 채록 장소 :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주위에 한 집, 두 집씩 지어진 것 같고. 이게 커진 건 뚜렷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쯤, 아마 그 때 즈음이 아닐까 싶어. 중학교 때 집들이 많이 들어섰던 거 같아. ... 거진 밟이고 논이고, 화교분들도 사셨고. 수영이랄 것도 아니고 물장구 정도지. 차 두 대가 겨우 빗겨갈 정도니까. 고 정도 폭이 될까 말까.”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안에서 평생, 부모님 전 세대부터 6.25 때도, 일제 때도 평생. 지금 말하면 주안사거리에서 신기사거리 가기 전에 살아온 박성희라고 합니다. 주안초등학교가 이사간 곳이니까 우리 사는 집에선 주안사거리에서 학교를 가는데 예전부터 경인국도가 있었고, 예전 이 큰 길(신기사거리에서 주안으로 난 미추홀대로)은 없었고 우리 사는 데는 조그만 언덕이 있어서 그 마을을 지나면 승기천이 흐르고 여기는 전부 논바닥이었어. 우리가 기억하는 건 기억이 뜨문뜨문하고 그 당시 주안초등학교(주안2,4동 재개발구역)가 있었으니까 새미마을이라는 곳에서 우리 동네로 와서 같이 어울려서 넘어가, 신



비마을에서 오는 아이들이 여기 다리를 많이 다녔지. 이름보다는 천다리로 부르고, 그때는 승기천이라고 하지 않았어.

동양장 사거리에서 오는 아이, 동암에서도 오고 논길, 밭길로 해서 학교를 다녔어. 동암이 나중에 3,4학년 때 학교가 생겨 가지고 주안염전 건너서 다니다가 다른 학교로 간 아이도 있었어. 직선도로 없이 재갈이 조그만 언덕을 다녔지. 사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옛날에 가족사진이나 찍으면 찍었지 누가 도로 같은 걸 찍었겠어. 모르지. 사진기자가 있었으면.

학교 가는 거리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참 걸렸지. 실질적으로 성인의 걸음으로도 15분 정도가 걸린다고. 그 당시엔 직선거리도 아니고 꽤 걸린 거지. 57년생이야. 초등학교 저학년, 그러니까 1학년부터 3학년의 기억이니까. 요즘 친구들이 같이 넘어갔으니까 고학년 때는 거기 또 가서 놀지도 않았지. 이 지역이 전부가 스케이트 장이라구. 그 당시에 인천에서는 스케이트장으로 제일 크니까 주변에서, 여기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많이 왔지.

그때 기억하면 어떤 느낌, 생각이 드나요?

없지만 좋았지. 부는 없었지만 놀 거리가 많았지. 어릴 때 무슨 고민이 있겠어. 지금에야 나이 차니까 어떻게 사냐 고민이 있고 그런 거고.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주안2동 일대고, 거기서 학교 가고, 아니면 친구들과 이 일대를 다니시던 기억이지요? 65년에서 68년 사이의 이 근방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새미마을 친구들이 꼭 천다리를 건너서 이쪽으로 오는데 초등학교 동창회도 하는데 이쪽 애들이 만나질 못해. 어디를 이사 갔거나 했겠지. 동네가 전부 개발이 됐으니까. 이쪽도 개발이 되면 나도 이사를 갔겠지만 개발이 안 되는 바람에 남아있는 거구. 예전 그 터는 아니고.

78년도인가 아시안 게임 하면서 큰 도로도 생기고 건물들도 많이 들어서고. 이 큰 도로 자체가. 그전보다 넓어진 거지. 도로 자체가.

승기천 복개공사한 건 혹시 기억나세요?

그건 기억은 아예 안 나지. 이거 크게 된 다음에. 나는 주안역 주변 먹거리들이 많고 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다녔지. 부평 쪽으로도 가고. 농촌 쪽이니까 고등학교 가고 대학갈 때는 잘 안 다니지. 이쪽 (새미마을) 아이들이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변화된 것이 기억나는데 우리는 발달된 쪽으로 다니니까 다닐 기회가 아예 없지.

승기천이 길에 바로 있는 게 아니라 좀 위쪽에 있다고 하셨던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천다리 있는 데라구. 왜냐면 신기시장 있으면 여기가 장화 없으면 못 다니는 길이라고 했어. 옛날에는 이게 5번 버스가 다녔어. 미니버스야. 지금은 대형버스고 어디가면 35인승 그런 거 있는 건데 이 버스가 우리 동네 앞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구릉지 산소가 있어. 여기 한라아파트, 조그만 아파트가 있었는데 여기 철거가 됐고. 논길로 꾸불텅하니 가겠지. 신기시장 종점으로 가는 차가 있으니까. 여기도 직선도로가 어느 정도 되면서 꺾였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화장터가 있었어. 그 당시에는 문학산에 레이다

기지가 있었어. 우리가 옛날에는 이쪽(주안)에서 보였어. 그 당시에 송도 쪽으로 넘어가는 길도 있었는데. 차가 있을 리가 없지. 허허벌판이었으니까.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받으러 가면 허허벌판 한가운데 순복음 교회가 있었어. 팔십몇 년도일 텐데 그 주위가 워낙 발전되고, 터미널도 이쪽으로 생겼으니까. 터미널도 미추홀구 이쪽에 있었는데 나중에 그쪽이 생긴 거지.

그 당시의 기억으로 집들이 있는 사람 외에는 굳이 넘어갈 사람이 없었지. 허허벌판에 논바닥인데 누가 거길 넘어가겠어.

그때 우리 여름에는 주안 염전 가서 수영 치러 가고 그랬지. 더우면 물놀이하러 가자 그러면 그 바람에 (승기천에) 몇 번 가게 된 거지. 그렇게 멀지는 않으니까.

지금도 그 친구들 만나고 계시다고 했는데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그런 거 자체는 크게. 이쪽에서 기억나는 거는 여기서 놀다가 수영하고 그런 것밖에. 놀다가 그 당시 뱀 같은 거 나오면 후다다닥 나오고. 물뱀인 거지.

남자아이들에게는 노는 곳이 지천이었겠어요.

보통 동네에서 많이 놀고, 특히 여기는 또래가 많았어요. 우리 또래가 열다섯 몇 명이 되었으니까. 그게 한 동네가 아니라, 여기 무슨 동네, 이쪽은 무슨 동네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같이 겨울 되면 축구 경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독정이 고개나 수봉산은 판잣집으로 이주해서 온 느낌이 많은데 선생님께서 사신 곳은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위낙 농사짓는 사람들, 터가 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어. 몰라. 나도 어렸을 때 독정이 고개 어디에서 살다가 이사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큰 집이 여기 계속 있었고, 우리 부모님은 잠시 갔다가 오신 것 같아.

주안2,4동 재개발하고 그럴 때 동네 분위기는 달랐겠어요? 오래 있었던 분들이 많았으니까 남다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전에 이사 가고 그랬으니까. 본토 사람들 거의 없지. 내가 살던 동네에 상조회라고 동네 어르신분이 돌아가시면 친목회로 지금도 운영이 되고 하는데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점점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자식들도 떠나가고. 기존 본토 사람들은 없고, 외지 사람들이 이 동네에 찻지.

이쪽 분들은 언제 이주하셨을까요?

초등학교 들어가기전부터 주위에 한집 두 집씩 지어진 것 같고. 이게 커진 건 뚜렷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때 쯤, 아마 그 때 즈음이 아닐까 싶어. 중학교 때 집들이 많이 들어섰던 거 같아. 주안은 인하대가 들어서면서 많이 활성화됐고, 서울서 내려와서 여기서 버스타고 인하대 가고 그랬으니까. 그 바람에 주안이 좀 커졌고, 여기 공단 때문에 먹자골목도 있었고. 구청도 예전에 보건소 자리에 있었다고. 우리 어릴 때도 제일 먼저 있었던 게 구청이었다고.

거진 밭이고 논이고, 화교분들도 사셨고. 수영이랄 것도 아니고 물장구 정도지. 차 두 대가 겨우 빗겨갈 정도니까. 고 정도 폭이 될까 말까.

골목길로 다니다 확실히 여기, 용일사거리 쪽이 넓어진 거는 확실하네요.

내가 기억하는 승기천을 가려면 물길이 세 개가 있었다고. 폭이 좁은, 실지로는 농수로지. 길 쪽이 가장 컸던 거 같은데 논농사 지으려면 여기서 물을 퍼올려야 하니까 그런 개념이지.

친구들하고 어떻게 노셨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스케이트 타고. 그 바람에 군대 가서 스케이트 타고 합숙 훈련도 하고 그랬으니까. 군대 갔는데 부대마다 특성이 있는데 강원도 추운 데 있으니까 그쪽 양구 쪽 있는데 평소에는 축구하고, 겨울 되면 연대별로 시합하고 사단별로 시합하고. 그것밖에 안됐지. 선수는 안되고.

저도 아이 데리고 연수동까지 가서 스케이트 태워주고 그랬는데. 되려 주변에 있었으니까.

그 당시 일반 스케이트 타다가 물러받아 생긴 스케이트 탕던 거지. 여름에는 개울 다리 가서 수영이라는 개념보다는 물속에서 물

놀이하고, 고기 잡으면 잡는 거구 그런 거지.

승기천 기억하면 비가 많이 와야 무릎, 아니면 더 차기도 했다고 했는데.

어려서도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승기천 근처 지나는 애들이 가자하면 가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는 차 있긴 했어. 농수로였으니까.

고기 잡으면 뭐하셨어요?

그때 어려서는 모르니까 디스토마⁸⁾있다 이런 게 아니고 생으로 먹은 거 같아. 큰 거도 아니고 요만하니까. 개구리 잡으면 뒷다리는 구워먹고, 몸통은 닭모이 주고. 이 자리가 대보름 되면 쥐불놀이하지. 이쪽에 탈 게 없으니까 여기서 했지. 옛날에는 짚단을 바깥에 두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갖고 간다고. 집에다 빨감으로 쌓아놓는다고. 동네에 논 있고, 밭 있는대서 하고.

8) 흙충강 이생목(二生目)에 속하는 편형동물의 총칭

기억 떠올리시면서 어떤 기분이나 느낌 있으세요?

근데 그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새미마을 쪽은, 옛날에는 가정방문 같은 게 있었다고. 선생님이 가까운 쪽에 전달(방문)하면, 전달 전달해서 내가 맨 마지막이었다고. 그래서 새미마을까지 넘어가는 거지. 선생님은 집을 모르니까. 그 바람에 새미마을에 세 명인가 친구가 있었는데 몇 번 다녀간 거지. 선생님이랑 이렇게 가면 중간에 녀석들이 놀다가 넘어오면 짹하고 도망가고. 그럼 집에 가면 없어. 옛날 어른들은 밭에서 일하시니까.

그때는 아이들끼리 알아서 먹고 놀고 그랬던 시절이었나 봐요.

옛날엔 밭에 가면 무 뽑아먹고, 당근 뽑아먹고 먹을 게 밭에 가면



있으니까. 쓱쓱 씻어서 별 탈 없이 먹었지. 개념이 없으니까 물고기 그냥 먹고, 누군가는 먼저 먹으니까. 채도 먹으니까 너도 먹어 하나 까 같이 먹는 거지.

여자애들은 같이 안 놀아요?

또래에 남자들이 많았어. 한동네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면서 가면서 옛날에는 여기 뭉쳐있고, 조그만 언덕이 있거나 논밭이 있고, 지금 시골 같은데 가면 몇 집 몇 집 모여 있었지.

만약 물길이 계속 있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복개를 안했다면?

그랬다면 동네가 제대로 살릴 수 있었을까? 물길이 있으면 그 옆에 사람이 다니거나 달구지가 다녀야 하잖아. 물길 옆에는 그래야 여기서 농사 지은 거 집에 가서도 타작하고, 싹고 가야되니까 그 폭은 있었지. 그래야 하니까 달구지 타고 갔던 기억도 나지. 덜덜덜 거리지. 옛날엔 자주 가진 않지만 일손이 모자르면 가기도 하고, 지나가면 어른들이 타라고 하면 타고, 걸어 다니고 뭐하고 하니까.

**마을 일도 많이 하시고, 봉사하시니까 동네를 바라보는 시선이 남
다르실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옛날 기억에 좀 자꾸 젖어드는 것 같아. 생활 자체가
개인사업을 하니까 통장을 하고, 통두레 일도 하고. 점점점 그쪽으
로 가까워진 거지. 생활 자체가. 옛날 생각보다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던 것이 좋았던 거지. 지금은 친한 친구가 서울에 한 명, 성남
시·안산시에 둘, 1년에 두 번 1박2일로 노는 거지. 집은 서울인데
경주에 있는 친구도 있으니까 로테이션으로 인천에서 한 번, 대전
에서 한 번, 경주에서 한 번 그렇게 만나지.

그렇게 만나시면 무슨 이야기 나누세요?

남자들은 얘기보단 술 먹고 당구 치고, 그러다가 옛날이야기 나
오면 옛날이야기하고 그러지. 군대 같이 했던 사람들하고는 군대
이야기하고.

만남 사람하고 꾸준히 만나시나 봐요.

새로운 사람보다는 기존에 만남 사람들 지속적으로 가는 거 같아.

나이 들면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 왜냐면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게 겉만 아는 거지, 나중에 어떻게 해꼬지(해코지) 당할 수도 있고. 내가 그럴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은 겉만 만나지 깊게 만나지 못해. 단막적으로 일이 있어 그때만 만나는 거지 지속적으로 만나지는 못하더라고.

되려 한 시절을 같이 보냈던, 같이 오래 있던 사람이 그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으니까. 추억이 있어야 오래 갈 수가 있지. 군대에서 만난 사람이 서산에 있어. 한 사람이 마침 김해에서 거기까지 가서 동네 마을회관 찾아가서 누구누구 이름 대면 그 사람들 아니까. 연락처를 안주고 그냥 왔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간다고.

요즘같이 시시때때로 하는 일이 전시되는 시대에 색다른 이야기 네요.

38년 전에 만난 사람이니까 잘 모르니까.(웃음) 초등학교 친구는 항상 그곳을 다녀야 했으니까 그곳을 잘 기억할 텐데. 이쪽(새미마을) 사는 그 높은 기억이 뚜렷하겠지. 학교를 가도 전혀 다른 방향으

로 갔을 테니까.

**선생님께서서는 여기에서 계속 사셨고, 지역 일도 좋아서 하셨다고.
선생님께서 미추홀구는 어떤 의미세요?**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자연히 그 자리가 되니까 한 거지. 하다 보니
까 그렇게 되었어. 내가 목적이 있어서 이걸 하겠다 해서 한 게 아니
라 어울리며 하다보니 그 방향으로 간 거구.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한
건 아니지. 내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좀
하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지고 그런 거지.

고향이지. 어차피. 내가 태어나서 군대 생활 외에는 다른 데서는
살지 않았으니까.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미추홀구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우리 집 주위도 그렇고 재개발이 돼서 전부 아파트가 된다고. 이
거는 정부정책인데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 옛날 집, 단독주택
도 수리해서 가게 해야 하는데 아파트 만들어서. 편하기는 하겠지.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울려 살 수 있고 동네에 포장마차도 있고, 조

그만한 선술집도 있고 그게 사람 살면서 얘기하고 그게 좋은 거지. 달랑 아파트만 저 놓고 위아래 오르락내리락하면. 요새 미추홀구가 아파트 단지가 된다는데 그건 포인트가 잘못된 거 같아.

지금 애들은 아파트하고 학원밖에 생각 안 날걸. 옛날보다 갖고 있는 거구 뭐고 풍족해졌는데 아파트별로 차별을 두고 울타리를 치는 거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지. 같이 둥글둥글해야 하는데.

개발도 어쩔 수 없는데 아직까지는 주위에 몇 개가 있는데 기존 있는 데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문화공간을 주던지 그래야 하는데. 사업성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휴식할 수 있는,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투자하는 데는 수익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구에서 좀 하던가.

통두레 활동하실 때 주변분들이 선생님을 많이 신뢰하는 모습 봤어요. 어떻게 운영할 수 있었나요?

내가 운영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한 거지. 나는 앞에서 문제점과 방향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했지. 독단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도 안하지. 통두레는 옛날에 전부 농사를 지었잖아. 지금

이야 트렉터 있으면 얼마 주면 일이 됐지만 모를 심던 쟁기질을 하던 사람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오늘은 누구네 집 꺼, 또 누구네 집 꺼. 친목개념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품앗이 하는 개념이지. 그걸 두레라 하는데 각 동이 통단위로 있으니까 마을에 있는 일을 사람들이 해서 그런 모임을 갖고, 뭘 할 것인지 결정했지. 통장하면서 했지. 한 사람 이사 가고 사람들이 빠지고 있어. 거기서도 뭔가가 나오겠지만. 아파트 들어서면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을 거 같아. 그래야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도 될 수 있겠지. 지금 하고 있는 게(육아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등) 있으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파트 지으면 경로당도 짓고 마을회의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헬스장도 만들잖아. 남보다 우리 아파트 값어치 좋게 하려면 활성화되고, 이런 게 더 좋다 하면 좋겠지. 내가 내 가치를 좋게 받으려면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같이 노력하면 좋지.

미추홀구에는 참 귀한 분이 계세요. 통두레 하면서도 이 인터뷰 하면서도 미추홀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미추홀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애들 보면 저 아이들에게 무슨 추억이 있을까 싶은데. 학교 다녀 오면 학원 가야 하니까. 혼자 있으면 놀 게 없으니까 게임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승기천보다는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생각나고. 우린 80명이 넘었다구. 콩나물처럼 딱 차 있었지. 오전반 오후반도 3학년 까지 했고. 요즘엔 학교 운동장이 없어. 이걸 아는데. 아이들 뛰어다 녀야 하는데. 체격은 커졌는데 몸은 약해. 옛날엔 먹을 거 없으니까 배 꺼진다고 뛰지 말라고 했는데.

승기천의 인위적인 복원이나 현대 건축물은 반대야. 옛 정취가 있는 풀과 흙이 있는 도랑 정도의 복원이면 좋겠어. 어린이나 청·장년 그리고 노인이 어울려 공존할 수 있는 동네로 회귀하면 얼마나 좋을까. 꿈이겠지....

가재 잡고, 싱아 뜯어먹던

구술자 : 박광현 (71세, 1960년대 문학동 거주)

- 채록일 : 2019년 11월 27일(수) 오후7시, 12월 15일(일) 오전 8시 30분

- 채록자 : 남희현

- 채록 장소 : 문학동 호산아파트 인근 카페

“수로에서 여름이면 물놀이 하기도 하고. 첨병첨병하는 거지. 우리 어렸을 때는 꽤 깊었어요. 비가 오면 논둑들이 다 허물어지고 안 타까웠지. 둑도 잘 무너졌지. 다시 해가지고. 비가 와야 농사를 하니까. 내가 왜 이것 기억하냐면 논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주전자 갖고 장다리를 건너서 주전자에 서 막걸리 사오고. 그런 게 있었지. 그래서 장다리라는 데가 중요한 다리였어요.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다리였지요. 술도 사갔지만 거기 대장간이 있어서 일보러 가고. 그래서 기억이 나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이라는 고장에서 3대가, 아니 4대구나. 4대가 살아왔고, 그 기간이 100년이 넘었지요? 49년생 박광현입니다. 누구보담도 많은 사람들이 미추홀구를 사랑하지만 특히 저는 더 미추홀구도, 문학동도 사랑하고. 내가 죽음으로써 모든 후세들에게 남겨 줄 것이 있다면 앞으로도 앞장설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어린시절의 어려움을 갖다보니까 문학산에 애정을 뒀고, 또 애정을 두다보니까 문학산이라는 역사적인 전통을 우리 후세들에게 못 물려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문학산성이 인천광역시기념물 제1호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300만 시민이 비축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문학산성을 국가 지정으로다 해놔야 국가의 돈으로 복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만 하지 옛날 같지 않고. 나이가 이제 먹다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선생님이 4대에 걸쳐 이곳에 살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럼 첫 세대가 몇 년인가요?

우리 외갓집은 부평 이씨로써 파는 다른데 새미 이씨가 있고, 관교동에 신비 이씨가 있고. 거기도 부평 이씨예요. 그리고 학익동 너머에 가면 거기에도 부평 이씨가 있어요. 문학동에도 있고. 파들이 다 달라요. 즐기는 하나인데 파는 달라요. 우리 외가댁은 200년이 넘었지요. 친가, 우리 고조할아버지는 벼슬을 했어요. 벼슬을 하셔가지고 막내아들이어서 이쪽 일대에 땅이 많았나봐요. 신세계 터미널 쪽. 내가 어렸을 때 거기 땅이 있었어요. 논이. 그래서 내가 승기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린시절 거기에서 물장구를 치고 놀았으니까. 그분이 여기서 땅 관리를 하니

라고, 지주지. 여기서 터를 잡게 된 거지. 그 이후로 내가 태어난 거로 생각이 되고. 저는 할아버지를 뵙지는 못했어요. 할머니한테 들었지.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문학이라는 곳에서. 남구가 미추홀구로 바꾸는데 일조를 하기도 했어요. 제가 초선의원(2002년 제4대 남구의회 의원)으로 명칭변경 발의를 하기도 했어요. 동서남북으로 인해서 명칭이 됐었는데 인제는 우리도 주소를 바뀐니까 구도 명칭을 바꾸자 했지요.

이렇게 애정을 갖다보니까 문학산이라는데는 내가 가재잡고, 싱아 뜯어먹고. 싱아는 일종의 풀인데 아주 깨끗한 산에서만, 공기 좋은 데서만 나는 풀인데 그게 지금의 비타민C가 들었다 하나 아주 시고. 그 시절엔 배가 고팠어요. 봄이면 칩뿌리 캐서 먹고 소나무 새순을 찢아서 껌테기를 벗겨서 배고프니 먹었어. 그 당시에는 간식이라는 게 없으니까. 꼭대기를 뛰어올라갔던 게 기억이 나요.

어릴 때면 언제의 기억인가요?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이에요. 62년도에 초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62년도에 졸업사진을 찍었어요. 운동장에서 사진을 찍는데 저쪽, 문학산을 바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시절에 헬리콥터가 와서 앉은 거야. 그 당시 자동차도 못 보는 시절인데 헬리콥터가 오니 얼마나 좋아. 우리 전교생이 전부 뛰어올라갔을 거야. 그때만 해도 저 사람들 왜 왔는지, 미군부대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비행기가 왔으니 까 그냥 쫓아갔던 기억이 나고.

미군이 들어오면서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저게 산이 깎아진 거야. 10m가 넘게 깎인 걸 거야. 옛날에는 봉우리에, 멀리서 보면 무덤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인천시내 사람들은 배꼽산이라고 그랬어. 무덤같이 둥글게 있어가지고 멀리서 보는 사람은 배꼽산이라고 그랬거든. 인천 시내 소풍을 여기로 왔어. 우리는 송도 산으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추억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성장을 해도 거길(문학산) 갈 수가 없는 거야. 미국이 철조망을 다 하니. 철조망까지 가면은 내가 철이 들고 문학산성이 보이잖아. 산을 깎다 보니까 화약을 넣고 폭파를 시켰어. 그러면 문학산성의 바위가, 집채만 한 바위덩(들)이 많아요. 그게 다 동네로. 그때만 해도 산꼭대기에서 화약을 터뜨려서 폭파를 하면은 동네사람들이

위험하니까 “남포, 남포” 소리를 질렀어. 그러면 동네사람들이 집에 가서 숨던지 그랬어. 폭파를 하면 큰 것도 떨어지지만 작은 것들은 동네까지 떨어지니까. 길거리에서 맞으면 큰 사고가 나니까.

근데 저렇게 미군이 한 50년 주둔을 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내가 나이가 들었던 말이야. 민주화가 돼서 그때만 해도 난 정치에 꿈도 없었어. 그냥 오직 내 고향에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쉬움이나 문학산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자라는 과정이 올바르게 자라질 못했어. 사춘기라 그럴까. 사춘기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춘기에는 남이 안하는 못된 짓은 다 했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한 것은 아니고. 젊은 시절 혈기에 대한 과시라 해야 할까. 괜히 애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주먹질하고, 여기서 동인천 신포동, 하인천 피난민들이 억세었거든. 부모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애들은 내동맹이치니까 애들은 몰려다닌 거야. 내 자식이 크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뭘가는 놓고 가야겠다 생각한 거야. 누구 자식하면 “저거 맨날 꺾떡대던 누구 자식이야” 하는 거

보단 “그래도 누구의 자식이야”라고 들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좋은 일만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라는 게 생겨가지고 정치권에 발을 놓게 된 거야.

군대 갔다 와서 가정을 갖고 애를 낳고 보니까 고계 한 30대 초반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를 해야겠다 싶어서 지역의 많은 일을 내가 했어요. 문학동이 인구가 천 명도 안되었어요. 다 토착 사람이야. 누구네 젓가락이 몇 개, 누구네 생일도 알 정도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못하겠더라구. 그 사람들이 나를 알잖아. 내가 그래서 열심히 했어. 옛날에 초상이 나면 상여를 땀어요. 누가 돌아가시면 마당에 체를 쳤는데 내가 앞장섰어요.

내가 동네일을 하다보니 역사적인 것이 내게 어떻게 왔냐면 우리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책에 보니까 문학산성이 나온 거야. 사회생활인가에 문학산성이 나온 거야. 내가 그걸 봤어. 내가 그때만 해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

산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산성을 보러 가니까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민간인은.

어린 시절엔 칠파리도 먹고 싱아도 먹던 그곳을 못가게 되신 거군요.

그렇지. 이 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그 근처를 못가는 거야. 안타까운 거지. 민주화가 되면서 문학산 저기에 올라가야겠는데 내가 혼자서 여기서 서명 받고 그랬어요. 시민단체가 와서 협력하자고 왔더라구. 난 시민단체가 뭔지도 모르고 저거(문학산 개방) 하는데 좋은 거니까 토론회도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의원이 되면서 문학산 파트에서 일하다 보니까 1년에 두 번씩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때는 미군은 없는데 허가를 받아서 구석구석 가게 되더라구. 가서 보니까 다 깨졌어. 문학산성이 다 무너졌어. 옛날에 내가 기억하던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옛날에 물 나왔던 자리도 없어.

문학산에서도 지류가 흘러 승기천으로 내려왔을까요?

내가 알기로는 승기천은 하나의 개울이야. 큰 개울도 아니고, 그 독쟁이(독정이) 쪽에서 조그맣게 내려오다가 동양장 외서는 큰 하수도라 해야 하나 아주 큰 개천이었어요. 동양장사거리 있잖아요. 옛날엔 그게 장다리라고 했어요.

동양장사거리에 승기천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장다리라고 했어요?

그게 석바위로 가는, 장다리를 지나 이 도로로 가면 석바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걸 장다리라고 했어. 그때는 동양장이 없었고 거기는 논밭이었으니까 마차가 다닐 정도의 다리였어. 그러니까 다리, 장다리라고 했어. 이쪽은 관교동이고 장다리를 넘으면 주안이야. 석바위사거리 쪽으로 해서 여기가 산이었어. 석바위사거리에서 구월동으로 가는 절이 하나 있어. 그게 장다리해서 절로 갔어. 절 밑에 대장간도 있었고. 그러니까 주도로니까. 지금은 관교동이라고 했지만 그때는 신비라고 했어. 장다리를 지나서 글루(그리로) 가다 보면 주도로가 되다보니까 대장간도 있고, 술집도 있었고, 지금의 절도 있었던 거야. 동양장사거리는 변화가 오면서 생긴 거구 옛날엔 장다리라고 불린 거지.

선생님 그럼 그때가 몇 년도일까요?

그 전에도 있었던 거지. 여기서 그쪽으로 갔을 때는 어렸을 때야. 신비, 관교동 아이들이 승학산 넘어서 문학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내가 기억하는 것은 내가 어려서 우리 순복음교회 앞에 중앙공원
그쪽이 우리 땅이었어. 논이었어. 관교동 개발이 되기 전에 먼저 순
복음교회가 논 한가운데, 길도 없을 때 들어왔어. 거기에 독이 있었
어. 큰 독이 있고, 개울은 아니고 아주 큰 저수지라고 해야 하나 그
게 있었어. 승기천 물줄기가 이쪽으로도 같이 돌았으니까 그 물로
농사를 지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동양장에서 인천시청 큰 도로로
해서 이쪽으로 빠진 거 아니에요.

선생님 댁은 어디신 거지요?

우리집은 문학동이고, 농사 때문에 다닌 거야. 인천시청은 예전
에 다 배밭이었어. 이제 다 개발되었지만. 신세계, 남동경찰서 있고,
농수산물 있는데 조그만 마을이었어. 석말이라고. 그 마을로 가는
다리도 있었어. 그것도 마차가 다닐 수 있는 다리였어. 가구수가 많
지는 않았어요. 한 열댓 가구에 양지바른 동네였어.

그 다리 이름도 있었어요?

석말이라는 동네 있으니까 석말다리라고 그랬겠지.

승기천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수로에서 여름이면 물놀이 하기도 하고, 첩병첩병하는 거지. 우리 어렸을 때는 꽤 깊었어요. 비가 오면 논둑들이 다 허물어지고 안 타까웠지. 둑도 잘 무너졌지. 다시 해가지고, 비가 와야 농사를 하니까. 내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눈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주전자 갖고 장다리를 건너서 주전자에 서 막걸리 사오고, 그런 게 있었지. 그래서 장다리라는 데가 중요한 다리였어요.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다리였지요. 술도 사갔지만 거기 대장간이 있어서 일보러 가고, 그래서 기억이 나지.

동양장은 개발이 되고 한참 있다가예요. 동양장이 뭐냐면 여관이에요. 그건 아주 뒤예요.

또 다른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거기 대장간 있고, 술집 있고, 솜틀집도 있었고. 거기가 주도로다 보니까, 석바위도 옛날엔 흙이 빨개서 비 오는 날이면 첩병첩병 논밭이라고. 간석 전화국 앞쪽으로 옛날엔 벽돌공장이 있었어요. 빨간 벽돌있죠? 거기서 찍어냈던 거예요. 우리 외사촌이 거기 사셨는

데 빨간 벽돌공장 공장장이었어. 그래서 내가 거기 많이 갔어. 시멘트블록 나오기 전에는 빨간 벽돌을 썼지요. 거기에 토박이로 살고 있는 친구도 있어. 그쪽은 그 사람이 잘 알거야.

가을에는 참게도 나왔어. 참게라는 건 민물에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농수로에 있었던 말이야. 강아지풀을 달랑달랑 하면 요놈이 딱 물어. 그걸 잘 잡는 애도 있었어. 그래서 우리 문학에 손주들 데리고 문학산에 데리고 가는데 가재가 있었던 말이야. 옛날에는 개울에서 빨래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만큼 자연이 살아 있었던 말이야. 문학산에 결혼하고 첫 애 낳았을 때만 해도 송이버섯도 있었어. 비만 오면은 버섯 따려고 산으로 올라갔어. 그만큼 자연이 좋았어.

그리고 이 승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림도 그리고 자연생태계도 내려다보고 그랬어. 정확하지는 않은데 산꼭대기 올라가서 인천에서 서울까지 마라톤을 하는데 그걸 산에 올라가서 봤던 기억도 나. 초등학교 때인가. 이 승학산이 인천 시내 사람들의 놀이터였어. 승학산 둘레길을 내가 현역에 있을 때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다 해놓고 정치 그만뒀는데. 승학산이 약수터라고 그랬어.

물줄기가 풍부했었어요. 샘물도 많고, 두 군데에서 샘물이 나왔는데 위에 샘물은 마시는 샘물이고 아래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과일 같은 거 넣어서 먹고 그랬어요. 이 물이 내려서 승기천 하고도 만났을 거야. 이 물줄기를 돌려서 도호부청사 옆으로 흐르게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어. 도호부청사에 오는 관광객이나 모든 거를 물줄기가 흐르면 생태계가 사니까. 이 물줄기가 생기면 반딧불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역사와 문화를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느끼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문학산에 고속도로도 아쉽워요. 여기든 거기든 생태계를 살리면 좋겠어. 옛날 장수벌레도.

미추홀, 살아지다-2
승기천을 기억하다

4) 그때의 우리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산다 했던 독쟁이”

_김갑성, 김연수

“수초도 자라고 흐르는 물이 흐르던” _이현준

“동네 형들하고 붕어잡고 미꾸라지 잡고” _고병선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산다 했던 독쟁이

구술자 : 김갑성 (70세, 1970년대부터 용현동 거주)

김연수 (74세, 1950년대부터 용현동 거주)

- 채록일 : 2019년 10월 17일(목) 오후2시

- 채록자 : 문성애

- 채록 장소 : 용일자유시장

“애들이 졸업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중학교 저기 남자중학교
잖아요? 그럼 졸업식 때 가. 가가지고 뭘 가져가냐면 그때는 밀가루
가 귀했잖아요. 엄청 귀했어요 밀가루가. 그러면 밀가루를 사요. 봉
다리 요만큼씩 사서 가가지고 졸업식 날, 불러요. 부르면은 밀가루
세례를 받는 거예요. 밀가루 세례를 받으면 안털고 사진찍고 놀아요
같이. 거기서 밀가루 세례를 받고 같이 밥을 먹고, 승기천에서 그걸
다 닦아내는 거예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연수)김연수예요. 올해 48년생.

(김갑성)김갑성 통장입니다. 올해 50년생이예요.

그럼 여섯 살부터 인천에 사신 거예요?

(김연수)예. 여섯 살.

자금은 그럼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김연수)자금은 뭐 안해요.



김연수(좌), 김갑성(우)

인천에서 계속 살고 나고 하신 건가요?

(김연수)인천에서 난 건 아니고, 난 건 충남. 나가지고 저기 작은 아버지가 여기 인천에 사셨지. 사시면서 내가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인천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인천을 내가 왔지. 그래서 작은아버지 집에서 쪽 있었지. 그전에는 호적이란 건 거 가있고 나만 와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지 작은 집에서. 그래서 보면, 내가 인천중학교 인천체고 나왔거든요. 체육고등학교가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인천체고가.

네. 인천체고 나오신 거예요?

(김연수)경기시가 있을 때 인천에는 체육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월까지 가야 돼요. 운동을 하려면. 공부는 하다 말아서. 하려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공부를 왜 못했냐면, 기숙사가 있잖아요. 기숙사에서 자고 운동만 하지.

그러면은 그때 당시의 승기천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이 있으세요?

(김연수)예, 승기천에. 나는 생각나는 것이 그 개천 물. 그리고 저쪽에 방죽.

방주?

(김연수)방죽이라고 저수지.

(김갑성)충남에서는 방죽이라고 그래요. 물을 가둬놓고 물을 주기적으로 내보내서 농사짓게 해주는. 방죽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투리고 여기서는 저수지라고 그래요.

(김연수)여기(주안사거리) 보면, 대로가 지금 다 고속도로가 있는 자리에 쪽 내려가다 보면 개천이 있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아줌마 할머니들이 빨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동네에 우물이 대 여섯 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우물이 있는 데가 딱 한 개 있었는데 그 집도 우물이 없어졌어, 밀어버렸어요. 우물이 서너 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빨래를 해가지고, 개천 아래서 인하대학교 그 줄기로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김갑성)물줄기가 두 개가 있었어. 하나는 송도로 빠져나갔고, 하나는 신기촌으로 빠져나갔어, 두 군데야.

승기천이요?

(김갑성)그전에는 우리가 70년대에 내가 여기로 와서 예비군 훈

련받으러 갈 적에 문학산으로 걸어서 갔어. 그때는 차가 별로 없어서. 걸어서 그 신기촌 위 개천. 개천 독을 타고 걸어가서 교육받고 다시 독을 타고 이리로 왔어. 그래서 예전에 예비군 훈련받으러 간 사람치고 거기 독 안 밟은 사람 없어.

(김연수)원래 이 길이 그 길이 아니고, 여기 올라가면 또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원래 이차선이에요. 이 도로가 없었어요. 이 도로 공사하는데 십오 년이 걸렸어요. 거기 가면 저수지가 있는데 신기촌 그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는 사과 밭, 복숭아 밭, 배 밭 이런 거야. 그러면은 저수지에서 놀다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은 꼭 돌아다니면서 따 먹었지. 옷을 입으면 걸리니까 옷통을 벗고. 원두막에서 쳐다보고 굴르지는 말라고 그래요. 애들이 굴르면 다 끊어져 버려. 과일이 다 베려버려.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잡히나? 도망가 버리면 모르지.

(김갑성)그 승기천 그 개천이, 폭이 얼마나 기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150m? 폭이 여기서 저쪽을 쳐다보려면 한참을 쳐다봐야 돼요.

(김연수)수영해서 가고...

수영해서 가야 돼요?

(김갑성)물 찻을 적엔 그렇고, 우리 예비군 받았을 적에 물이 별로 없었을 적에는, 그 아래다가 밥도 해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영등포, 목동 마냥. 울목동에 있는 천이 엄청 폭이 넓어서 200미터는 넘을 거예요. 엄청 커 이쪽에서 저쪽에는 소리도 다 안 들릴 정도로. 이쪽에서 저쪽 독으로 전달할 적에 길어서 잘 안 들릴 정도야. 상상을 못하지 얼마나 컸던지. 천이.

천이 그렇게 컸어요?

(김갑성)이건 그냥 한마디로 배도 몇 개씩 한 번에 들어올 정도로 폭은 컸어. 그러나 점차적으로 물이 적고, 그 옛날에 그 양이 되었지만 물이 흘러가는 용도가 양쪽으로 갈라서기 시작한 뒤로 물이 줄어든 거지. 그때는 내려와서 거기서 놀기도 하고, 거기다가 배추도 갈아먹은 사람도 있고, 가세, 가운데에는 이렇게 파졌지만 물이 흐르지만, 그 옆에를 쭉 가면서 양쪽은 넓잖아. 가운데는 물이 줄줄줄 흐르지만 양쪽에는 곡식 같은 것도 가로막고 그랬어. 그런데 장마 쳐서 떠내려가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남의 땅 아냐. 농사지어먹고

그랬어. 엄청 컸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해.

**그렇게 크면 여기다가 이제 곡식하고 여기 물이 이렇게 흘렀던 거
예요?**

(김갑성) 그렇지. 이 주변에는 독이 있잖아. 독이 보통 한 15~20미터 정도 돼요. 위로 올라가는 독이. 내려오면 독에서 내려오잖아? 내려온 다음에는 밭같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가면 또 폭 꺼져. 단계별로 층층다리마냥. 또 폭 꺼져서 거기는 개천이고. 거기는 개천인데 안에서도 개천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갈라지고. 저기서도 조금 흐르고 여기서는 또 흙이 쌓여서 이렇고. 또 여기는 흐르고. 이게 참. 옛날에는 지금처럼 기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파헤쳐 제대로 만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큰 물 나와서 쓸어가면 쓸어간 데로 그냥 놔두니까. 쓰레기만 줍지 그냥 놓아두니까 개판이었지 한마디로.

(김연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이 있잖아 용현동. 이게 산이 원래 용머리에요 용머리. 줄여서 용현동이라고 한 것이지 왜 그러냐면 이 산이. 지금 월미도가 여기 월미도잖아요? 그럼 월미도 뒤에 저쪽으로

보면 철로가 나면서 일본애들이 이걸 다 잘라놓은 거예요. 일본애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방죽이 양쪽이 여기가 발이 돼요 꼬리. 방죽.

저수지가 이렇게 돼가지고 저수지가 신포동 쪽으로 많이 가요. 신기촌 쪽으로. 왜 신기촌 쪽으로 많이 내려 가냐면은 돌산이 그쪽에 있는데 인가가 있어서 사람이 조금씩 살았어요. 한 50여 가구가 살았는데, 우물물도 되고 그제. 왜 그러냐면 그 물이, 자기들이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물을 그래서 빨래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여. 지금 생각해보면 아프리카 사람들, 그것보다 더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 질병이 생기면은 마을에 한꺼번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완전 마을에 애들이 다 죽어요. 돌머리 병이라고 그랬지.

(김갑성) 시커멓게 막 몸에 나가지고 얼굴도 그렇고.

(김연수) 그걸 굵잖아 굵으면 그제 곰보가 되잖아.

(김갑성) 지금 예방주사 맞는 게 그거여. 홍역이라는 게. 한 살 먹었을 적에 걸리면 죽어. 옛날에는 약이 없어서. 그래서 호적도 일 년이 년 기다렸다가 올렸어. 하도 죽으니까.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잖아, 그러면 올려야 되잖아.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도 잘 죽으니까, 안 걸려서 살아 있으면은 올리고, 죽으면 그냥. 호적 올려놨다가

죽으면 또 지워야지 그러니까. 일 이년은 보통 생일이 늦은 게, 출생 신고가 늦은 게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애 딸 낳았어 이름 지어줘 봐 그러면 이장이 알아서 지어주고, 그렇게 써 주면 이름이 된 거고 그랬어.

(김연수)그리고 여기가 보면은 구월동 있잖아요. 지금 체육관 체육 운동장 있는 자리인가? 거기가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가 왜 공동묘지가 됐냐면 홍역 돌머리가 많이 오니까. 거기다가 애기들은 묘를 못 쓰니까 옛날부터. 그냥 그렇게 묻는 거여. 그래가지고 어른들도 죽으면 모이고. 왜 그러냐면 돌이 별로 없고, 모상⁹⁾이라고 흙이. 이게 다 줄기예요. 용현동 줄기. 산줄기라 거기다가 묻고 묻고 하니깐 그게 공동묘지가 되어버렸어 하나의 땅이. 용현동이 그랬어요. 높은 산이 아니더라도 야산 정도는 됐지.

(김갑성)여기가, 산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 지역 자체가 높아. 그래서 판 데 얽은 지대를 보면 공원 자체를 보면 별로인데 바닥 면적으로 높이를 재면 높은 거예요. 여기가 독쟁이(독정이) 고개지. 독쟁이(독정이) 고개 저쪽 동인천에서 지금 구청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 전에, 차 같은 게 거울에 못 올라왔어 미끄러워서. 하도

9) 지반 위에 있는 자연의 소산물을 지반과 구별하여 이르는 말, 산림이나 원야의 수목, 풀 따위를 이룸

높아서. 그래서 그전에 버스가, 택시가 버스였어. 옛날에 지프차 같은 게 그게 버스였어. 그거 타면 돈 내고 얼마씩 타고 왔거든. 그게 고개 오를 적에 그게 차가 가다가 서는 거야 못 올라가고. 그래서 뒤에서 세네 명이 내려서 밀었어. 밀으니까 올라가는 거는데 그 차 바퀴에 흙 같은 것이 옷으로 다 튕 거야. 그래도 아무소리 않고 툭툭 털고 고개 올라가서 조금 타고 요만큼 내려와서 돈 얼마씩 받는 거야. 그전엔 그랬었어. 그러다가 구에서 길을 깎았지. 고개를 몇 미터를 깎았어. 수봉공원에서 여기 은석교회 있지,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게 하나의 길이었어. 그걸 다 깎아버린 거야. 옛날에는 여기 용현파출소 거기가 한 25m 되지? 이렇게 45도로 경사가. 이렇게 칭칭다리¹⁰가 이렇게 되어 있어. 거기를 올라 다니고 옛날에는 통행금지가 있어서 밤에 열두시 넘으면 잡혀가고 그랬어. 파출소로. 지금 용현교회가 바로 그 자리야. 지대가 이렇게 너무 굴곡이 많아. 높았다가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김연수)용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계곡이 생긴 거야. 용머리라 부르고. 원래 용머리라고 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뀌었지. 어디가 용머리냐면 지금 현대 유비스병원. 그 자리. 거기

10) 층계의 방언

도 산줄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계곡이 있고 저 쪽에도 계곡이 있고. 그렇게 보면 위에서 차에서 이렇게 보면 꼭 용 같이 생겼대요. 이것이 끝으로 저 구월동까지 뻗힌 거예요, 꼬트리가.

저는 승기천이 그냥 계곡물처럼 조금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네요.

(김갑성)그렇지 않아요. 이게 넓이가 여기서 자그마치 여기서 계산 하면 도로 폭보다 컸어. 천이라고 하지 승기천. 옛날 개천인데 개천이 넓이가 자그마치 여기서 소리 지르면 저기서 안 들릴 정도로. 무슨 말을 해도 있는 건 조그맣게 사람이 보이는데 그 정도로 넓었어, 엄청.

그러면 건너려면 수영해서 갔어요?

(김갑성)물 차면 수영도 잘하는 사람이 해야 건너가지. 거리가 길어서. 그런데 우리가 할 적엔 그렇게 물이 안 찼어. 그냥 중간중간에 얇은 데로 물이 흐르는 것만 봤어. 우리 예비군 훈련받을 적엔. 거기로 걸어가니까, 순전히 걸어만 가야 하니까. 그래서 문학산 위로 올라갔잖아 거기서. 문학산으로 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예비군 교

육장이 있어. 거기서 예비군 교육 세 시간 네 시간씩 받았지 받고.
역시 밤에 저녁때에 다섯 시쯤 끝나면 내려왔어.

그러면 승기천에 관해서 혹시 에피소드나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김연수)응.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학교가 여중학
교가 거기 있어요. 그 지금 아파트 짓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학교
가 하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졸업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중학교 저기 남자중학교 잼아요? 그럼 졸업식 때 가. 가가지고
뭘가져 가냐면 그때는 밀가루가 귀했잖아요. 엄청 귀했어요. 밀가
루가. 그러면 밀가루를 사요. 봉다리 요만큼 씩 사서 가가지고 졸업
식 날, 불러요. 부르면은 밀가루 세례를 받는 거예요. 밀가루 세례를
받으면 안 털고 사진찍고 놀아요. 같이.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되잖어?

그쪽으로 식당 같은 것도 좀 있었고. 국밥집도 있었고 짜장면집,
짜장면이라고 해서 지금 자장면이 아니고 옛날은 손으로 빼고, 된
장 있잖아요. 된장으로 짜장을 부는 거야. 그러면 졸업식날 글루(그
리로) 가는 거야. 자기 어머니 아버지 돈 있는 사람들은 우리 딸 줄

업식 했으니까 친구들 먹어라.

그런데 제가 여쭙본 건 승기천 관련해서의 에피소드였는데요?

(김연수)그거예요. 그쪽에 그런 게 있었어요.

승기천은 이제 물에서. 그럼 거기서 밀가루 세례를 받고 같이 밥을 먹고, 승기천에서 그걸 다 닦아내는 거예요.

(김갑성)이게 실제로 물이 매일 이렇게 많이 흐른 게 아니고, 비가 요샐말로 장마 저서 많이 내려올 적에 물이 많이 차서 내려갔고. 요즘말로 가뭄 오듯이 비가 안 오면은 아까 그런 식으로 조금조금 얇은 데만 졸졸 흘러가는 거고. 그렇게 된 거야. 천은 엄청 커. 우리 상상보다 커.



(김연수)도로로 치자면 거의 팔 차선이에요.

그럼 복개사업했던 것도 다 보셨어요?

(김갑성)사람들 못 들어 가게 했어. 거기 위험하다고. 차들도 많이 다니고.

(김연수)칠월 칠석 날 그때가 물이 제일 많이 들어올 때야.

(김갑성)바다랑 연결되니까, 여기가 더 그렇지 여기가. 용현5동 쪽. 그 하천이 바닷물이 바로 연결되잖아.

지금도 여기 공원에서 내려오는 물이 여기 우리 집 가는 길 있잖아요, 시장 가는 길 용일시장 가는 길. 거기 가다 보면 집 새로 지으려고 부숴놓은 데 있지? 거기 골목길이 있어. 거기 골목길에 유성여인숙이라고 있거든? 그러면 거기가 하수도 구멍이 뚫렸어요. 거기서 싸아 내려가 지금도. 지금은 그렇게 소리가 크지 않는데 장마 지잖아? 그럼 대단하지도 않아 겁나 물소리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 그계 하천이 다 그리로 내려갔던 물이야.

한 사 년 전인가 비 많이 와서 용남시장이 넘치고 한 계. 그 신기촌 거기 내려가는 지하수가 미처 동양장에서 관교동으로 바로 뽑아

내는 발전기가 있더라. 뺏아서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발전소가 있는데. 그 발전용량이 물이 너무 많이 오니까 감당하지를 못하니까 하수도에서 솟구친 거야. 몇 군데서 쏘지. 그럼 얇은 데에서 내려가지를 얇으니까 막히잖아. 그럼 하수도 구멍 뿡뿡 뚫어져 있지. 그 위로 용솟음쳐서 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용남시장도 물난리를 친 거고. 또 여기 신기사거리 그쪽으로 동양장사거리 그 쪽으로도 물난리를 친 거고. 하수도에서 올라왔으니까.

이게 못 내려가면 위로 솟구치거든 그게 무서운 거야. 이게 양이 많은데, 준비된 시설물은 약하니까. 그게 흘러 내려가면 괜찮은데, 미처 그걸 받아서 내려갈 용량이 적다 보니까 솟구쳤던 거야. 그래서 그게 당시 바로 여기 용일시장이야. 구청장님, 동장님 나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동장이 보고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거 참 골치 아프게 됐네요. 발전용량 하나 늘려야 되는데. 근데 이걸 늘렸다고 저번에 나오데. 그거 만들고 나선 안 막혀. 그거 저번에 보고 언젠가 우리 앞에서 얘기하던 약속 지켜주나 했지.

(김연수)이게 문학동에 있잖아요, 신기시장 있죠. 거기랑 연결됐

던 거예요 연결돼가지고 셋고랑으로 빠져야 되는 것이 그놈이 나와
가지고 돌산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큰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고. 거
기 물이 옛날에는 수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돌로.

(김갑성)이게 물난리가 나면 직책 가지는 분들 걱정이 많잖아. 민
원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때 걱정을 무진하더라고. 허긴 해야 될
텐데 저게 떠보내는 용량이 적어서 그러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용량을 늘리면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번에 문자 온 거 보니
까 그거 했다고 이번에 한다고 예산 잡혔더라고.

아까 얘기했지. 그 개천이 쪽 가면 종점이라는 것이 있어 그 종점
에서 그 너머는 물이 넓어(높아). 물이 가다가 중단하는 거지. 물을
어떻게 해야겠어(해야겠어). 기계를 놓고 발전기를 놓고 퍼 올리는
거야. 퍼 올리면 거기서부터 허들고개만 넘어가면 저절로 흘러가는
거지. 그게 바로 동양장 앞이 거기다가 해 놓은거야. 거기가 용량이
적어서 그때 용납시장이나 그때 물난리 친게 용량은 비 오면은, 장
마 지면 수봉공원이나 일대에서 물밀어놓은게 다 거기로 가. 지금
도 개천이 있어서 양쪽으로 엄청 내려간다고. 소리가 짹짹 바
닷가 가면 그러는 식으로. 물이 엄청 소리가 심해. 그러니까 용량

이 엄청 많다 보니까 미처 빨아내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난리를 쳐서
인제 그거를 한다고 했으니까 하면은 물난리는 여기는 없어질 거야.

**그러면 승기천이 예전에는 그렇게 보니까 용현동 자체가 굴곡이
막 있었고 지형도 높낮이가 있었으니까, 승기천 역시 어디에는 물
이 모이고 어디에는 말라 있고?**

(김갑성)아까도 얘기했잖아. 신기촌이 엄청 넓어서, 그렇게 자체
적으로 뚝에서 내려가면 거기는 넓은데 아녀. 거기는 물이 없어.
밭으로 뭘 심어 먹을 수도 있었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가운
데쯤 들어가면 움푹 파진 데에는. 움푹 파졌잖아. 거기가 그만큼
넓은 거야.

그러면 물고기도 있었어요?

(김연수)고기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저거는 있었어, 붕어.

미꾸라지 잡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김연수)붕어도 잡았지 거기서. 왜 그러냐면 그 그물을 못치고. 밀

물과 썰물이 닿는 데는. 많이는 안 들어와요 (물고기가) 강으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들어올 때 넘쳐버려. 지금 뭐라 그러냐면 만조 때와 장마가 같이 맞아버리면 물이 넘쳐버렸지. 그런데 워낙 깊으니까 그 깊은 데를 다 메꾸려고 사람들이 산도 다 깎아서. 산을 다 깎아서 메꾼 거야 문학동 거기 있잖아. 돌산을 다 깎아가지고. 그래서 강을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산이 많이 없어진 거야. 구월동 아파트. 10층 아파트. 그렇게 잘라져 버린 거야 다.

그러니까 산을 깎아서 강을 메웠다는 건가요?

(김연수)옛날에는 여기 월미도보다도 좋은 놀이공원도 있었어요. 동물원도 있었고. 여기가. 놀이 시설이 되어 있었어요.

어디가요?

(김연수)저 쪽으로 가면은 되게 넓어요. 거기에 뽕글뽕글 돌아가는 것이 있고 그래서 소풍을 그리로 많이 갔어요. 그쪽으로. 월남 참전용사 동상 지었던 자리.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다 보여 그 근처가.

거기는 미추홀구가 아니지 않아요?

(김갑성)다 남구(미추홀구)야.

중간에 다리를 건너서 저쪽으로는 송의동이고, 저 고개 있지 꼭대기 올라가서 그쪽으로는 용현동, 도화동, 주안동, 주안2동도 있어. 좁은 공원이 동이 모두 네 개예요.

(김연수)여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 때. 밀가루 묻으면, 교복 입은 채로 거기로 가요. 거기 가서 그냥 물장구치고 노는 거야.

(김갑성)옛날에는 어디든지 물만 있으면 놀았지.

(김연수)애들은. 물장구치고 놀아서 나와 가지고 집으로 가면 난리가 나잖아.

(김갑성)지금 우리 집 옆에 있지 물이 얼마나 난지 거기 옛말이 있잖아. 우리 동네가 뭐가 있어 옛날에. 독쟁이(독정이)가 뭐 있어도 살고 뭐 있어도 산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독쟁이(독정이)에서는 부인이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바닥이 흙탕물이면 구두 신어봤자 1분도 안 돼서 흙탕물이 되어 버리니까 장화를 신고 다녔어. 그러니까 마누라는 없어도 아쉬운 게 없는데, 장화가 없으면. 걸어 다니려면 옷이고 뭐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옛말이) 그래서 유래가, 동네가 옛날에 풍습이 말이 나온 게,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이게 독쟁이(독정)이야.

그만큼 여기가 물이 많고 옛날에 펌프 같은 거 많았잖아. 지하수가 많이 나와서, 지금도 나와. 우리 그 지하수 한번 파봤거든, 서른 몇 드럼 나와. 두 시간씩 펴야 돼. 그래서 다음날 또 실험해봤어 다 푸고 시간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하나까 삼십몇 드럼이라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다음날 얼마나 잤나 본다고 또 푸니까 역시나 똑같이 나와 서른 몇 그람인가. 연속으로 퍼도. 우리 거기 용일시장 안에서만 퍼 거야.

그런데 그 옆집 쪽으로 거기는 지하실을 방수 잘못하면 물바다여. 그 옆집도 지하실이 물바다가 된 게 모타가 고장 나면. 물을 못 퍼보 내면. 그 30평인데 의자하고 책상하고 똥똥 떠다니고. 겁나서 못 들어가. 튜브를 갖고 들어가야 돼(농담) 짹 차 가지고.

그걸 보고 거기가 높은 텐데도 믿거나 말거나 물이 계속 나와 지금도. 참 자연이란 게 무서워. 거기가 지대가 높아서 높은 데거든. 물 나올 데가 없잖아. 그런데 물이 거기서 어디서 그렇게. 다른 데서

빗물이 들어와야 물이 나올 텐데.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그렇게). 그것도 거기가 옛날에 밭하고 논이었거든. 우물도 있었고. 엄청나게 그제 물이 많이 나와 거기가. 그 물이 옛날에는 하수도도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땅바닥에 흘러내려 가는 거야. 흘러내려 가다 보니까 바닥이 비 오면은 바닥이 더 형편이 없고 마를 새가 없으니까,

그제 내가 양복점을 가도 이틀이면 허다하고 진열장을 닦고 있어. 물이 튀어가지고 진열장이 다 흠이. 요새는 시커먼데, 옛날에는 흠이라 빨겠어. 다 황토 흠이야 여기가. 진열장 닦으라 물 퍼다 유리창 닦으면 사람들이 구경했어, 신기하다고. 진열장을 엄청 크게 했으니까. 지금도 물이 그렇게 나는 걸 보면 우리 산이 올라가면 물 나는 거 신기하잖아.

백두산 봐봐. 그거 얼마나 넓어. 물이 그만큼 개어있는데 그것도 신기한게 어디서 그렇게 올라와서 백두산 천지에 물이 개어있느냐. 우리도 여기 지금도 물이 계속 나와. 뿜아내는 거야 모터로. 여기가 참 물은 많은 동네예요. 우리 독쟁이(독정)가.

(김연수)용이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용머리 자체는 물이 많대,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글자를 많이 썼었어요. 집 안에 우물이 있어 안

말라요. 집 주인이 그걸 팔으니까 메꿨어요. 예전에 거기서 옛날에 물통에다 물을 길고 산 위에서 다 받아먹는 거야. 그 물이 사시사철 가뭄이 와도 거기는 안 가물었어.

(김갑성)그러니까 여기가 물이 많은 동네라니까. 저기 수봉공원 올라가는 거야. 우리 집에서 용일시장 거기서 옆집 식당 지하실이면 30평인데 물이 차고, 또 그 위에 로얄백화점 있지 큰 건물. 그 지하도 마찬가지로. 버스 타러 나가는 길 있지? 거기 지하실 노래방을 들어가 보니까 물이 차가지고 장사를 못해요 그러더라고. 하여튼 물은 엄청나게 언덕이라서 물이 없을 것 같은데 어디서 스며들었는지 물이 올라오는 건지..

지금은 거기 수봉공원에, 여기 남구에서 먹는 물탱크가 거기 있어. 공원 위에 꼭대기에 거기 있지? 엄청 커. 거기서 짜주는 게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사는 거야 지금. 그 댐 위에서 물이 오잖아. 와서 여기서 받아서 거기다 채워 넣고. 그 높은 데서 짜주는 거야. 그 높은 데에서 물을 가뭄 놓더라고. 가뭄 놓고 거기서 수압을 세계 밀어 붙이는 거지 기계로. 그러면 우리가 2층 10층도 물이 나오잖아. 그 거 역할이 지금도 있어. 수봉공원에 지금 올라가다 보면은 화장실

있지? 그 옆에 가 그거야. 엄청 넓어. 옛날에 수도국에서 직원이 나와서 지켰어.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있는 걸 잘 몰라. 거기는 안 들어가니까.

(김연수)요 올라가면 교회가 있어요. 경로당이 있고. 그게 옛날에 그렇게 도로가 넓었어요. 그길로 버스가 다녔어. 그 올라가다 경로당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지금 뭐가 되어있냐면 절집이 하나 있어요. 그 집에도 아마 우물이 있다고 하나. 그런데 그 양반이 그걸로 하면서 돌로 메꾸다 메꾸다 하다가 안되니까, 시멘트를 가지고 차로 세 차를 부었대요. 그 물길 잡느라고. 그 도로가 옛날에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이 도로가 안 나왔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절을 못 지었어요. 그게 우물이 그만큼 거기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놓으니까 밑으로 다 빠지지.

그럼 만약에 지금 승기천을 복개사업하기 전에, 복개사업을 안 하고 승기천이 남아있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으세요?

(김갑성)바뀌었겠지. 옛날마냥 흙을 그대로 놔 돌리는 없고, 깨끗하게 정리했겠지.

(김연수)지금 승기천 그쪽에 모래가 많았으니까. 다 집 짓느라고 다 파가 버렸지. 기계로 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신기촌아파트 거기에, 계곡의 물을 그것을 다이너마이트로 다 깨 가지고. 사람들이 일일이 다 실었지. 뭐 기계가 없었으니까. 인력으로 차에 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강을 메꾸는 거야.

이쪽에는 강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산 밑으로 물이 있던 것을 다 메꿔버렸으니까. 그게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산을 깎아서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물물이 막히는 거야. 막히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수밖에 없어요 우물물이. 그래서 다 막힌 다음에 사람들이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야.

산들을 깎아서 강을 메우고, 그리고 산을 깎았으니까 아래 살던 사람들이 다 위로 올라오고 집을 지으면서. 그러면서 강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제물포도 저리로 가버리고.

(김갑성)여기 지금 매립공사한 게 수킬로야. 여기가 물이 들어왔던 텐데 지금은 몇 킬로 가야 되잖아 한참 가야 해

그러면은 만약에, 미추홀구에 지금 물길에 생긴다면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김연수)생긴다 하면은 위에 생기잖아요. 생기면은 이 세 갈래 물 길을 찾아야 해. 왜 세 갈래 물길이나면 이 물길이 하나 있고, 저기 신기시장 가는 쪽 하나 있고, 방죽으로 들어가는 물길이 하나 있어.

옛날처럼? 아 옛날처럼 세 갈래 물길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김연수)제가 볼 때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줄기로는 안내려 왔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물은 용현시장으로 내려가고 일을 보고, 여기서 내려오는 물 방죽 있는 물, 저수지로 해가지고 내려오고 여기서 내려오는 것은 여기서 잡아준다고. 여기 주민들이 살기 때문에 여기 잡아주는 거예요 밑에. 이쪽에서 내려올 때 내가 보면은 신기시장 있는데 여기 주민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이쪽에도 지금 내려오는 요쪽으로 사람이 돌아와. 바다 있는 쪽으로. 배가 들어오는 쪽.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배가 가차운 데로 가서 집을 짓고 살았으니까.

그럼 승기천이 바다로 다 빠졌었겠네요?

(김연수)그렇지 승기천이 바다로 다 물이 빠졌다니까요.

(김갑성)도시는 천을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게 만들어. 무슨 말이냐면 물을 흘러가는 물줄기가 강으로 가던지 바다로 가던지 해야 시가 형성돼요. 사용하는 물을 없애야 하니까 물길이 필요하잖아. 쓰고 없애기도 해야 하고 다시 받아먹기도 해야 하지만 버리기도 해야 하니까. 그래서 바다나 강이 없으면, 큰 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어디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이 한강이다 보니까 다 버리잖아. 인천도 이 바닷물로 가고, 한강물도 받아먹기도 하고 그러잖아. 이렇게 보면 버릴 데가 용이해야 시가 발전되는 거야. 옛날부터 크게 되려면 버릴 데가 많아야 돼. 항구도시가 주로 발전이 잘 되는 게 버릴 데가 많잖아. 바다로 흘러 보내면 되니까.

(김연수)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물물이 산 쪽으로 몇 개가 이어졌거든요? 이게 비가 안 오면 말라 우물물은. 우물물 밑으로는 안 말라. 집 있는 저쪽으로는 안 마른단 말이야. 마르면은 물을 길어 올려 먹고 비가 오면 이 물이 고이니까는 안 와. 그렇게 해 보니까 물이 오래되고 폐기가 되잖아. 그래서 이걸 메꾸는 거야. 옛날에 그 만큼 사람들이 먹고살려고 파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메꾸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물이. 갈라지는 물은 세 갈래로 빠지면 더 잘 빨려버리지? 저수지를 저쪽을 메꿔놨잖아요. 그 물이 막으니까 죽어나는 곳이 어디가 죽어 나냐면 제일시장하고 승기천이 죽어나는거야. 그 방죽 물을 막으니까. 그 큰 저수지 물을 막으니까 그 물이 바다로 역류 할거 아녀. 그래가지고. 제일시장 그쪽. 우리 그 물이 엄청 넓어요, 바다가. 거기를 막아버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물은.

(김갑성)그게 연결되어 있어, 주안5동하고 염전이 있었고 그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어있어. 염전, 항구, 배 닿는 데. 지금은 저 소래마냥. 소래는 아직 배가 들어오잖아. 여기도 그렇게 배가 들어왔다는 거야.

지금 저기 화단 만들어 놓은 곳 있지 우리 집. 거기를 내가 두가지로 써. 처음에는 화단 통, 빗물 받아서 화단에 물 주고. 허드렛물로 쓰려고 했어. 하고 이제 거기 로얄백화점 아까 얘기했지. 지하수가 모터가 있어 지금도. 그래서 거길 전기를 쬐으면 지하수가 무진 나와. 그럼 통을 채워. 처음에는 거기 지하수로 한 통 채웠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하수를 한 번도 못 썼어. 빗물이 차는 게 하도 많아서. 넘쳐. 비가 올 때는 많이 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지하수를 쓸 거

를도 없었어. 그래서 지금도 통이 꽉 찼어. 그 물이 흔해서. 여기서
는 그 물을 연구를 할 가치가 있어. 그걸 그냥 버리면 하천으로 흘러
가거든? 그걸 그냥 사용하고 하천으로 흘러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
을 가지는 거지.

여기, 여기 독쟁이(독정이) 고개 주변 시장 있는 쪽에는 물 걱정은
없어. 물이 하도 나니까, 물 많아 골치 아프지. 물이 없어서 찢찢매
는 일은 없어.

(김연수)옛날에 여기 시장, 옛날에 여기 시장이 용일자유시장이
예요. 여기 시장이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되었냐면 배에서 나오는 고
기, 산에서 나오는 곡식 물, 이런 데서 심잖아요? 조그맣게 고추 같
은 것, 가지, 대추. 이런 거 나오는 시장이 형성이 된 거예요. 지붕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복숭아밭, 포도밭, 사과밭 이런 게 많이 있었어
요. 그럼 따다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거야. 다른 시장이 없었어.
최초 시장이 여기여. 장화 없이는 여길 돌아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승기천이 대해서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지금 미추홀구에서 오랫동안 사셨잖아요. 그럼 선생님한테는 미

추홀구는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김연수)이 물줄기는, 내 생각에는 이 지구상에 빗물이 고여서 물줄기가 되잖아요. 그 줄기는 사람의 혈관이랑도 같아요. 동맥 혈관과 같아가지고 심장에서 혈관으로 흘러지는 물과 같기 때문에 이 계곡은. 후딱 말해서 인간의 심장에서 내려지는 혈관의 핏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없어서는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미추홀구에 물줄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김연수)물줄기가 있어야 살아나지. 그게.

지금은 없지. 다 물어버렸기 때문에 발전이 안돼요. 물줄기가 있어야만이 하다못해 물을 가지고 그걸 이용을 할 수 있는 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번에도 우물 때문에 시에 가서 물어보니까, 당신이 우물을 쓰려면은 계량기도 달고 우물 점검도 해야 하고. 우물 점검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고. 세금을 내라 이거여 그거를.

(김갑성)(물에)발 담그고 책 보면 잘 보이냐? 이런 책상에다가 책을 났어. 무슨 책이던 간에 여름에 더울 적에 (발에)물을 담그고 그런 것들도 생각해볼만 하지.

수초도 자라고 흐르는 물이 흐르던

구술자 : 이현준 (50세, 1980년대 용현동 거주)

- 채록일 : 2019년 11월 25일(월) 오후6시

- 채록자 : 문성예

- 채록 장소 :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학교에서 언덕을 올라가면 용정초등학교가 언덕에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눈이 온 날 아이들이 비료포대라던가 비닐 같은 것들을 타고 학교를 등교를 하고, 방과 후에도 거기서 놀았던 기억이 있고. 학교 바로 옆에는 배나무 밭이 크게 있었어요. 사과도 있고. 그래서 학교 바로 앞에 문구점이 있었는데 그 문구점 옆쪽 길로 해서 배서리도 좀 하고. 그 당시에는 먹거리가 그리 많지도 않았었고. 용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항상 시장 데려갈 때 만두를 먹었던 기억, 떡볶이나 순대를 먹었던 기억도 있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추홀구에 살고 있는 이현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몸담고 있는 곳은 미추홀구 미술협회에 공예분과 이사로 있고 송의목공예마을에 우드버닝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구에서, 지금은 미추홀구로 바뀌었죠? 예전에 용현동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한 17년, 18년 정도 살았어요. 제가 살던 동네 앞에, 용일초등학교 뒤쪽이었는데 갯물이 흘렀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서 친구들이랑 다방구 놀이도 좀 하고, 공차기도 하고. 중간에 천에 들어가서 공도 꺼내오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천이 그 당시에는 깊이나 폭이 어느 정도였나요?

제가 다방구를 하면서 건널 정도였으니까. 초등학교 때 건널 정도면 1m 10cm에서 20cm사이?

다방구가 무엇인가요?

슬래잡기 같은 거예요. 슬래잡기인데 사람을 터치해야 하는.

그럼 물길이 이어져 있었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용일시장 쪽에서 온 것 같아요. 용일시장 쪽에서 용일초등학교 후문 쪽이라고 봐야죠. 후문 쪽 밑으로 계속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물길 따라서 공을 주우러 계속 달려가면서 뛰어갔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공 못 주웠다고 혼나기도 하고. 물고기가 살았던 기억은 없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지거나 하면 물이 많아졌고. 주변에 물풀에, 식물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비포장도로니까, 그냥 흙 사이에 물이 있었던 건가요?

아뇨,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다방구를 하고 다녔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천을 뛰어넘고 하다가. 그러니까 높이가 우리가 턱을 잡고 내려갈 정도니까. 높이가 1m 20cm 정도고, 가로 폭은 1m 20cm 정도 되는 곳에 내려가서 공을 주워 와야 하니까. 멀리서 뛰어오다가 툭 넘을 수 있을 정도의 천. 예전에 제가 살던 집 뒤쪽으로는 턱이 없이 그냥 물길이었어요. 그 뒤 쪽은 오히려 더 넓었지.

용현동이란 동네에서 용일초등학교를 나왔고. 옛날에는 얼핏 흙길도 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푹방이라기 보다는 돌을 쌓아놨던



어스름한 그런, 완전 정리가 된 것도 아니고, 거기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사가 몇 년도 이야기인가요?

제가 70년생이니까, 초등학교가 78년도에 1학년이었으니까, 4학년 때부터 용일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82년도네요. 82~83년도 그때 기억이에요.

그러면 복개 공사하는 것도 다 보셨겠네요?

뭐 그냥. 덮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애매한 것이 제가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까지 용현동에서 살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후에 복개를 한 거예요. 82년도부터 87년도까지는 복개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때부터 만약에 물길이 현재까지 계속 있었으면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으세요?

물길이 있었다면, 물이 흐르니까 그것을 좀 깨끗한 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원래 물이 더러웠었어요?

장마 같은 것이 왔을 때는 아주 더럽지도 않았어요. 거기가 수초도 자라고,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 물이 완전히 저분하거나 더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물이 흐를 때는 맑게 보였으니까. 그 안에는 많이 안 보였어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 현재 인하부고 자리에 돌산이 있었는데. 돌산인 이유는 말 그대로 돌이 많아서 돌산이었기도 하고. 거기서 연 날리기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날 어느 아이가 6.25때 버려진 폭탄을 폭탄인 줄 모르고 가지고 돌산에서 놀다가 터져서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제가 기억하는 돌산은 지금처럼 나무가 많고 그런 형태는 아니었고. 말 그대로 황토빛 돌산이었어요. 거기서 놀았던 기억이 꽤 많아요. 지금의 인하부고 자리에. 아이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연 날리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추억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물은 없었어요?

그 곳에는 물은 없었어요.

미추홀구에 물이 많았었나요?

미추홀구에 물이 많았다기보다는, 애매한 것이 용일시장에도 한참 장마 지고, 홍수난 것처럼 가옥이 잠기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물줄기가 어디서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수봉산 자락에서 내려온 물이 거기서 고여서 용일시장 쪽에서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터진 물인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겠죠. 수봉산도 아니고, 수봉산 반대편이면 이쪽에 옛날 군부대 자리. 지금의 보훈병원 자리. 그 자리도 산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보훈병원 바로 뒤에서 살았었으니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지대가 높으니까 물줄기가 그 밑으로 쭉 타서 용일 초등학교까지 흘러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훈병원 쪽에서는 언제 사셨었어요?

그때는 초등학교 2학년 정도. 3학년을 아마 거기서 보냈던 것 같

아요.

항상 근처에 물줄기가 있었네요?

그 당시에는 물줄기를 못 봤었어요. 용정초등학교로 다녔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용정초등학교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녔는데, 저희 집이 현재 용현시장 밑에 있었어요. 학교에서 언덕을 올라가면 용정초등학교가 언덕에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눈이 온 날 아이들이 비료포대라던가 비닐 같은 것들을 타고 학교를 등교를 하고, 방과 후에도 거기서 놀았던 기억이 있고. 학교 바로 옆에는 배나무밭이 크게 있었어요. 사과도 있고. 그래서 학교 바로 앞에 문구점이 있었는데 그 문구점 옆 쪽 길로 해서 배서리도 좀 하고. 그 당시에는 먹거리가 그리 많지도 않았었고. 용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항상 시장 데려갈 때 만두를 먹었던 기억, 떡볶이나 순대를 먹었던 기억도 있어요.

미추홀구가 지금은 물이 거의 없는데 만약 지금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에 있었다면 그 물길이 지금의 용일사거리까지 이어졌던 걸로 아는데 가면서 확장됐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어차피 부평에는 굴포천이 있듯이 그것을 조금 더 물길을 넓혀서 생태적으로 어떻게 했었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도 복개는 했지만 그 밑으로 아직도 물은 흐를 것이고, 왜냐면 집들마다 하수구가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집에 빗물들이 모이는 우수라인 타고 물이 그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물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래도 미추홀구에 그런 물줄기를 잘 살리면 사람들은 물 주변에서 많이 사니까 만약에 복개를 했지만 다시 물길을 살린다면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해서 그러면 좋지 않을까. 요즘 시대에는 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어도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곤 하니까.

물줄기가 그런 감성이나 그런 것들을 확실히 자극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 미추홀구에 계신 거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미추홀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상투적이긴 해도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미추홀구. 물려준다고 하면 저를 비롯해서 어른들이 잘 해야겠죠. 더 이상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은 친환경적인 것이 가장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 더 오염 안 시키고, 더 오염 안 시킨 상태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해요.

확실히 예전에 놀았을 때는 다 친환경적이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흙도 떠먹고. 옛날엔 비석치기라던지, 놀이가 다 솔래잡기, 비석치기 같은 흙과 관련된 놀이들이 많았고. 그리고 넘어지거나 해서 까져도, 지금은 아스팔트니까 까지면 많이 까지만 옛날에는 흙바닥이라 넘어지면 털고 그냥 일어나면 약 같은 것 살짝 바르면 금방 아물고 그랬죠.

또 물길에서 놀았던 다른 기억이 있으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축구하다가 볼이 떨어져서 주우려고 갔던 기억

이나, 다방구 하다가 천을 넘나들었던 기억.

물고기 같은 것은 없었나요?

거의 못 봤어요. 있긴 있었겠죠. 눈에 안 띄 정도인 송사리 같은 것은 있었겠죠.

확실히 그 때 당시의 물은 또 달랐나봐요. 그 전에는 미꾸라지도 있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아, 개구리는 봤던 기억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미추홀구에서 누리고 싶은 일상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제가 지역에서 미술협회 작가로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문화 예술이 더 융성해질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저도 그 안에서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이 송의목공예마을 쪽에 공방도 있고, 그 곳에서 강의도 하고 있어요. 현재 자생적으로 형성된 목공예 마을에 센터가 있고 그 곳에서 강사 일도 하고 있지만 현재 송의목공예마을의

활성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전국에 지금처럼 자생적으로 여러 공예인이 모여 있고 센터가 있고 수업을 진행하는 곳이 몇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추홀이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곳을 그냥 놓아둘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활성화해서 나무란 소재가 친환경 적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더 많이 혜택을 받고, 혜택을 받으려면 안에서 내부적으로 변화도 일어나야죠. 지자체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동네 형들하고 붕어잡고 미꾸라지 잡고

구술자 : 고병선 (53세, 1970년대 주안동 거주)

- 채록일 : 2019년 10월 24일(목) 오후4시
- 채록자 : 문성예
- 채록 장소 :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추홀구가 너무 개발보다는,
좀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을 만한 거는 가지고 있고.
개발도 중요하고. 두 개 다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마을,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추홀구청 기획예산실 기획팀장입니다. 고병선이고요.

미추홀구청에서 근무 중이신 거예요?

예, 여기 91년도부터 근무했죠.

승기천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많죠. 유년시절을 거기서 살았으니까요. 그 자리가 현재 주안2동 자리예요. 주안2동하고 그 인주로에 지금 인천남부초등학교 있잖아요. 거기가 다 눈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주대로 자체가 복개



한 거예요, 승기천을. 그래서 거기서 어렸을 때는 특별히 놀만한 장소가 없으니까. 주로 그쪽에서 많이 놀았죠.

뭐 하고 노셨나요?

비슷해요. 그비 좀 많이 오고 그러면 장마 지고 나서 보면 거기 승기천에 가서, 그때는 승기천인지도 사실 몰랐던 거야, 이름 자체를. 그냥 모르고 나가서 동네 형들 애들하고 붕어 잡고 미꾸라지 잡고, 그거 잡아다가 닭 주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닭한테 줬다고..

네. 닭 줬어요. 미꾸라지 같은 것도 잡고, 어른신들하고 같이. 논에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승기천이라고 안 불렀잖아요. 물길의 어떤 모양이었어요?

그때는 자연제방이죠, 자연제방.

자연제방이요? 똑 같은거?

그렇죠. 다리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다리를 건너가야지 현재의 그 복개한 건너편의 초등학교 그쪽이 논이었는데, 그쪽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 주변이 다 논밭이에요. 어렸을 때는 거의 다 논밭이었어요.

동이나 이런 것은 모르시죠? 주소지는?

주소지가 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때가 언제, 몇 살 때 이셨나요?

제가 거기 주안2동에 개발하기 전,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인천고등학교를 나왔는데 1학년 때까지도 복개를 안했었어요. 고1 때까지도 복개가 안됐었어.

실례지만 몇 년생이세요?

67년생이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도 복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제가 한 초등학교 때까지밖에 못 놀았던 것 같아요. 오염 되가지고.

하수구 냄새가 났었나요?

그때는 마을 전체에서 하수가 거기로 다 들어갔었으니까 처리과정 없이. 쓰레기도 거기에 막 갖다버리는 장소가 천 주변에 있었고. 살기는 제가 주안2동에 결혼해서까지 살았으니까. 한 32년 정도 살았죠. 이제 집은 바뀌었지만 기존에 있던 기와집 같은 데서 전세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가고, 단독 주택으로 이사 가고. 주거가 아마 주안2동에서 세 번 정도 바뀌었어요. 거기서 한 32년 정도. 결혼해서 1년 정도 더 거기서 살았으니까.

진짜 여기 토박이시네요.

그렇죠. 요 동네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었어요. 32년 동안.

결혼해서도 이 쪽에서 사신 거예요?

노인네들이 거기 사시니까, 전세방을 그 근처에다 얻어가지고 일 년 정도 살았고.

승기천에 대해서 냄새났다, 오염됐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럼 복개한 이유가 그것 때문
인가요? 냄새나서?**

글쎄요, 복개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로 주요 도로가 여기
독쟁이(독정이)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독쟁이(독정이)가 이렇게 언
덕이었으니까 그게 물이 흘러서 저쪽에서 승기천이 이제 남동 그쪽
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전체가 복개가 되었던 거죠. 왜 복개가 되었
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로 이제 주 도로가 났으니까.

그럼 복개했을 때 당시에 복개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나요?

글쎄요, 오래한 거 같은데. 잠깐 한 거는 아닌 거 같고. 구간별로
워낙 구간이 기니까. 그 안에다가 내가 알기로 박스 묻어놓고, 덮고
아스콘¹¹⁾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그때 당시 만약에 승기천이 복개가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11) 아스팔트(asphalt)을 줄여쓴 말

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이 되세요?

그거 친수공간으로 참 좋은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복개를 뜯어낸다는 이야기도 있죠.

네. 여기 지금 공사하는 데가 용일사거리부터 승기사거리까지 복원 공사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고, 그런 이야기가 들렸던 것 같은데, 복개 안했으면 잘 보존하고 가꿨으면 참 좋은 그런 어떤 여가시설이나 공원녹지 이런 게 조성되었으면 더 좋았을 거 같아. 지금 와서 생각하니 뭐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 지금 와서.

강폭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주안동)는 조금 달랐으려나요?

폭이요? 폭 그렇게 안 넓었어요.

아, 이쪽도요? 이렇게 모여서 내려오는 지점이 10m정도?

- 10m요? 폭이요?

네. 다리를 건너갔으니까.

다리를 건너갔다고 하면, 물 위에 다리가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다리가 있었죠. 몇 개가 있었어요. 다리가.

누구는 다리라고 표현을 안 하고 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독? 독은 양쪽에 있었고 다리가 있었어요.

이름 같은 게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다리 이름? 그런 건 기억 안나요.



그럼 거기서 낚시나 이런 것들도 했었어요?

낚시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좀 차면,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진짜 친수 공간이라는 의미 자체가 지금처럼 물을 멀리서 보는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침범침범 바지 걷어서 건너고 할 수 있고, 거기서 물고기 같은 것도 손으로 잡는다는 뜻이네요?

손으로 잡고.

그러면은 이렇게 친구들하고 장난쳐서 잡는 거는 닭 모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때는 먹으려고 잡지는 않았죠.

노노라고 그랬던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너 일대가 다 논이었어요. 논에서 미꾸라지 잡아다가 어른들이 끓여먹고 그랬죠. 솔 걸고.

아, 솔 걸고? 그 때 당시에는 집집마다 닭집, 닭장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일대가 다 농사, 밭 농사일을 하는 데고, 돼지도

기르던 데가 있었고, 우물도 있었고. 우리는 닭을 안 길렀는데, 우리
외갓집이 그 동네에 있었는데 외갓집은 닭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고
그랬어요. 뒤뜰이 넓어가지고. 그거 잡아다가 가축들 다 주는 거지
요. 개구리 잡아다 주고, 붕어 잡아다 주고.

그때 당시에 가장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유년 시절 때?

기억나는 거요? 추억이라고 딱 생각나는 게.

추억이라는 것보다 학교 갔다 오면 친구들과하고 거기 내려갔으니
까 거기가 놀이터였죠. 똑 같은 데서 개구리 잡고 놀고. 예전에는 물
에 빠지고 그러면 젖으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불 피워서 양말 말리
다 양말 막 부러지고.

불도 피우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불도 피우고.

불을 어떻게 피우셨어요? 성냥으로?

그렇죠. 그런데는 장작으로 땠 것들이 많으니까 막. 불장난한다

고 그러죠 불량난.

저기가 이제 오염되기 시작하면서 놀이터를 뺐긴 느낌이있겠어
요? 오염됐으면 그 근처에서 안 놀았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놀이 문화가 바뀐 거죠. 거기 가서 그런 놀이를
안 하고, 야구를 하는 거지 야구를. 초등학교 고학년 쯤 되고, 중학
교 올라가면서는 거기 안 내려가고 야구를 하는 거지 공터에서.

공터 같은 것도 있고 그랬어요? 동네에?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면 벽돌을 찍는 공장 같은 데 들이
있는데 거기가 넓은 공터가 있었어요. 그런데서 놀고 그랬죠. 남부
초등학교가 내 바로 밑에 동생이 70년생인데 개가 거기 주안초등학
교에서 3학년 때 거기로 분교가 되면서 개가 들어갔으니까. 70년생
이니까 78년, 한 81, 2년? 이 때 초등학교가 거기 생긴 거거든요. 남
부초등학교가 개교된 게. 그때부터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막 그쪽
에. 로열아파트 생기고 아파트가 생긴 거야, 논바닥에. 초등학교 생
기고 아파트 생기고, 이쪽 우리 살던 동네도 막 논, 밭 다 밀고 거기

다가 새로 집 짓고 그러니까. 이제 승기천이 복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때부터.

그때 무슨 느낌이 드셨어요? 좋으셨어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었죠. 환경에 대한 그런 것, 하면 하나보다 하고. 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왜 하지? 지금처럼 환경의식 같은 것도 없
던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약간 놀이터를
뺏긴 느낌이었다. 그때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는.**

그분들은 저보다 더할 수도 있죠. 왜냐면 그분들은 거기서 사시
면서 농사를 직접 막 지으시고 그러신 분들이고. 거기가 그분들의
유년시절에는 더 깨끗했었을 거라고. 깨끗하고 아마 거기 내려가서
빨래도 하고 그랬을 거야. 우리는, 저 어렸을 때는 상하수도가 있었
을 때니까. 상하수도가 보급이 됐으니까 그런 건 없었는데 그 전에
는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왜 미추홀구에 계속 계세요?

그거는 뭐, 살다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친인척들이 다 미추홀구에 계시고 여기 떠나서, 떠나기도 했었어요. 뭐 여기만 산 게 아니고, 저기 서구에도 잠시 살아보고.

인천을 벗어나지는 않으셨던 거네요?

직장이 여기니까, 딴 데 갈 생각은 안하죠.

**미추홀구 토박이시잖아요? 그럼 인천과 미추홀구가 어떤 의미에
요?**

저한테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조상 대대로 우리 아버님도 동춘동이 고향이세요. 거기도 옛날에는 남구였지. 연수구로 분구되기 전에. 어머니는 여기 주안2동 토박이고 외가는 완전 토박이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거의 8~90%가 다 인천에 사시고, 여기 떠난다는 것은 사실 생각을 거의 안 해봤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뭐 여기 애착이 있어서 안 떠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생활터전이 되어 버린 거

죠.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전혀 생똥맞은 곳에서 무엇을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워낙 일 자체도 공무원 하시면서 자리를 옮길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이 지역을 못 벗어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저는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여기가 논밭이었다는 것도. 이게 어
느 순간 막 길이 되고. 그런 거를 언뜻언뜻이라도 보신 거잖아요. 학
교 다니면서 학교 다닐 때에는 늦게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눈
여겨볼 수 없었을 테지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다 보신 분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많이 봤죠.

어떤 기분이세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밭이 갑자기 뭐
가 됐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좀 그렇죠.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이 그렇고.

저는 또 이제 아버님, 아버지 고향이 동춘동이다 보니까 그쪽도

이제 다 매립해서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파트가 다 들어서
가지고.

어렸을 때도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매고 마차 끌고 나가서 생선 이렇게 해서 신포동에다가 가져다 팔
고. 저도 그래서 그 마차를 타고 바다로 막 들어갔는데. 그물 맺던
장소가 지금 LNG기지 있는 데야. 그리고 그때는 먹을 게 바다에 가
면 지금은 귀해서 못 먹는 생선이나 조개 같은 게 지천이었으니까.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이렇게 개발을. 그때는 개발이 우
선이었겠죠.

그런데 개발을 하기 전에 좀 외국 같은 사례 같은 것을 좀 참고해
서 개발을 좀 제한적으로 했으면 더 좋은 자원이 됐을 텐데.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

지금도 가끔가다 제가 바다낚시 같은 것을 좋아해서 배 타고 나
가서 낚시하고 그러는데. 하다보면 이 좋은 환경을... 낚시하다 보면
송도 보이거든요. 야, 저 좋은 환경을 다 매립해서 짓고 있고.

예전 같았으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할 수 있었던 게 많았었

는데...

그렇죠. 다 매립하고 짓고 저거.

우리 애들은 앞으로 이렇게 바다에 나와서 낚시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될까? 더 개발을 하고 오염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때까지만 이게 허용되는 일일까, 그런 생각.

여기 그 승기천도 이제 이 인터뷰하기 전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동네에 있던 하천 하나 덮어놓은 거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이 공간을 그냥 쪽 살려 놓아가지고 거기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리고 좀 청계천도 다시 뜬었는데 여기 도 한번 뜬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덮기는 쉬워도 뜬어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저는 상상이 안돼요. 미추홀구에 물길이 있었다는 게. 저는 인천 토박이도 아니지만 그래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신명여고를 다녔거든요.

우리 약산 빨갱이라고 그랬는데.

빨갱이요? 왜요?

신명여고가 빨간 교복이었어. 그래서 약산 빨갱이라고 했어.

아무튼 인천에 대해서는 물길이라고는 상상을 해 본 적이 없는데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인천에 물길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여기저
기 물어보고 있네요.

개항에도 있잖아요. 개항하고 우리 미추홀구하고.

개항구 쪽(수문통 도심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더 클 것 같네요.

예. 개항이 좀 그렇고. 연수구 쪽은 지금 모르겠네? 하도 메꿔 놓
아가지고. 그쪽은 또 잘 안 넘어갔으니까. 여기 문학산이 또 경계에
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여기서 생활하지만 문학산이라고 그러잖아
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거 배꼽산이라고 그랬거든.

왜 배꼽산이에요?

그 위애가, 맨 꼭대기 정상이 배꼽같이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다 배꼽산이라고 그랬어. 옛날에 문학산 정상에 레이더

기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산을 경계로 이쪽으로는 거의 넘어가서는 친가집이 이쪽에 있었으니까 갔었고 웬만하면 거의 넘어갈 일이 없었죠. 거의 이쪽(주안동) 안에서만 생활 했던 거죠.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공간을 조금 빌렸다가 가는 것 같고 결국 물려줘야 될 자원이나 자산인데 지금도 계속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 자손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미추홀구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 것 같으세요? 토박이로서.

글쎄요, 애들이 지금은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밖을 나가지 않아요. 애들이 나가서 놀데가 없는 거야. 나가면 도로에 차들이 깔려 있고, 나가봐야 밀폐된 공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막 나가서 뛰어다니고, 흙 만지고 그러고 생활을 했는데.

가끔가다 친구들 만나 술 한 잔 먹고 얘기하다 보면은 요즘 애들은 불쌍하다.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우리는 초등학교 때도 맨날 여름 지나면 썩까맣어요. 전부 다. 밖에서 노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요즘 애들은 방에만 있고. 그냥 그제 흐름이 그런 거고, 환경이 그

러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만약 이런 게 있었으면 어떻게 하고 놀았을지 조금 상상이 가더라고요. 실내에서 워낙 이런 게 잘 되어있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애들이 접했으면. 그래서 제가 애들을 기저귀 차고 있을 때부터 캠핑 데리고 다니고. 밖으로 막 돌아다니고, 길바닥에서 재우고 그랬었어요 일부러. 요즘 애들은 참 놀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가깝게 있는 곳은 개발이다 이런 것 때문에 바뀌고, 되레 멀리까지 돈 들이고 시간 내서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처음 말씀하신 것이 친수공간으로서 송기천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계셨는데 진짜 조금 떨어진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자연,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때 당시에는 모르고 지났지만, 좀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나서 또 내가 공무원이 아니었으면 더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없었는데 이제 이런 걸 접하고 뭐 미추홀구에 역사 이런 걸 보면 야, 저런 거는 좀 살려놔야 하면 좋았을 건데.

그런데 이제 개발이 우선이었던 시절이니까 어쩔 수 없었겠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왜냐면 이게 없고 있고를 떠나서 나

한테 이게 있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없
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람이 적응을 해서 사는
동물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이면 지금이라도 늦
지 않았는데 뜯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지금 선생님 사시는, 사셨던 그 동네는 지금 막 다 헐리고 있나요?

거기 우리 아버지 살던데. 이주했어요, 주안 1구역.

지금 막 천막 쳐지고 거기 먼지가 어마어마해요.

참 희한한게, 저희는 승기천이 이렇게 쪽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
기를 안 넘어 갔어. 여기서만 왔다 갔다 했다는. 지금 남부초등학교
있는 그쪽 앞에.

이게 천이 또 딱히 길 정중앙은 아니고 어디쪽으로 휘어져서 구
불구불했었어요. 조금. 지금처럼 쪽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불구불
되어 있었어요.

되려 여기는 골목길이거든요. 골목길을 이렇게 걸으니까 이렇게
지형을 딱 봐도 지금 아무리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저기 지대가 높
으니까 당연히 이쪽이 물길이었겠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신기사거리)부터는 쪽 직진이에요.

확실히 큰길이 난 거겠죠? 이렇게 물길이 있었고 주변에 중심으로 논과 밭이 있다가 건물이 하나씩 생기다보니까 대로가 이렇게 나온 거겠죠?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거기, 사진이 없나?

사진을 구하고 있는데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구청이나 이런데 없을까요? 있을 법도 한데.

여기 계속 사시면서 이렇게 만나시는 분도 있으세요?

친구들밖에 없죠.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그러면 그때 당시 까맣게 그을려서 물놀이하고 흙 놀이하고 그랬던 친구시겠네요?

그렇죠.

거의 미추홀구와 함께 나이 들어가셨네요?

하기야 뭐 이 주안바닥을 거의 떠나질 않았으니까. 서구 당화동에 한 3년 살고.

확실히 미추홀구에 물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물길을 그리워 하더라고요 다들. 물길이 아직 있었다면 여기는 생태적인, 자연적인 곳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모른다니까. 그때 당시에는 복개를 하면 왜 하는지 관심도 없고. 나이도 그렇고 중 고등학교 다닐 때는 더 그렇고. 그런데 이게 개발을 하게 된 게 80년대 초반부터 해서 막 하면서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90년도에 제대했는데 그때 연수동이 막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 연수동 그쪽. 할아버지 살던 동네 전부 다 보상하고 이사하고 난리가 났더라고. 8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동네가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싹 없어진 거야. 그나마 형체를 조금 유지하는 게 신기시장. 그런데 거기도 이제 많이 없어진 거지. 빌라들 짓고 뭐하고 하면서. 그런데 거기 신기시장하고 승기천하고 안 멀잖아요. 거리가 있으니까 한 블록 차이잖아. 그런 부분까지 밖

엔 이전 뭐 기억이 나는 부분이 없죠. 시장을 가려면 논길을 헤집고 가야 하니까. 신기촌 가려면.

앞으로의 미추홀구는 어떻게 되면 좋을 것 같으세요? 공무원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딴 데 이사 가야죠.(농담) 지금은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변화가 아니라 보존의 방식으로? 아니면 상생?

지금 뭐 승기천 이거 복개한 것을 뜯는다고 그러는 이야기를 정치인들이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

승기천의 복개 상관없이 미추홀구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미추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개발이 시작됐으니까. 여기는 너무 불명예스러운 기록들이 많아요. 이혼율, 자살율, 엄청 높아 일등이야, 넘버원.

너무 구도심이다 보니까 개발도 개발이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살

려놓는 것도 좋긴 좋은데 너무 개발이 앞서가니까. 별로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

그나마 저는 학익동 거기 사니까 산이랑 또 가까우니까. 뭐 어차피 아침에 눈뜨면 사무실 나와서 있고, 주말에는 뭐 밖에 나간다 그래도 가끔 산에도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너무 개발 위주로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니까.

삶의 문제가 부동산의 문제로 이렇게 역전되니까. 사는 공간이라면 필요한 그런 게 느껴지고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삶의 거주공간으로서의 어떤 것들을 상상하게 되는데, 삶의 공간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마음의 여유도 없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
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미추홀구 자체가, 구도심이잖아요.

주민들은 개발의 열풍에 휩싸여서 하다가, 해지하고 지금은 또 점점 구도심으로 가고.

저는 그래요, 개발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중요한 건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나 기념될만한 부분은 이렇게 좀 놓아두고, 개발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개발이익을 바라기 때문에 그러지만,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와 같은 생각이 있는 사람도 몇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현실하고는 부합되지 않죠.

미추홀구가 너무 개발보다는, 좀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을 만한 거는 가지고 있고, 개발도 중요하고, 두 개 다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마을,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67년 승기천 상류 위성사진 (출처: 네이버)

미추홀, 살아지다
승기천을 기억하다

승기천을 꿈꾸다

생명이 다시 흐르는 도시 하천 _
박병상

승기천의 복개현황, 자연환경 그
리고 복원방안 _장정구

생명이 다시 흐르는 도시 하천

박병상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

부천시 상동에는 작은 시내가 졸졸 흐른다. 이름하여 ‘시민의 강’이다.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인 지역에 작은 위안이 되는 시민의 강은 애초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를 시당국에서 받아들여 만들어졌다. 인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3차 처리한 물이 조금씩 흘러들어오는 시민의 강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상쾌함을 전하는데, 처음 눈에 띄지 않던 물고기가 떼를 짓는다. 누군가 잉어를 풀어주었는데 잘 적응한 모습이다. 삭막한 콘크리트 도심이 한결 시원해졌다.

부천시 중동과 상동은 이웃하는 인천시 삼산동과 함께 드넓었던 김포평야의 끝자락이었다. 일제 강점기 때 광활한 갯벌을 매립해

논이 된 그 일월의 김포평야는 인천과 서울 사이에서 기차에 이은 전철 승객들에게 전원 풍경을 한동안 선사했는데, 거대한 아파트 숲으로 바뀐 요즘, 인천과 서울은 부천과 함께 덩어리졌다. 전철 승객들은 이어지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에서 도무지 도시의 경계를 느끼지 못한다.

너른 갯벌이 논으로, 논이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바뀌자 예전에 없던 일이 발생한다. 역수 같이 내린 빗물도 너끈히 완충해주던 논을 메워 높인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는 약간의 빗물도 잡아주지 않아, 내린 비는 낮은 곳으로 순식간 떠밀리고, 인근 농촌은 비만 내리면 느닷없이 물바다가 된다. 아스팔트에 더럽히는 경유차 배기가스와 공사장 먼지가 빗물을 타고 경작지로 물려들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집안까지 밀려드는 흙탕물로 해마다 몸서리치는 고통이 반복되니,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지지 않을 수 없다.

주민의 빗발치는 민원은 굴포천 방수로로 유도, 멀리 인천 앞바다까지 방수로를 기안하게 했지만 그 단계에서 머물지 않았다. 건설당국은 방수로를 기화로 운하를 모색하는 기만함을 보였다. 바로 경인아라뱃길로 명칭하는 운하다. 당초 기획된 방수로는 바닥 폭

40미터였으나 은근슬쩍 80미터로 늘이더니, 기왕 확장하는 거 100미터로 늘여 운하를 만들자고 수정 제안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굴지의 건설기업을 모아 경인운하주식회사를 급조, 공사를 강행했다. 환경단체에서 끈질기게 문제제기했지만 밀어붙였다.

완공되자마자 밀어닥친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앓는 청계천은 생태하천일까? 환경단체는 청계천에는 생물들이 살기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한강 원수를 흘려보내는 까닭에 달려서 들어온 담수어류가 없지 않지만, 번식하며 살기 부적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계천은 생태하천이 아니다. 따라서 진정한 복원일 수 없다. 부천 상동의 시민의 강처럼 도심을 가로지르는 물줄기에 불과하다. 곳곳에 수초도 나무도 심겨있지만 오색 조명과 어우러지는 분수와 찾아드는 사람으로 북적이는 수로일 따름이다.

복개돼 고가도로로 덮이기 전, 청계천은 맑은 물이 넘실대는 하천과 거리가 멀었다. 서울시민들은 그냥 “개천”이라 말했다. 비가 어느 이상 내려야 물이 채워지지만 평소에는 마른 개천이었다. 6.25 이후 몰려든 주민들의 판잣집이 다닥다닥했고 주변에서 버린 쓰레기들로 너저분해도 홍수로 쓸려가던 가난뱅이들의 삶터였다. 큰비

로 넘칠 때마다 골치 았던 영종은 개천의 폭을 넓히며 바닥을 깎고 몇 개 멋들어진 다리를 놓았는데, 박정희 군사정권이 그 흔적을 시멘트로 덮었다. 그런데 복원을 내세운 이명박 시장은 문화재는 복원하지 않았다.

고가도로가 사라져 시야가 탁 트인 청계천은 한강물을 시원하게 흘리지만 사실상 거대한 시멘트 도랑이다. 철근 시멘트 위에 화강암을 갈아 깔거나 흙을 넣어 나무와 풀을 심었지만 하천이라기보다 홍수에 대비한 방수로의 역할이 더 크다. 지나는 사람이 많으니 물가에 새 한 마리 보이지 않는지만 공원의 가치는 충분하다. 물도 바람도 시원하다. 주변 아스팔트보다 3도 정도 기온이 낮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우니 ‘생태하천’이나 ‘복원’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청계천 도심공원으로 설명하는 게 솔직하다.

인공으로 만든 도시의 물길은 부천의 ‘시민의 강’이나 서울의 자태 화려한 청계천만이 아니다. 어느 도시나 술한 하천이 흘렀다. 그러기에 도시가 형성되었는데, 대부분 근대화 이후 망가져 도랑 신세로 훼손되었다. 강 양안을 거대한 돌덩이나 콘크리트로 절도 있게 직선화하며 주위 생태계와 연결을 차단했고 강바닥을 일률적으

로 고른 것이다. 한강도 마찬가지다. 둔치에 잔디를 깔았지만 먼지가 폴폴 난다. 한강의 지천도 지방의 대부분의 하천 사정도 그렇다. 세계 유서 깊은 도시마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태나 복원을 앞세우며 직선화했던 강을 다시 구부리는 건 매우 어렵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운하를 염두에 두고 직선화한 강을 해마다 조금씩 자연형으로 바꾸는 독일도 겨우 흉내만 낼 뿐이다. 강가의 콘크리트를 벗겨낸 자리에 흙을 다시 채우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직선화 이후 거둬 발생하는 문제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자 복원을 서두른다. 생명이 흐르지 못하는 강에서 사람도 건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시를 활발하게 만드는 빗물

농사라고 조금도 짓지 않는 수도권의 도시 사람들.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강수량에 큰 관심이 없을 것이다. 앞뒤 베란다와 두 곳 이상의 화장실, 그리고 부엌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팔팔 쏟아지는 아파트에 머무는 한, 수도권 상수원에 영향이 큰 소양강이 바짝 말라간다는 보도에 긴장감을 느끼지 못한다.

강우량이 많은 적든, 빗물을 완충하지 못하는 도시는 즉시 홍건해지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인도하는 대로 어디론가 낮은 지역으로 훑훑 흘러가 비가 그치자마자 바짝 마른다. 극단적인 사막과 다름없다. 시민들은 목을 갈갈하게 하는 미세먼지를 원망하며 하늘을 가끔 바라보지만, 먼지를 씻겨주는 빗물의 존재를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 구두와 옷에 튀기고 자동차의 흐름을 방해한다며 귀찮아할 따름이다.

2015년 기상대는 6개월 만에 30밀리미터 내린 수도권 봄비의 경제적 가치를 최소 25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2300억 원, 수자원의 가치로 210억 원, 화재를 막은 만큼 절약한 복구비용을 3억 원 정도로 추산했지만 발작물의 해갈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아예 살펴보지 않았다. 농민의 안타까움은 기상청의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수도권의 공기를 잠시 말끔하게 씻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 방면 상식이 없으니 놀랐는데, 도시에 내리는 빗물을 잘 활용한다면 적지 않은 상수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내리자마자 낮은 지역으로 흘러보내던 빗물을 습지와 담수시설에 담아 활용할

수 있다면 수해를 완충하고 텃밭은 물론 근교 농촌의 갈증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

서울시가 빗물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해마다 5천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한다. 지하 시설의 침수를 막고 도로에 빗물이 넘치거나 튀는 걸 예방하는 비용일 텐데, 활용하기에 따라 빗물은 훌륭한 자원이 된다. 수도권의 수돗물도 상류의 빗물이 아닌가. 한 데 서울시는 빗물을 활용하는 예산이 빗물을 배제하는데 쓰는 예산의 100분의1에 불과하다고 한다. 인천은 어떨까?

수원시는 ‘레인시티’라고 자부한다. 수원(水原)의 한자를 영어로 풀었다면 큰 의미를 찾을 수 없겠지만, 수원시는 조례를 마련해 빗물을 적극 활용하므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종합운동장의 잔디를 관중석과 트랙에서 모은 빗물을 활용하는 수원시는 도로 청소에도 빗물을 적극 사용하면서 예산을 크게 절약한다고 한다. 언론 인터뷰에 응한 수원시 담당자는 1년 저장한 뒤 검사하니 1급수 하천보다 깨끗했다며 빗물을 조경용수나 허드렛물로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강조한 바 있다.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은 편이지만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다. 강수량과 국토면적을 곱해 인구수로 단순히 나누는 방식의 판정은 과학적이지 않다, 강우를 어떻게 관리해 사용하는가를 살펴야 옳는데, 6개월 동안 빗물 부족으로 소양강댐의 바닥이 드러났어도 수도권 2000만 시민들은 목마르지 않은 우리나라는 물을 잘 관리한다. 그렇더라도 지구온난화에 이은 기후변화는 혹독한 가뭄을 예고 없이 안긴다. 빗물만으로 물 공급을 안심할 수 없는 재난이 엄습할 수 있으니 도시에서 빗물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도시습지

수원시는 가뭄 극복은 물론 집중호우에 대한 완충 능력도 키웠을 텐데, 비용이 부담스러운 건설업체는 제도로 행위를 강제하지 않는다면 빗물 활용 시설에 투자하기 꺼린다. 이번 봄비의 경제적 가치가 아무리 커도 초기투자를 외면하고 싶을 게 틀림없다. 수도권 봄비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건 단견이다. 가뭄 해갈 뿐 아니라 생태계에 활력을 주는 가치를 더해야 한다. 먼지에서 잠시라도 해방된 시민이 활발해졌다.

기후변화 시대의 물 이용법

라스베이거스를 가본 적 없어도 화면으로 많이 구경했다. 칩보영화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카지노 이외에 화려한 무대의 쇼를 라스베이거스는 자랑하던데, 거긴 적지 않은 돈을 지참해야 입장이 자유로울 거 같다. 무료로 방문자의 뉘를 빼는 볼거리도 있단다. ‘벨라지오 분수 쇼’가 그것으로, 음악에 맞춰 1200개 노즐에서 현란하게 분사하는 물줄기의 향연은 라스베이거스의 진수라고 한다. 한데 라스베이거스는 사막에 세웠다.

336억 톤의 물을 담은 미드호가 48킬로미터 떨어진 콜로라도 강

에 모습을 드러냈기에 라스베이거스는 신기루 같은 광채를 발휘할 수 있다. 1936년 이후의 일이다. 인구 60만이 넘지만 관광객이 거주민의 수십 배에 달하는 라스베이거스는 후버댐이 없으면 명성을 유지할 수 없는데,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미드호 수심이 30미터 이상 낮아졌다고 한다. 예전 같이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라스베이거스는 생활하수를 철저히 정화해 분수 쇼를 이어간다고 한다.

미 캘리포니아는 오렌지로 유명했다. 최근 포도주로 명성을 추가한데 이어 아몬드도 세계 수요의 80%를 담당할 정도라고 한다. 1938년 존 스타인벡은 황폐화된 오클라호마를 떠나 젓과 꿀이 흐르는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는 농부 가족의 애환을 《분노의 포도》에 담았는데, 요즘 캘리포니아에 젓과 꿀이 흐르지 않는다고 한다. 예전에 없던 가뭄 탓이다. 포도주와 아몬드의 명성이 여전한 건 로키산맥의 빙하에서 사시사철 물을 공급하기 때문인데, 전 같지 않다고 한다. 폭설로 뒤덮이던 산간에 비가 내린다는 게 아닌가.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받은 2010년 동계올림픽 때, 밴쿠버에 폭설은 커녕 비가 내렸다.

미국은 ‘물 부족 국가’인가? 거대한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울창했

던 시절에 몰랐지만, 거의 별채된 요즘, 미 서부는 강수량이 늘 부족하다고 통계는 지적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평균 소득을 높이는 도시마다 많은 인구를 거느리는데, 시민들이 물 부족을 호소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수돗물 원수를 다른 지역에서 넉넉히 조달하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다. 집 앞의 잔디에 뿌리는 물을 줄여야 한다는 뉴스가 나온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전문가는 분석한다.

동네 우물에서 길어 마셨던 시절, 물 절약은 어느 곳이나 일상이었다. 1960년대, 일주일에 한번은 목욕하라고 신신당부하던 담임 선생님은 용의검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았다. 그때 많지 않던 가정의 빨래는 이웃과 시냇물에서 해결했다. 마을이 커지고 빨래터와 우물이 가정의 세탁기와 수도꼭지로 대체되면서 물 사용량은 늘어나기 시작했다. 수돗물 관로가 가정으로 이어졌어도 공급이 불안했던 시절, 물을 받아놓아야 안심했던 우리는 절약 생활을 잊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수돗물의 규모가 커지고 공급이 안정되면서 낭비가 생활화되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수도꼭지가 늘어나면서 물을 물 쓰듯 소비한다. 다만 어디에서 어떤 물을 가져와 수돗물

을 만들었는지 모르면서 집안에 정수기를 들여놓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지 않는다. 배수장에서 엄격하게 정화했다고 강조해도 믿지 못하므로 값비싼 정수기를 가정에 설치한다. 정수기 광고가 화면을 지배하는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다. 물보다 수도관이 문제라는 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어떤가? 인천 서구의 경험에서 우리는 수도관의 관리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담당 공무원의 낮은 자긍심을 관리부실의 원인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의 급여나 지위를 높이면 소비자의 신뢰로 이어질까? 수돗물이든 전기든, 중앙집중식 공급체계에서 소비자의 신뢰는 참여로 형성된다. 이번 홍역을 계기로, 정부는 수돗물 공급 체계에 소비자의 참여를 보장할 용의가 있을까?

인천시 같은 대도시라 해도 지역에서 수자원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획기적인 대안이 아니다.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 규모로 빗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정화하거나 생활하수를 재처리하여 히트렛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한무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가 오래 전부터 제안한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미 확보돼 있다. 가격도 높지 않다. 생활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 정화

처리한 뒤 바다나 강으로 버리는 방식은 낭비다. 지역에서 ‘하수중간처리’하여 활용하는 방식은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 벌써 실행하고 있다. 하수중간처리와 빗물 활용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탓이다.

마시는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까? 수돗물을 가정에서 추가 정화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까지 합하면 대단할 텐데, 석유 고갈을 앞둔 지구온난화 시대에 합리적일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수돗물 공급체계는 머지않아 한계를 만날 것이다. 석유 가격이 오르면 수돗물 요금은 상승한다. 석탄이나 핵보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시대가 정착한다면 지금과 같은 수돗물 공급 방식은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갈색 수돗물로 홍역을 앓은 인천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는 분명 물 부족국가라 아니더라도 안심할 처지는 아니다. 기후변화가 가져온 기상이변은 새로운 물 공급체계를 요구한다. 중앙집중식은 아니다. 빗물과 하수중간처리도 대안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는데, 무엇보다 물을 낭비하는 습관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개인의 노력에 앞서 제

도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수도 활용하는 소공원이 있다면

한강하구의 실뱀장어 작황이 전에 없이 줄었다고 한다. 봄철 두어 달 열심히 매달리면 1년 수입을 책임졌다는 실뱀장어가 최근 줄어든 이유를 단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원인을 주도면밀하게 연구한 학자는 ‘합성머스크 화합물’을 의심했다. 한강에 막대하게 쏟아내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에 포함되는 물질로 화장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우리는 강 하구에서 잡은 실뱀장어를 양식해서 먹는다. 장어요리의 가격에 푸념하는 식도락가를 위해 정부가 화장품 사용을 제한할까? 그럴 리 없을 것이다. 화장품 산업의 입김보다 합성머스크까지 정화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리라. 갈색 변질로 한바탕 홍역을 앓은 인천시의 수돗물에 비린내가 난다는 보도가 다시 나왔다. 수온이 따뜻해지는 한강에 녹조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관계자는 안전에 문제는 없다고 장담했다는데, 갈색 수돗물에 놀란 주민들은 안심하기 어려울 듯하다.

아무리 안전하더라도 비린내 수돗물로 가족 마실 물을 준비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강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지역은 이맘때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취수원이 자신의 지역에 있지 않는 인천은 서울시에 항의하기도 어렵다. 상수원을 지역에서 확보할 수 없으니 뾰족하게 대비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이제 수돗물의 오염은 어느 정도 해결된 모양인데, 같은 사고는 앞으로 반복되지 않을까? 원인을 제대로 분석했다면 대응이 이어질 테니 반복되지 않으리라 기대하고 싶다. 이미 전문가는 그 대안을 제시하니 다행이긴 하다.

홍역을 앓은 인천 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문제를 공유하면서 대책을 세울 게 틀림없다. 경각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더 채용하겠지. 복잡한 관로 중간에 물때를 주기적으로 제거할 장치도 마련하겠지. 하지만 상수원에 대한 대안은 좀처럼 찾기 어려울 것이다. 기후변화가 극심해질수록 먼 곳에서 대량으로 취수하는 방식은 불가능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안에 들어오는 수돗물 중 가족이 마시는 양은 그리 많지 않다. 그 정도의 양은 지역에 내리는 빗물로 충분하다고 한다.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이 정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크지 않다고 한다.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빗물을 받아 정화하여 개별 가구마다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다면 마실 물을 위해 먼 상수원을 찾지 않아도 된다. 정수기를 거치지 않은 가정의 수도물은 세탁이나 집안 청소에 활용할 수 있다.

목욕이나 설거지, 세탁이나 집안청소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 많은 비용을 들여 정화처리한 뒤 바다로 버리는 일은 아주 아깝다. 한강으로 빠져나간 처리수는 실뱀장어의 오랜 생태계를 교란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초고도 정화처리하고 버리는 건 더욱 아까운 일이다. 그런 한강물을 끌어와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것, 이제 꺼림직하다. 안심하고 마실 정도로 처리하려 지역마다 많은 비용을 들이지만 시민의 신뢰는 낮을 수밖에 없다.

개인이 정화 비용을 추가로 들이지 않는 수도물을 집안에서 마시는 이외의 용도로 활용한 뒤 마을 또는 아파트 단지 단위로 모아 중간처리하면 어떨까?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의 많은 도시는 수도물을 중간처리하여 만든 중수도를 적극 활용한다. 거리를 청소하거나 정원수와 같은 허드렛물로 사용한다. 그뿐인가? 여름철 아스팔트를 식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녹지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습

지를 조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후 도시의 미세먼지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에 근린공원이 있다.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시설을 안전하게 갖추려면 비용과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근린공원에 중수도를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200년 전 프랑스에서 시도했다. 우리도 이제 시도해야 옳지 않을까? 중수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과 비용은 그만큼 줄어든다. 나무와 습지가 건강한 공원은 시민의 휴식처가 될 텐데,



수돗물로 크게 혼이 난 인천부터 시범적 설치를 시작하면 어떨까?
관련 연구를 제안해본다.

미추홀구를 다시 적시는 승기천을 꿈꾸며

가을이 무르익으며 겨울의 문턱을 넘으려하자 하늘이 희뿌연게
변하더니 기분이 매캐해진다. 한숨을 내쉬는데, 바람길을 내고 미
세먼지를 차단할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인천시장의 약속이
나왔다. 시민이 생활하는 공간에 도시숲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었
다. 한데 아쉽게 습지 이야기가 없다. 녹지가 습지와 어울릴수록 도
시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건만.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애국가 3절은 지금 무색해
졌다. 중국에서 석탄난방이 시작되자마자 맑은 날도 하늘 가장자리
는 언제나 불그죽죽하다. 바람이 정체되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농
축되니 가시거리가 흐릿하고 눈은 침침하며 코가 매캐해진다.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답게 난방을 가스로 바꿨고 최근 하늘이 제
법 깨끗해졌다고 방문자들은 전한다. 우리보다 나을 때도 많아졌다
지만 그건 아직까지 베이징에 국한한다. 베이징 이외 도시의 하늘

은 여전하므로 중국의 영향을 받는 우리 하늘도 여전할 수밖에 없지만 중국 탓만 할 수 없다. 아스팔트를 누비는 자동차가 워낙 많지 않은가. 경유 차량에 배출가스를 거르는 장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녹지와 습지다. 발생하는 먼지를 지역에서 잡아줄 녹지와 습지를 도시 곳곳에 확보해야 한다. 도시 주변에 논이 펼쳐지고 녹지가 넓었던 시절, 한바탕 쏟아지는 빗물은 도시의 먼지를 산뜻하게 씻어 주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도 비슷하다. 자동차 운행을 최대한 줄이는 도로정책과 더불어 녹지와 습지를 충분히 확보한다면 우리 대기도 호전될 것이다.

뚜렷한 도시계획 이전에 형성된 구도심에서 바람길은 쉽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필요하다. 구도심이 넓은 미추홀구가 특히 그렇다. 미추홀구에서 바람길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과거의 습지를 찾아 최대한 확보하면서 녹지와 연계한다면 바람길의 기능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주택과 도로, 공공시설로 점유되어 사라졌어도 그리 멀지 않은 과거, 미추홀구의 많은 지역은 분명히 농경지였고, 그 중 논농사를 짓던 곳도 많았다. 현재 습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

도 기록과 기억을 더듬어 그 시원을 찾아보자. 물길을 찾아 습지를 일부라도 재연하면서 녹지축을 잇는다면 바람길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승기천으로 이어지던 습지를 찾아 활용한다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추홀구의 지형과 구배를 세심하게 살펴본다면 승기천으로 이어졌던 과거의 농경지 주변의 도랑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추홀구 지형을 크게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거의 습지를 조금이라도 복원하고 그 주변에 녹지 조성하면서 축을 형성한다면 바람골이 미추홀구 구도심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천렵을 기억하는 도시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생명이 흐르는 하천이 조성되는 걸 환영할 게 틀림없다. 부천 시민의 강이 그를 증명한다. 하지만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고 조성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습지를 복원해도 주위에 모래가 없을 뿐 아니라 주위의 생태계가 매우 허약하거나 건강하지 않다면 억지로 복원한 하천에 생명이 흐를 수 없다. 하지만 하천이 작은 수량이라도 유지하고 흐를 수 있다면 시민들은 그 곳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다. 회색도시에서 예전과

같은 생태계를 회복하기 어렵지만, 하천이 유지되면서 담수 생태계가 조금이라도 회복된다면 예전에 분포했던 우리 고유담수어류를 성공적으로 방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보자.

음식이나 물로 몸에 들어오는 마이크로플라스틱이 정자와 난자의 발생을 방해한다는 과학자의 보고가 나왔다. 미세먼지는 아니 그럴까? 안심할만한 공기를 보장하는 정책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시민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절박함을 바탕으로, 인천시와 시민사회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승기천의 복개현황, 자연환경 그리고 복원방안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1. 들어가며

인천광역시에는 2개의 국가하천과 30개의 지방하천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관리하는 국가하천은 아라천과 굴포천이고 광역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지방하천은 강화도에 14개가 있고 나머지는 내륙에 있다. 이외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관리하는 소하천이 100여개소가 있다. 유로연장이 가장 긴 하천은 굴포천으로 부평구 만월산 부평공동묘지(인천가족공원)에서 발원하여 부평구청, 계양구 하야동을 거쳐 신곡수중보 인근에서 한강으로 흘러드는 약18km 물길이다. 이외에 10km 이상 하천은

승기천, 공촌천, 나진포천, 장수천 정도이고 나머지는 10km 미만의 작은 하천들이다. 이런 인천의 하천들의 도시 난개발로 무분별하게 복개되어 수질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삶의 질에 관심을 갖게 된 오늘날, 오염과 건천화가 심각한 도심의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지 이미 오래다. 1970년~1980년대 도시가 확장되면서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하천복개 후 도로와 주차장으로 활용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국가소유인 하천은 보상 문제가 없었고 다양한 토지이용이 가능한 점 등은 오염하천의 악취 민원과 함께 복개를 가속화시켰다. 그러던 것이 30년도 안 된 사이에 하천의 복개가 도시의 열섬현상가중, 지하수위저하 등 환경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복개위주의 하천정책에서 복원정책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제주의 산지천, 서울의 청계천 등을 시작으로 가깝게는 부천의 심곡천까지 복개하천에 대한 복원이 사회적으로 대세가 되었다.

악취가 풍기고 오염된 생활하수가 흐르는 도심하천의 복개는 누구도 반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도시 하천의 수질오염

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하천살리기 운동이 대두되었다. 인천에서도 2003년 인천광역시 ‘민/관합동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추진단’을 구성하여 굴포천, 승기천, 장수천, 공촌천, 나진포천 등 5대 하천살리기사업이 시작된다. 이후 ‘맑은 물이 흐르고 사라진 생명체들이 돌아오는 하천 만들기’는 적지 않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굳이 잇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중상류지역에 복개구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경 및 수생식물 식재와 하도정비 등 수질개선사업을 벌였지만 중상류구간의 복개구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는 또는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자연형 하천복원은 요원하다.

2006년 인천녹색연합은 단국대학교 부동산,도시계획연구실과 함께 인천하천들에 대한 복개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¹²⁾ 지방하천은 승기천 등 10개소와 굴포천 지류들, 심곡천 지류와 만수천 지류들 그리고 악취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학익천과

12) 인천녹색연합, 2007, 인천복개하천보사보고서



남동유수지와 저어새 섬

용현천을 조사했다. 하천원형은 1960년대 이전지도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하수관망도를 참고하여 확인하였다. 복개현황조사는 각 구청에서 발행하는 도로명 주소안내도를 참고로 하천 전구간을 3~4회 도보로 확인하고 기록했다.¹³⁾

13) 복개하천 상부의 토지이용(도로,대지,주차장 등)에 대한 조사와 복개하천 연결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복개구간은 하천이 열린 부분이 없이 복개가 연속된 부분을 하나의 구간으로 정하고, 복개하천의 이용용도 도로의 경우는 도로명의 변화에 따라 구역을 정하였다. 하천길이는 인천시 생활정보지리시스템으로 측정하였고 연결지 이용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작성하였다. 교통량은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대로 나누어 진행하고 주말교통량은 별도로 조사하였다. 복개구간 조사지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재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복개하천복원 타당성조사연구의 연구지표를 상당수 활용하였다.

2. 인천하천과 복개현황

1) 물의 도시, 인천의 하천¹⁴⁾

해불양수(海不讓水), ‘바다는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도와 강원도, 경기도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사는 인천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한다. 실제로 한반도의 1/3에 해당하는 중부지방의 물들은 한강, 임진강, 예성강, 안성천을 따라 인천경기만으로 흘러든다. 인천의 바다는 우리나라 사람 절반 이상이 사용했던 물도 말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백두대간, 장백정맥, 청북정맥, 청남정맥, 해서정맥, 임진북예성남정맥, 한북정맥, 한남정맥, 한남금북정맥, 금북정맥, 금남호남정맥, 금남정맥, 호남정맥, 낙동정맥, 낙남정맥. ‘산은 물을 건너지 않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 우리 선조들은 이 산자분수(山自分水) 개념에 기초하여 한반도의 산줄기를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구분하였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이어지며 한반도를 동서로 나누는 중심산줄기이다.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온 산줄기를 정맥이라 하는데 산줄기의 이름은 강 이름에서 왔다. 정맥이

14) 필자가 인터넷신문 인천in에 연재하는 하천이야기의 프롤로그를 재편집한 내용이다.

강유역의 경계능선, 즉 분수령인 이유다. 청천강 북쪽 유역경계가 되는 산줄기의 이름은 청북정맥이고 남쪽 유역경계가 되는 산줄기가 청남정맥인 것이다. 백두대간 속리산에서 한남금북정맥이 갈라져 나왔고 안성의 칠현산에서 한남정맥과 금북정맥이 나뉜다. 한강의 남쪽을 담당하는 산줄기가 한남정맥이다. 이 한남정맥이 인천을 지난다. 안성 칠현산과 국사봉, 용인 구봉산과 석성산, 수원 광고산, 안양 수리산, 인천의 만월산~원적산~천마산~계양산~가현산, 김포 문수산. 인천내륙의 하천은 대부분 이 한남정맥에서 발원한다. 대곡천, 대포천, 김단천, 시천천, 공촌천, 심곡천, 승기천, 만수천, 장수천, 운연천은 서해로 흘러들고 굴포천, 갈산천, 청천천, 계산천, 굴현천, 계양천, 나진포천은 한강을 거쳤다가 서해로 간다. 지방하천은 아니지만 방사형으로 국가하천인 굴포천으로 흘러드는 구산천, 동수천, 산곡천, 세월천, 목수천, 박촌천과 부천의 심곡천, 삼정천, 여월천은 중요한 도시의 하천들이다. 이외에도 갯골이었으나 도시확장으로 지금은 하천 역할을 하는 가좌천, 용현천, 학익천도 있다.

2011년 경인아라뱃길은 아라천이라는 국가하천이 되었고 2016

년 굴포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었다. 인천의 하천은 유난히 많이 변했다. 굴포천은 조선시대에 운하를 만들기 위해 판 하천이고, 아라천도 홍수조절용으로 판 방수로로 배가 다니게 할 목적으로 만든 인공물길이다. 갈산천은 부평평야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든 서부간선수로의 일부였다. 아라뱃길로 굴포천을 땅속을 흘러야 하고, 계양천을 두동강 냈고 시천천은 흔적을 찾기 어렵다. 공촌천과 심곡천 하류 직선구간은 갯벌매립으로 생겨났다. 하천 상류 대부분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혀 도로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물길에는 쓰고 버린 물인 하수가 흐른다.

2006년 조사결과, 인천의 하천은 만수천 93%, 굴포천 지류 82%, 굴포천 본류 18%, 계산천 66%, 청천천 51%, 승기천 37%(지류포함 57%), 심곡천 20%(지류포함32%), 검단천 14%, 나진포천 14%, 장수천 6%, 공촌천 6%이 복개되어 있다.

2) 복개하천

하천관련 전문서적에서 하천은 ‘비나 눈이 되어 공중에서 내려온 천수가 중력에 의하여 여러 가지 저항을 물리치고 낮은 곳을 향하

여 유하여 호소 또는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 물이 흐르는 기늘고 긴 요지(凹地)를 하도라 하고, 유수에 접하는 부분을 하상이라 하고, 하도와 하상을 합하여 하천이라고 칭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천법에는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하 수계라 한다)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강'과 '천'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규모가 큰 하천을 "~강"으로, 그보다 규모가 작거나 지류인 하천을 '~천'이라 부른다.

하천이 가지는 기능은 크게 이수기능, 치수기능, 환경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¹⁵⁾ 과거에는 홍수방지를 위한 치수사업과 농업 및 공업용수의 확보 그리고 수력발전 등 이수 측면에서 하천의 기능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연생태적, 환경적인 기능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하천의 자연보전기능은 물의 자정기능과 생태적 서식처기능을 꼽을 수 있다. 하천에서 흐르는 물은 공기 중의 산소를 물 속에 용해시켜 수중의 유기물의 분해하는 자정하게 하고 이를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6, 사람과 생물이 어우러지는 자연환경의 보전,복원,창조기술의 개발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및 워크샵

통해 다양한 수생식물과 곤충, 물고기, 새, 포유류들이 하천을 중요한 서식지로 이용하게 된다. 하천의 친수기능은 수변경관, 정서함양, 수상위락 등 하천과 인간과의 교류기능으로 하천과 그 주변 자연, 인공물의 조화가 인간에게 주는 심미적 기능을 의미한다. 도시화, 인공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친수기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하천들은 복개되면서 이런 하천의 순기능들이 상실되어 있다.

복개하천은 덮개가 덮여진 하천을 말한다. 즉,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으로 덮여진 하천을 말하는데 복개된 상부는 주로 도로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곡선형 하천을 직선화하고, 홍수 등 빨라진 유속으로 인해 하상이나 하안의 침식이 심하게 일어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벽을 세우기도 했다. 하천복개형태로는 하천상부를 막아서 햇빛과 공기를 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면복개와 하천 위에 고가도로와 철로 등을 건설하거나 하천 양안에 테크를 건설하는 부분복개로 나눌 수 있다.¹⁶⁾ 전면복개 하천의 경우는 햇빛과 공기 등이 차단되기 때문에 하천 생태계가 계속 훼손되며,

1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서울시 복개하천 복원타당성 조사연구

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변공간을 활용할 수 없다. 부분복개는 하천의 일부분을 복개한 형태로 공기와 일부 햇빛은 통과하지만 대부분의 하천지역은 그늘져 있다.

현재의 하천법 등 관련법에는 복개하천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이 거의 없다. 하천법 제71조에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하천의 복개행위는 금지한다’고 되어있을 뿐이다.¹⁷⁾ 복개하천은 대부분 하수도로 이용되고 있다. 하천 복개공사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하에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생활하수와 빗물이 구분되지 않고 과거의 하천이던 공간이 생활하수와 빗물이 함께 흐르는 하수도가 되었다. 비가 내리면 하수용량이 급증하여 하천의 열린 구간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하천오염원이 되고 있다.

복개상부는 대부분은 도로와 주차장으로 이용되는데 하천복원 시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 하수도와 유지용수와 함께 대체

17)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3항에는 ‘하천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복개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하천을 복개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재해방지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기천 복개지도

도로와 주차장문제이다. 도로와 주차장은 다수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많은 주차장의 경우 이용범위가 주변지역에 국한되므로 대체지의 확보나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또 복개하천 제방을 따라 무허가 노후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에 대한 보상과 이주 문제도 하천복원추진 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3) 승기천의 복개현황

승기천은 강화에 있는 지방하천을 제외하고 거의 유일하게 한남정맥에서 발원하지 않는 지방하천이다. 문학산과 승학산, 수봉산에서 시작하여 남동공단 제1유수지를 거쳐 송도11공구 갯벌에서 서해로 유입된다. 남동구와 연수구의 경계가 되는 지방하천 승기천은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부근(구월동 838-46)에서부터 남동공단 유수지까지 6.2km이다. 그러나 과거의 위성지도를 살펴보고 지역주민

표1. 승기천 복개 상부 토지이용현황¹⁸⁾

복개구간	구역	토지이용유형	연장(m)	비용(%)
분류복개구간	1구역	도로(인주대로-주간선도로)	2119	58
	2구역	도로+노상주차장(인정3로-소로)	158	4
	3구역	도로(문화남로-소로)	601	17
	4구역	문화예술회관 공원	151	4
	5구역	도로(중앙공원길-소로)	232	6
	6구역	도로(인하로-주간선도로)	203	6
	7구역	농산물도매시장	178	5
계			3642	100
지류복개구간	1구역	도로(함박중앙로-소로)	140	7
	2구역	도로(아파트 내)	188	10
	3구역	도로(함박뫼길-보조간선도로)	1460	76
	4구역	녹지	128	7
계			1916	100

18) 인천녹색연합, 2007, 인천복개하천조사보고서, p78

들의 탐문으로도 정확한 발원지를 찾기 어렵다.

승기천은 문학산과 승학산, 수봉산에서 크게 세 개의 물줄기가 발원한다. 승기천 본류는 수봉산 남서측에서 발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줄기로 발원지부터 구월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아래까지 복개되어 있다. 다음은 승학산과 문학산 사이, 문학경기장에서 아시안 게임선학경기장 부근으로 이어지는 물줄기이다. 지금도 문학경기장 뒤 제2경인고속도로 건너편으로 상류에 물길이 열려있다. 다음으로는 문학산 남쪽 연수동 487번지 부근에서 발원하는 물줄기로 함박순환로와 함박중앙로 교차지점을 지나 신연수역 근처에서 승기천으로 흘러들었다.

발원지가 명확하지 않아 2006년 인천녹색연합과 단국대학교 공동조사팀은 60년대 위성사진, 하수관망도와 지역주민탐문을 통해 신기사거리부터 승기천 본류의 복개구간을 설정하였다. <표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승기천 본류는 총3642m가 복개되고 있는데 신기사거리부터 승기사거리(일명 동양장사거리)까지 구간선도로인 인주대로 2119m가 복개구간이다. 이어서 소로인 인정3로 158m, 문화남로 601m, 중앙공원길 232m와 문화예술회관 공원과 농산물

도매시장, 인하로가 각각 약 200m정도씩 복개되어 있다. 인정3로와 문화남로에는 노상주차장이 있다. 즉 본류의 복개구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58%가 주간선도로인 인주대로이고 공원과

표2. 승기천 복개 연결지 토지이용 현황¹⁹⁾

본류							
구분	토지이용유형	연장(M)	비율(%)	구분	토지이용유형	연장(m)	비율(%)
좌안	단독주택	185	5	우안	단독주택	280	8
	공동주택	128	4		공동주택	51	1
	근린생활	2054	56		근린생활	1581	43
	업무시설	115	3		업무시설	231	6
	판매시설	505	14		판매시설	597	16
	종교	13	0		공장	13	0
	공원	296	8		종교시설	13	0
	도로	346	10		자동차관련시설	70	2
					공원	383	11
	계	3642	100		도로	423	12
			계	3642	100		
지류							
좌안	단독주택	140	7	우안	단독주택	156	8
	공동주택	1152	60		공동주택	573	30
	업무시설	30	2		업무시설	470	25
	근린공공시설	30	2		교육시설	127	7
	교육시설	303	16		공원	361	19
	공원	52	3		녹지	128	7
	녹지	128	7		도로	101	5
	도로	81	4				
	계	1916	100		계	1916	100

19) 인천녹색연합, 2007, 인천복개하천조사보고서, p79

시장일부를 제외한 전 구간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복원계획수립 시 토지이용을 검토하기 위한 연접지 토지이용은 북개하천의 왼쪽(좌안)과 오른쪽(우안)으로 구분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공원녹지와 교육시설 등을 확인하였다. 승기천 본류 북개구간의 연접지 좌안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이 56%로 가장 많고 판매시설 14%, 도로 10%, 주택 9% 순이었다. 우안의 경우에는 근린생활 43%로 가장 많고 판매시설 16%, 도로 12%, 공원 11% 순이었다. 2006년 북개구간 중 인정로의 노상주차장이 1개소 유료로 운영 중이었는데 주차면수는 281면으로 유흥상가지역에 인접해 있어 주간야간 모두 만차상태였다.

승기천은 굴포천과 함께 전국적으로 손꼽히게 수질이 안좋은 하천이었다. 2004년에는 환경부조사결과 승기천에서 발암물질이며 독성물질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시안이 검출되어 남동공단업체들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벌이기도 했다.²⁰⁾ 하천살리기사업으로

20) 인천일보, 2003년4월22일자, 굴포천서 페놀, 승기천서 시안, 인체치명 발암물질 전국 유일 다량 검출 '경악' '굴포천과 승기천에서 독성물질인 페놀과 시안성분이 잇따라 발견되자 인천시는 인근 공단지역의 업체들을 의심하고 있다. -중략-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주요공단의 방류수 조사결과 승기천 인근 남동공단에서 1월과 3월에 각각 0.02mg/l의 시안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차집하면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농산
물도매시장 인근은 커튼을 내리고 물을 흘리고 있음에도 숨을 쉬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하류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맑은 물이 흐르
는 하천으로 보기 어렵다. 유속은 느린데 각종 쓰레기가 유입돼 중
간 중간 놓인 징검다리에는 쓰레기가 여전히 걸려 있다. 퇴적 오니
층은 육안으로 보기에 상당히 두껍다. 연수구나 남동공단에서 흘
러드는 유입부는 모두 차집되고 있으나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하천유지용수로 이용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수질개선을 기대하
기는 어렵다. 자연발원지가 없고 아직 불안정된 하천생태계로 수질
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4) 승기천을 찾는 철새와 남동유수지 저어새

남동წყ시터 인근 수문에서는 뿔논병아리가 관찰되고, 중대백로
와 쇠백로는 물론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წყ시터 수문 근처에서는 떡붕어가 관찰되나 하천서식환경은 열악
하다. 승기천은 상대적으로 넓은 둔치가 발달되어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길 옆으로 다양한 식생이 관찰된다. 갈대와 애기부들, 미국

가막살가 자라며 벼과와 사초과 식물들이 보이고 남동유수지에 가까워지면서는 칠면초, 통통마디, 해홍나물, 갯능쟁이, 갯메꽃 등 염생식물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유수지 주변으로는 말뚝비름과 갯메꽃이 장관이다. 동막교 지나 유수지 초입에는 모감주나무와 멸구슬나무가 자란다.

사람의 간섭이 비교적 적은 하류의 남동유수지에는 겨울이면 수백마리의 철새들이 찾아오고 여름이면 유수지 내 인공 섬에서 멸종위기1급보호종이며 천연기념물인 저어새가 둥지를 튼다. 재갈매기와 자리싸움해야 하는 저어새는 2019년 너구리의 침입으로 크게 낭패를 보았다.²¹⁾ 텃을 설치하여 너구리를 포획하여 다른 곳으로도 이주시켰으나 저어새 번식이 급감하자 인천시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인공섬 주변으로 전기기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공섬 둘레로 약 1.5m높이의 전기

21) 정인일보, 2019년6월18일, 야생너구리 습격에 남동유수지 '저어새섬 번식' 끊길 위기 '남동유수지에서 태어난 저어새 수는 2017년 233마리에서 지난해 46마리로 크게 줄었고, 올해는 15마리까지 줄어들었다. 부화개체가 2년만에 약 93% 줄어든 것이다. -중략- 번식이 급감하고 있는 원인은 너구리의 공격이다. 유수지 내 2개 인공섬에 설치된 무인센서카메라에는 번식이 시작된 4월부터 너구리가 저어새 둥지를 공격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울타리를 설치하여 너구리에게 전기충격을 가해 접근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우수지 제방에는 족제비도 살고 있다.

2008년 여름과 가을, 승기천 하류 남동우수지와 외암도 수로에 선이 최소 4천 마리가 죽었다. 감염경로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관계 기관에서는 보툴리즘균²²⁾과 살모넬라균에 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야생에서 새들은 보툴리즘 독소가 생성된 사체의 구더기를 먹거나 독소가 오염된 물을 먹으면 감염된다. 결국 보툴리즘 감염이 확인되면 사체나 감염된 개체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최선책이다. 당시 환경단체뿐 아니라 일반시민과 학생들도 구조와 사체 수거에 참여했는데 살아있는 새들의 치료소를 찾지 못해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시민과 학생들이 10마리를 데려갔다. 탈수증상을 보이는 새들에게 이온음료를 먹이고 카스테라, 건빵, 스프, 닭사료 등을 먹이로 주며 돌봤다. 그 중 5마리는 죽고 청둥오리, 고방오리, 넓적부리 등 5마리는 그해 겨울 강화도 장흥리 논배미에서 자연으로 돌아갔다.

22) 보툴리즘균은 독소를 생산하는 혐기성균으로 토양 속에서 존재한다. 인위적인 교란으로 속도양이 노출되거나 용존산소가 부족해지는 경우 보툴리즘균이 이상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된 새들은 운동근육이 마비되어 날개를 늘이지고 정상적으로 날지 못한다. 목의 근육이 마비될 경우에는 목이 물 속으로 늘어져 익사하게 된다.

2016년에도 남동유수지에서 400마리의 철새가 죽어나갔다. 인천시는 전문가와 환경단체, 관련기관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해수유통한다는 소식이지만 펼지대로 사체수거와 구조가 어려움을 겪었다. 2016년에는 천연기념물이며 멸종위기1급 보호종인 저어새까지 폐사했다. 주요 폐사장소가 2008년에는 외암도 수로였고 2016년에는 남동유수지였다. 또 2019년 여름에는 외암도 수로에서 송어 수백마리가 집단폐사했다. 수로의 관리기관인 인천경제청은 수로에 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장마비가 내려 용존산소량이 급감하고 염분농도가 줄어들면서 송어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물고기와 물새들의 지속적인 집단폐사로 중장기적인 정밀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인천에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구조하고 전문적으로 치



구월배수펌프장

료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²³⁾ 승기천 하류는 깃벌을 매립한 곳으로 대규모 공단지역이 인접해 있고 하수처리장 처리수가 유입되고 있다. 승기천은 불안정한 하천 생태계로 앞으로도 물고기와 물새류가 집단폐사할 가능성이 크다. 감염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사체를 수거하고 감염개체를 구조해서 치료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들의 60%가 인천을 찾는다. 송도에는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EAAFP) 사무국이 있다. 소청도에는 국가철새연구센터가 문을 열었다. 2018년 송도에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들어섰다.

3. 승기천 복원에 대한 제언

하천복원이 사회적 대세가 된 지는 오래다. 도시생태축과 바람길로서의 역할, 도시열을 낮추고 자연체험학습공간으로 기능하며 도시민들의 정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여러 하천 복원 사례를 점검하고 충분한 조사분석과 사회적 숙의과정을 거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위기시대에 에너지전환

23) 인천일보, 2016년8월19일자, 환경의창 '국립야생동물구조센터가 필요하다' 장정구

은 물론 승용차중심에서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으로 교통수단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복개된 하천의 상부는 기본적으로 도로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도로를 생태공간이 하천으로 되돌리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하지만 승기천의 인주대로와 같은 주간선도로는 출퇴근시간대에 교통량이 적지 않아 하천복원으로 차선이 축소되면 교통난과 주차난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인접지역의 도시개발과 연계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006년 인천녹색연합과 단국대학교 공동조사팀은 인천하천 중당장 복원할 곳으로 장수천과 공촌천, 심곡천을 꼽았고 굴포천의 경우에는 당장 복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발표하였다.²⁴⁾ 장수천은 복개길이가 짧고 인천대공원 안을 흐르는 구간이 복개되어 당장 복원가능하고 복원한다면 인천대공원이 더욱 건강한 생태계를 갖게 되기 때문이었다. 공촌천의 경우에도 복개구간이 공촌정수장 인근으로 복원이 수월하고 한남정맥에서부터 바다까지 건강한 하천생태축이 살아남을 의미한다. 또한 심곡천도 비교적 짧은 구간이 복

24) 인천녹색연합, 2007, 인천복개하천조사보고서, p100

개되어 있어 당장 복원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발원지에서 심곡동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생태축이 형성돼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좋아질 것이라 판단했다.

굴포천은 부평공원과 반환될 부평미군기지가 있어 이곳과 연계하면 상당 구간이 자연형하천으로의 복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천천과 장수천의 복개는 그대로 있고 심곡천은 가정뉴타운사업이 추진되었지만 복개구간은 열리지 않았다. 굴포천의 복원계획은 수립되었지만 반환될 미군기지나 부평공원과 연결되지 못했고 지류인 산곡천 미복개구간 2곳은 2009년과 2019년 각각 덮여버렸다.

‘승기천은 복개구간의 복원보다 중요한 것이 미복개구간의 수질 관리라 판단된다. 넓은 하폭을 감안 곳곳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둔치 지하에 설치하여 수질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복개구간의 복원은 당장은 무리라고 판단되며, 복원을 검토하기 위해 이전 발원지와 상류 물줄기에 대한 고증, 문헌 검토 등의 조사작업이 필요하다’²⁵⁾

25) 인천녹색연합, 2007, 인천복개하천조사보고서, p81, 승기천 평가내용 중에서

승기천 복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발원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많은 하천복원의 문제점들은 하천을 복원하더라도 상류에 복개구간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도시경관사업을 넘어 진정으로 하천복원을 통해 도시생태계를 복원하려면 상류 발원지부터 물길이 열려야 하고 하류와 연결되어야 한다. 승기천 본류의 복원을 위해서는 상류물줄기에 대한 고증과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승기천 복개구간에는 구월배수펌프장이 있다. 저지대로 많은 비가 내리면 자연배수가 되지 않아 펌핑해야 한다. 장마철이면 침수 피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 공공건물과 공공부지 지하에 빗물 저장시설 설치를 하천복원계획 추진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빗물저장을 침수에도 대비할 수 있고 저장빗물은 소방용수로, 가로용수 등을 지하수위를 높이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들은 대개가 대용량으로 하천 하류에 위치하고 있다. 정화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한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관리가 수월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수와 하수의 합류



하천살리기추진단 교육장

하는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하천의 건천화를 가속시켰다. 우기 때는 종말처리장의 용량과다로 하수처리비용이 증가하고, 하수 하천유입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수와 하수를 분리하고 별도로 이용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도시재생지역에서는 중소규모의 하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나오며

2009년 4월 22일 오전, 연수구에 사는 인천녹색연합 회원으로부터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렇게 2009년 4월 22

일은 필자에게도, 인천지역자연환경보전활동에서도, 한국조류학계에서도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 지금은 저어새섬이라 불리는, 남동유수지 안 인공섬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조류인 저어새가 둥지를 틀었다. 저어새 번식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인천시는 시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고 마지막 송도갯벌인 11공구의 약 절반이 남아 습지보호지역이 되었다. 시민들은 매년 4월이면 저어새 환영잔치를 열고 남은 송도갯벌과 남동유수지에서 저어새를 관찰한다.

2009년 승기천 중하류의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이 마무리되었다. 시청과 송도 사이에 위치한 승기천은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을 앞두고 있어 민선4시 인천시정부가 특별히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도시축전은 2009년 8월 7일, 송도에서 개막했다. ‘내일을 밝히다’는 제목으로 인천시가 주최한 도시축전은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개발의 모델을 제시하고, 해외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갯벌을 매립한 송도에서 80일간 열렸다. 당시 자전거도로도 시청과 송도를 연결하는 구간에 우선 건설되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하천변을 정비하고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등 하천

살리기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금의 승기천은 여전히 자연하천, 생태하천이 아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끌어와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한다. 악취를 차단하기 위한 커튼이 내려졌지만 냄새는 여전하다. 시민편의시설로 하천변에 설치한 시설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후되고 훼손되면서 골칫거리가 된다. 상류의 분수광장은 ‘위험, 접근금지’ 노란띠가 둘러쳐져 있고 때마다 다리 교체공사가 진행된다. 한 때 사람들로 붐볐을 하천살리기추진단 하천교육장 주변에는 풀만 무성하다. 민선7기 인천시 집행부가 승기천 복개구간 복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천복원, 반가운 소식이다. 부디 하류의 수질을 개선하고 물길이 연결되길 기원한다. 또한 경제와 정치가 아닌 환경적인 관점에서 하천복원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승기전 현재 물길과 과거 갯골 (자료 최혜자)

미추홀, 살아지다
승기천을 기억하다

기록일지

관저 건물

1900년 기준

미추홀, 살아지다2 승기천을 기억하다

기록일지

7월 17일

‘살아지다’

원도심, 미추홀구에 흘렀던 승기천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지역주민의 기억(아카이빙)을 통해 그 존재를 드러내고자 한다. 미추홀구의 물길 역사는 다시 쌓일 것이다.

7월 24일

마을의 역사와 지역의 살아있는 삶을 담은 기록물을 만들자.

8월 9일

『미추홀, 살아지다2』 기록팀을 구성하다.

8월 12일

인천하천 기억은 다른 지역의 기억과 다를 수 있다.
인천역사문화센터 김락기 센터장을 만나다. 당신
에게 인천(미추홀구)은 어떤 곳입니까?

8월 31일

80년대의 복개과정을 통해 미추홀구의 하천 변화
과정을 담아보고 싶다. 인천사연구소 김상태 소장
님을 만나다.
생태적 의미에서 물길을 살리는 일. 인천도시생태
환경연구소 박병상 박사를 만나다.

9월 6일

승기천 상류 복원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올
바른 절차를 밟으며 진행될 겁니다. 인천시 수질환
경과 유훈수 과장님 외 담당자를 만나다.

9월 11일

기록은 빠르게 지나가는 일상을 느리게 하고, 인간
다운 삶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한다.
또한 기록은 사실 자체가 아닐 수 있다. 언제, 누가,

왜, 어떻게 회상하느냐에 따라 편집되고, 생산되고, 강화된다.

전문가와 지역별 구술대상자를 선정하다.

9월 24일

인천 하천 살리기 구간정비를 마무리하며 복개구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하천복원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기 위해 <2006년 인천복개하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물길복원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도시설계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위원장을 만난다.

9월 30일

세월이 아름답게만 쌓였을까? 쌓여가는 시간을 버티게 한 힘은 무엇일까? 무엇을 인터뷰할 것인가? 당대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소멸, 생성하는 미추홀의 역사를 주민들 구술을 통한 삶의 이야기를 토대로 기록하고자 한다.

10월 2일 / 7일 | 인천 물포럼과 물길복원 타당성검토 용역 중간보고서

10월 4일 | 삶의 정주성과 거주성, 인간 삶의 지속가능을 위한 마을 형성과 생태적 흐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인천 도시 정체성을 위한 방법적 접근으로서 승기천 복원이나 구술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공간, 문화, 정치의 생태학> 저자 현광일 선생님을 만나다.

10월 11일 | 당신이 기억하는 승기천을 이야기해주세요. 추억과 주변에 대한 기억, 그 당시 미추홀구는 어떠했나요? 다시, 미추홀구에 물길이 생긴다면 어떤 모습을 상상하게 되나요? 당신에게 미추홀구는 어떤 곳(의미)입니까?

10월 16일 | 옛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런저런 열매들이 떨어져 나

오는 텃밭처럼 풍성해진다. 그때 그 시절의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하나도 특이할 것 없는, 단편적인 기억은 때로는 시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김윤식님을 만나다.

‘승기천, 작은 천이야.’ 시종일관 무심하게 이야기했지만 용현동 어디를 흘렸는지, 그 물줄기들이 모여 넓게 흐르는 곳은 어디였는지, 몇 채 안 남은 국민주택을 가리키며 예전 기억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애쓰셨다. 오인영님을 만나다.

10월 17일

옛기억을 쏟아내면서 물길을 기억해낸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물줄기를 기억으로 그려나가면서 미추홀구와 함께 살아온 인생을 말씀해주셨다. 김갑성, 김연수님을 만나다.

10월 18일

어린 시절 돌봉숭아로 손톱을 물들이던 소녀는 꽃차를 만들고, 지역의 골목길 여기저기 돌기를 아직

도 좋아한다. 민후남님을 만나다.

동네에서 놀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소박하고
꾸밈없는 이야기는 그 시절의 아련한 풍경처럼 잔
잔하게 다가온다. 박병상님을 만나다.

10월 24일 | 생활터전이 된 미추홀구에서 고병선님을 만나다.

10월 25일 | 논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학교 가고 친구들과 놀던
곳. 개발이다 뭐다 주변은 변하고 있지만 시대를 탓
하기보다 그 안의 또 다른 삶을 꿈꾸는 박성희님을
만나다.

울면서 울면서 온 인천은 선생님의 삶의 터전이 되
고, 김종임님을 만나다.

10월 29일 | 말죽을 쑤던 집은 고향 대청도에서 잡은 생물로 음
식을 하는 가게가 되고, 마굿간 자리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물정 모르던 남자아이는 이곳에 터
를 잡고 고향 친구와 다정하게 삶을 꾸린다. 김원균
님을 만나다.

11월 17일 | 승기천을 기억하고, 그 시절의 밤하늘을 기억하는
이태승님을 만나다.

11월 25일 | 승기천의 마지막 모습을 들려준 이현준님을 만나다.

11월 27일 | 한 시절의 후회는 전혀 다른 삶을 예견하기도 한다.
박광현님을 만나다.

12월 1일 | 늦게 본 귀한 아들과 눈물을 보러 나간 아버지, 그
아버지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시는 이기영님
을 만나다.

미추홀, 살아지다-2 승기천을 기억하다

인주대로에 들어서며 한때 물길이었던 데를 가늠
해봅니다.

제작 기간에 만났던 선생님들 덕분에 잊고 살아
온 것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미추홀구의 물길의 역사가 쌓일 수 있을지...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록단 일동-

미추홀, 살아지다-2 승기천을 기억하라

2019년 12월 30일 발행


펴낸이 이회만
펴낸곳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

기획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록·정리 남희현 문성예 이명순

디자인 문성예

삽화 황순영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126
Tel. 032-866-3993~4
haksanculture.or.kr

ISBN 979-11-968891-1-1
979-11-968891-0-4 (세트)